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초등교사를 위한  
**속초학 안내서**



속초문화원



초등교사를 위한  
**속초학 안내서**



속초문화원



## ■ 발 간 사 ■

어느 한 특정 지역의 역사·사회·문화·경제 등을 총망라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지역학’이라고 한다. 한국학, 미국학, 중국학, 일본학 등 국제 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국내에서는 서울학, 부산학, 안동학, 춘천학 등이 과거 향토사 연구를 대신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속초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 영역을 ‘속초학’으로 명명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난 수십 년간 속초에 대한 연구가 속초문화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결과물들은 기성세대 특정 또는 소수 인물들만이 공유하고 향유하는데 그쳐 왔다.

속초 전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공유는 특정 연령대나 계층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을 이루는 주체는 모든 지역민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낮은 학교급별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자신이 속한 지역이 미치는 영향력은 중요한 가치로서, 자긍심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주요 변인이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다. 원고 집필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감수에 응해 주신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을 원활히 이끌어준 전 옥 팀장과 속초시청 문화유산계 홍성은 주무관에게 발간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2022년 12월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양 용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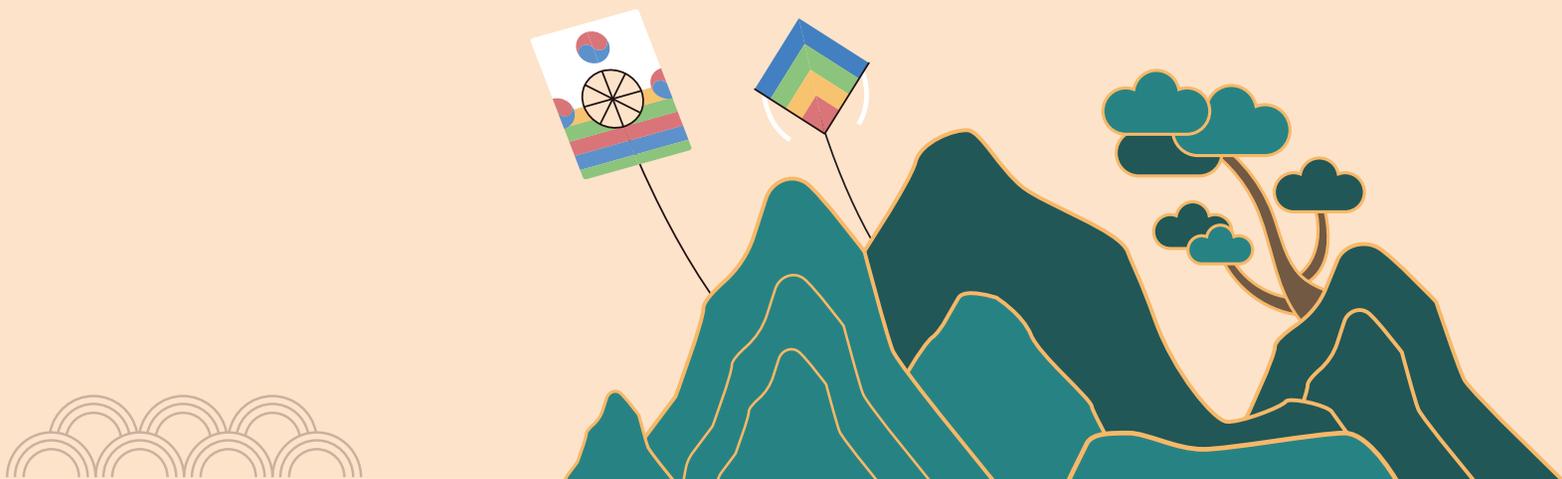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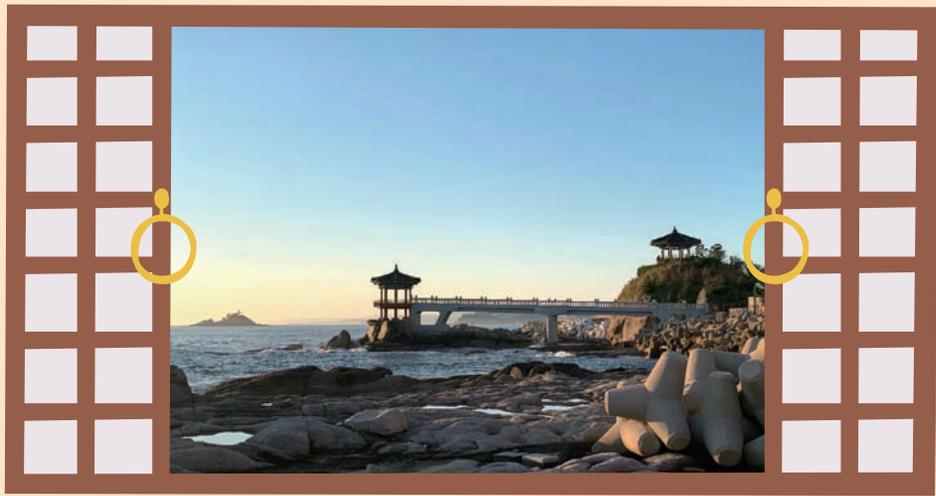
# 목차



<b>I. 우리 동네 이야기</b> .....	<b>5</b>
1. 지명(地名)	
2. 설화(說話)	
3. 속초의 전통(아동)놀이	
4. 속초 8경	
<b>II. 속초의 지리와 동·식물 이야기</b> .....	<b>51</b>
1. 속초의 자연환경	
2. 속초의 인문환경	
3. 속초의 동·식물	
<b>III. 속초의 역사와 전통 이야기</b> .....	<b>91</b>
1. 속초의 역사	
2. 속초의 문화재	
<b>IV. 명산 설악산 이야기</b> .....	<b>145</b>
1. 설악산 이야기	
2. 설악의 명승	
3. 지형과 지질	
4. 설악산의 식생	
5. 설악산의 동물	

## 참고문헌

# I . 우리 동네 이야기





# 1. 지명(地名)

## 가. 속초(束草) 땅이름 유래

‘속초’라는 지명이 보이는 최초의 기록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의 ‘속초포(束草浦)’이다.<sup>1)</sup>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문헌 기록으로 지역의 뿌리를 찾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속초’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다음 5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속초는 속새풀<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이 많아 황무지, 벌판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불리었는데 이 두 땅이름이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영금정과 관련된 전설로 지금의 영금정 옆에 솔산(솔섬)<sup>2)</sup>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셋째, 풍수지리학상 속초의 지형은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넷째,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설악산(雪嶽山)을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신흥사(神興寺) 승려에게 울산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님이 이 바위를 재로 쪼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靑草湖)와 영랑호(永郎湖) 사이, 곧 지금의 속초(束草) 시가지에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동여맨 후 불에 태워 재로 쪼 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러자 울산 고을 원님은 더 이상 지세(地稅)를 내란 말도 바위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한자로 ‘묶을 속(束)·풀 초(草)’로 적어 지금의 속초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다섯째, ‘속초’는 ‘속식’라는 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기하면서 생겨난 지명으로, 음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속식’라는 순우리말에서 ‘속초’라는 한자 지명 ‘束草’가 생겨났다는 주장이 최근 향토사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sup>3)</sup>

1) 손병섭 외, 『속초의 옛 땅이름』, 속초문화원, 2002, 15쪽.

2) 솔섬은 현재 동명항 북 방파제 입구에 있는 섬이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도 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노송(老松)들이 고풍스럽게 우거져 있던 섬이었다. 섬이라고 하지만 해안선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섬까지 가는 길이 깊지 않아 발목만 적시고도 건너갈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솔섬’이라고 불렀고, 한자로는 ‘송도(松島)’라고 했다.

3) 2021년 속초문화원 향토사 포럼『속초 지명 역사성 및 정체성 연구』에서 나온 새로운 지명 유래설이다.

## 나. 행정구역의 변천

면리제(面里制)가 시행되었던 조선시대의 속초는 대부분 지역이 양양에 속해 있었다. 행정구역상 양양도호부 도문면과 소천면의 2면으로 되어 있던 속초는 소천면에 4개리(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 도문면에 6개리(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신흥사)가 있었다.

소천면의 논산리, 부월리는 현재 조양동이며, 시내권에 속한 곳이 속초리와 속진리였다. 속초리는 청초천을 중심으로 오늘날 시내 쪽에 있었고, 동명동 일부와 영랑동 지역은 속진리에 속했다.

일제강점기이던 1914년 지방제도 개혁으로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으로 개칭되고, 11개 동리(속초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장항리)를 이루었으며, 이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이때 속초리와 속진리가 합쳐져 속초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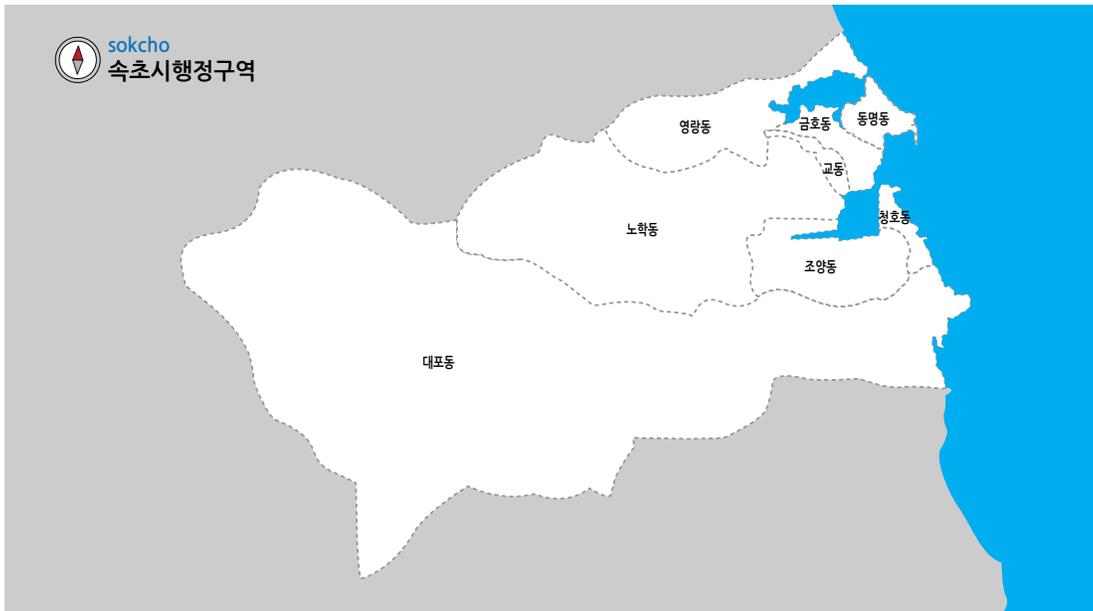
1930년대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1937년에 면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42년 10월 1일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었고,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되면서 부월리에서 온정리가, 논산리에서 청대리가 분리되었다. 속초리는 피란민의 증가로 인구가 더욱 늘어 5구와 6구가 신설되었다. 1963년 1월 1일 속초시로 승격 후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동 이름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 1〉 동제 실시로 개편된 동 이름

1966년 12동으로 개편	
속초리 1구	영랑동
속초리 2구	동명동
속초리 3구	중앙동
속초리 4구	금호동
속초리 5구	청호동
속초리 6구	청학동과 교동
부월리, 논산리, 청대리	조양동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노학동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	대포동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도문동
장항리	설악동

그 후 197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되어 장사동이 되면서 13개 동으로 되었다. 1983년에는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장재터)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1998년 (법정)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8개 행정동과 13개 법정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다. 행정구역 지도



〈그림 1〉 속초시 행정구역도(행정동)  
출처: 속초시청 홈페이지

## 라. 행정동별 주요 지명

### 1) 영랑동(永郎洞)

1998년 법정동을 통합 및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할 때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져 영랑동이 되었다.

#### 가) 영랑동(永郎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속초리(東草里) 1구를 영랑호(永郎湖)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永郎洞)으로 이름하였다.

### 【새쪽마을】

영랑동의 바닷가 마을(등대 아랫마을)을 ‘새쪽마을’ 또는 ‘삼짜개’라고 하였는데 뱃사람들의 말로 동쪽은 새쪽이라 하고 이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짜이라고 하여 새짜마을의 뜻으로 ‘삼짜개’라고 불렀다.



〈사진 1〉 속초 등대에서 바라본 영랑동

### 【영랑호】

속초시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瀉湖)



〈사진 2〉 겨울 영랑호

### 【영랑 시장】

영랑동에 위치한 시장. 현재는 없어졌지만, 속초의 중심지가 영랑동, 동명동이었을 때는 여기가 제일 큰데다 먼저 생겼으므로 ‘제일시장’이라고도 했었다. 또 속초가 시(市)로 승격되어 동(洞)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영랑동이 속초리 1구였으므로 ‘1구 시장’이라고도 했다.

### 나) 장사동(章沙洞)

장사동은 과거에 고성군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말까지는 간성군 토성면에 속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간성군이 고성군과 양양군에 나누어지면서 양양군으로 편입되기도 하였지만, 영랑호까지 간성군 영역이었다. 토성면은 1919년부터 1962년까지 양양군에 속하였다가 고성군에 귀속되었다.

그 후 속초의 발전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1973년 7월 1일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의 첫 글자를 따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 【장천리(章川里, 노루내)】

장천리(章川里)는 본래 ‘노루 장(獐)’자 장천리(獐川里)였던 것이, 조선 후기 마을의 유지였던 엄씨 집안에서 진사<sup>①</sup>가 나자, 진사가 난 마을에서 어떻게 노루 장자를 쓰냐고 해서 ‘글 장(章)’자로 이름을 바꿔 지금의 장천리(章川里)로 바뀌었다. 장천(獐川)의 ‘노루 장(獐)’은 마을 서쪽 원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 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장천(獐川)이라고 한 것이다. 후에 장천(章川)으로 변하였다.

### 【국사봉(國師峰 국수봉, 국시봉, 된봉)】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산 봉우리. 해발 84m로 영랑호에서 보면 호수 바로 북서쪽에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예전에는 국사 서낭신<sup>②</sup>을 모시는 국사 성황당<sup>③</sup>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국사봉은 다른 말로 발음이 비슷한 국수봉, 국시봉이라고도 하고, 봉우리가 붓같이 뺨어나게 아름답다고 하여 문필봉(文筆峰)이라고도 한다. 또한 사진리에서는 된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진리 마을에서 볼 때 마을의 된, 즉 뒤 안쪽의 봉우리라는 뜻이다.



〈사진 3〉 국사봉

### 【사진리(沙津里)】

장사동의 중심 지역이다. 원래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였다가, 1973년 속초시로 편입되면서 장천리와 합쳐져서 장사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진리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라고 불리었고 이것을 한자로 사야지(沙也只)라고 표기한 것이다. 조선시대 읍지에는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부터 줄여서 사진리라고 불리었다. 속칭으로는 지금도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한다.

### 【강장군산(姜將軍山)】

속초고등학교 뒤편(북쪽) 산. 강장군이란 장사가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강장군이라는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용촌리(龍村里) 번개(예전에는 호수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음.)에서 태어났고, 용촌리 용지호(순개 또는 방축개라고도 한다.)에서는 강장군이 탄 용마(龍馬)가 나왔다고 한다.

### 【고바우】

영랑호 동북쪽 가에 있는 바위. 코처럼 생겼다고 하여(고는 코의 옛말) 고바우라고 하며, 그 부근 갯가를 고바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 고밭개라고 한다. 다른 말로 신선이 놀던 바위라고 하여 신선바위, 또는 바위 형상이 운선(輪船)④같다고 하여 운선바위, 두꺼비 같다고 하여 두꺼비바위라고도 한다.



〈사진 4〉 고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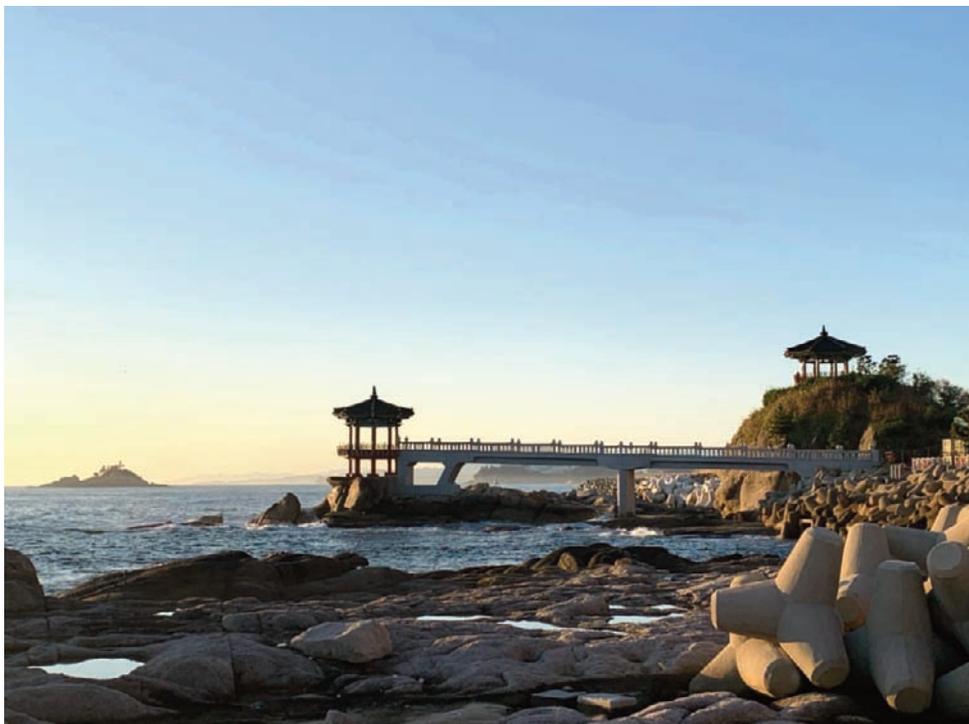
- ① 조선시대에, 과거의 예비 시험인 소과(小科)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런 사람.
- ② 민간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신. 성황이라고도 한다.
- ③ 서낭신을 모신 집.
- ④ 예전에 '기선'을 이르던 말. 기선은 증기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2) 동명동(東明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2구를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해가 밝아온다는 의미로 동명동(東明洞)이라고 하였다.

### 【영금정(靈琴亭)】

‘영금정’은 속초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3면이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닿아 있는 석산으로 일제강점기에 속초항을 개발할 때, 이 돌산을 파괴해서 돌을 채취하여 항구를 만드는 데 이용하였다.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으나 영금정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사진 5〉 영금정 일대

### 【마쪽마을】

등대가 있는 산등성이 남쪽 마을로 현재 영금정 입구 쪽의 마을이다. 뱃사람들의 말로 남쪽을 마쪽이라 하는데, 이 고장 방언으로 마쪽을 ‘마짜’이라고 하고 마짜 마을이라는 뜻으로 ‘마짜개’라고 불렀다.

### 【장안골】

법원·검찰청과 속초감리교회, 동명동 성당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으로 ‘장골’ 또는 ‘장안골’이라 불렸으며, 속초리토성이 있었던 곳이다.

## 3) 금호동(琴湖洞)

1998년 법정동을 통합 및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할 때 금호동과 중앙동이 합쳐져 금호동이 되었다.

### 가) 금호동(琴湖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 4구를 금호동(琴湖洞)이라고 명명하였다. 금호동은 신라 화랑인 영랑(永郎)이 뱃놀이하였다는 영랑호(永郎湖)와 청초호(靑草湖), 두 호수와 잇닿아 있다. 또한 옛날부터 시인들이 이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시문을 남긴 것처럼 호수의 주변이 아름다워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가 들릴 듯하다 하여 이런 낭만적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옛날 고려 말엽 함께 공부했다는 안축(安軸)과 이곡(李穀) 두 시인이 이 호수에서 뱃놀이하며 음자를 놓고 서로 시를 읊은 것을 보면 가히 금호동의 동명(洞名)이 돋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금호동명(琴湖洞名)은 거문고 소리와 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이 서로 어울리는 깊은 뜻이 담긴 땅이름이다.

### 【범바위】

영랑호 남서쪽 가에 있는 큰 바위. 그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사진 6〉 범바위

## 나) 중앙동(中央洞)

속초 시내의 중심부로 수복 이후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7번 국도변은 금융업, 청초호 연안은 어항으로 발전해 왔다. 동 이름이 생기기 전까지 속초리 3구로 불리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까닭으로 중앙동(中央洞)이라고 이름하였다.

### 【중앙시장】

속초에서 제일 큰 시장. 속초리 3구 가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삼구 시장’으로 부르던 것이,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3구가 중앙동으로 이름 지어져 이에 따라 중앙시장으로 불렸고, 현재는 속초관광수산시장으로 부른다.

### 【용소골(용숫골)】

현재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의 옛 이름.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골 입구에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소(沼)가 있어 ‘용소골’이라고 불리던 것이 ‘용숫골’로 변화되었다.



〈사진 7〉 속초관광수산시장

### 【짱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중앙시장, 시외버스 정류장, 미시령 도로로 갈라지는 교차로의 옛 이름. 예전에 이곳에서 짱치기 놀이(소나무 옹이로 공을 만들고 끝이 꼬부라진 나무나 지게 작대기로 짱채를 만들어 상대방 문에 넣은 놀이)를 했으므로 ‘짱터’라고 불렸다.

## 4) 청호동(靑湖洞)

본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이었으나, 수복 이후 피란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 5구가 되었다. 1966년 12개 동으로 개편될 때 청호동(靑湖洞)으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때 청호동은 정어리 공장이 두세 군데가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이후 피란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 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청호(靑湖)라는 이름은 청초호(靑草湖)에서 온 것이다. 청호동에는 함경도(咸鏡道)에서 내려온 피란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咸鏡道)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한다.

【갯배 나루】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 이전에는 ‘5구 도선장’이라고도 했다.



〈사진 8〉 갯배 나루와 금강대교

【조도(鳥島, 새섬)】

청호동 해수욕장 앞 바다에 있는 섬. 우리말로는 새섬이고,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조도이다.



〈사진 9〉 바다에서 본 조도

【주교(舟橋, 배다리)】

동쪽은 동해, 서쪽은 청초호 그 북판으로 다리 모양 육지가 뻗어서 도선장(갯배)에 이어졌기에 부두와 같다 하여 청호동을 배가 닿은 부두, 반부득 또는 배다리라고 했다. 한자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

5) 교동(校洞)

1998년 법정동을 통합 및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할 때 교동 일부와 청학동이 합쳐져 교동이 되었다.

가) 교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 6구가 청학동(靑鶴洞)과 교동(校洞)으로 분리되었다. 보통 향교(鄕校)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이라고 하나 속초는 옛 고을 중심지가 아니어서 향교가 없었다. 따라서 향교와는 관련이 없고 당시 속초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속초중학교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으로 이름했다.

【만천동(萬千洞, 萬泉洞)】

교동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던 옛 땅이름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마을 뒤쪽 산에서 흘러 내리는 물길이 많아 곳곳에 좋은 샘물이 솟아나서 만천동이라고 했는데, 이후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가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萬千戶)가 될 거라고 말을 하여 그 뜻으로 지었다고 하는 설도 있다.



〈사진 10〉 만천동 교동성당

## 나) 청학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 6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을 청학동(靑鶴洞)이라고 이름하였다. 청학동이란 이름은 청초호가 너무 많아 지나가던 학들이 갈대밭에서 쉬고 갔다 하여 붙여졌다.

### 【청학시장(육구시장)】

속초리 6구에 위치한 시장이므로 ‘육구시장’이라고 하다가, 6구가 청학동으로 바뀜에 따라 청학시장(靑鶴市場)이라고 불렀다.



〈사진 11〉 청학시장(육구시장) 일대

## 6) 노학동(蘆鶴洞)

1998년 법정동을 통합 및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할 때 노학동과 교동 일부가 합쳐져 노학동이 되었다.

1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를 합쳐서 노학동(蘆鶴洞)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蘆)’자와 척산리(尺山里) 학사평(鶴沙坪)의 ‘학(鶴)’자를 딴 것이다.

조선 후기 읍지(邑誌)❶에 현재의 노학동(蘆鶴洞) 지역은 행정상 동·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상 논산리(論山里)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사람들의 거주가 늘어 일제강점기부터 행정상 노리(蘆里)가 신설되었다. 습지대의 개발로 인구가 늘어 1942년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될 때, 노리(蘆里)가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의 4개 리로 나뉘었다.

그리고 1962년 타도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뒷버덩❷으로 집단 이주해 와서 신흥리(新興里)가 신설되었다.



- ❶ 한 고을의 연혁, 지리, 인물, 산업, 문화, 풍속 따위를 기록한 책
- ❷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

### 【노리(蘆里)】

노학동의 중심 마을이며, 갈골,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라고도 했다. 현재 논, 밭으로 조성된 앞버덩 일대가 이전에는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 노리(蘆里)라고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사진 12〉 노리 사거리 일대

### 【응골】

노리에서 청초천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적으로 노리(蘆里)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응곡(應谷), 응동(應洞)이라고도 한다. 마을이 청대산(靑垓山), 두루봉 등 앞(남쪽)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

### 【도리원리(桃李源里)】

노학동(蘆鶴洞) 지역 동북쪽 언덕 지대에 위치한 마을. 한자로는 도리원(桃李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른다.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도리원(桃李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마을에는 과거에 복숭아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숭아 도(桃)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지만, 오얏 리(李)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도리원(桃李源)이라는 한자 표기에 따라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도리원(桃李源)이 인구가 적어 노리(蘆里)에 속할 때, 노리(蘆里)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 【이목리(梨木里)】

노리 북쪽 골짜기 마을.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이목동(梨木洞), 이동(梨洞), 이목리(梨木里)라고 표기한 것이다.

### 【척산리(尺山里)】

마을 뒷산(남쪽, 목우재가 있는 산)이 마치 곡척(曲尺)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또 다른 유래는 농사철에 마을 뒷산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시간을 재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 【목우재】

목우(牧牛)재 설악동과 척산리를 연결하는 고개.

### 【주봉산(朱鳳山, 朱峰山, 주왕재)】

목우재와 싸리재 사이에 있는 산. 서쪽으로는 설악산 달마봉, 동쪽으로는 청대산이 자리하고 있다. 해발 338m이다.

### 【신흥리(新興里)】

1962년 충청도 논산에 제2 훈련소를 조성하면서 그곳의 일부 주민을 이주시켜 뒷버덩에 조성한 마을이다. 1966년 동(洞)제를 실시하면서 주변의 다른 동리와 함께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다. 신흥리라는 땅이름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 【학사평(鶴沙坪)】

학사평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자 대신 ‘학(鶴)’자를 써서 학사평(鶴沙坪)으로 개명하였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밭이라고 한다.

### 【자활촌(自活村)】

자활촌(自活村)은 학사평 벌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1961년 집단 이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자활촌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현재는 바람꽃 마을로 이름이 바뀌었다.

## 7) 조양동(朝陽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扶月里),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靑垓里)를 합쳐서 조양동(朝陽洞)이라고 이름하였다. 조양(朝陽)이란 땅이름은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는 뜻이다.

### 【부월리(扶月里)】

조양동의 중심 마을이었다. 순우리말로 ‘배다리’라는 불렀는데, 이는 지금의 부월리와 청호동 사이에 부교(浮橋)를 놓아 건너다녔다고 해서 생긴 마을 이름이라 한다. 조선시대 영조 때 발행된『여지도서』에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그 후 읍지(邑誌)에서부터는 부월리(扶月里)로 기록하고 있다.

### 【온정리(溫井里)】

행정상 부월리에 속해 있던 마을인데,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될 때 인구 증가로 부월리에서 분리되었다. 마을 중간에 더운 우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므로 이 마을을 더운 우물, 또는 한자로 온정(溫井)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부월리에 속해 있을 때 부월리는 바깥이고 온정리는 안쪽이므로 ‘안말’이라고도 했다.



〈사진 13〉 온정리 우물

**【논산리(論山里)】**

논산이란 마을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논 가운데 산이므로 우리말로 논뫼, 논미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논산(論山)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조선시대 후기까지만 해도 양양 부사(조선시대 지방 관직의 하나)로 부임한 관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청초호에 배를 띄워 횃불을 피우고 축하연을 해주었다는 논뫼호불꽃놀이가 전해진다.

**【청대리(靑垓里)】**

논산리에 속하다가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될 때 인구 증가로 행정상 논산리에서 분리되었다. 마을 뒤(남쪽)에 청대산(靑垓山)이 있어서 청대산 밑이 되므로 청대리라고 하였다.



〈사진 14〉 청대리 주택가

## 8) 대포동(大浦洞)

1998년 법정동을 통합 및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할 때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이 합쳐져 대포동이 되었다.

1966년 동제 실시 때 대포리에 외옹치리, 내물치리를 합하여 대포동이라 하였고,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는 합쳐져 도문동으로, 그리고 장항리(獐項里)는 설악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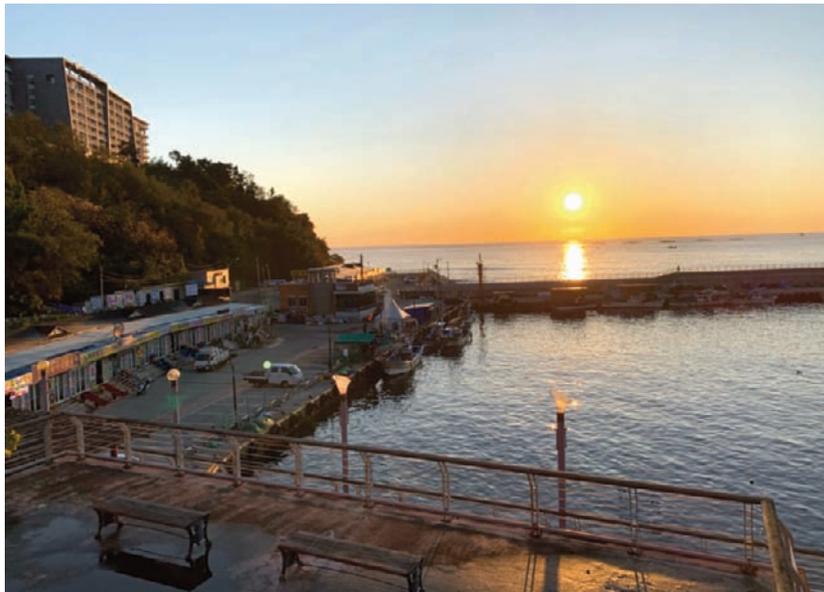
### 가) 대포동(大浦洞)

#### 【대포(大浦)】

큰 포구라는 뜻으로 ‘한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대포라고 표기하였다. 일제강점기 때는 상당히 큰 항구로 속초지역의 문호 역할을 하였다. 1937년까지 도천면사무소가 있었다.

#### 【외옹치리(外甕峙里, 옹진리)】

조양동 새마을과 대포 사이에 있는 바닷가 쪽 마을로 밧독재로도 불리었다. 조선시대 행정상의 명칭은 옹진리(甕津里)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외옹치리로 바뀌었다.



〈사진 15〉 외옹치항 일출

### 【덕산(德山) 봉수터】

현 롯데 리조트 자리에는 봉수터가 있었다. 지금은 건물을 짓기 위해 많이 낮아졌지만, 원래는 산이었고, 그 이름이 ‘덕산’이었다.

### 【내물치리(內勿淄里)】

조선시대에는 속초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雙川)을 중심으로 양양 쪽에는 강선면 물치진리(勿淄津里)가, 속초 쪽으로는 도문면 물치리가 각각 행정 지역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양양 쪽 물치진리는 물치리, 속초 쪽 물치리는 내물치리가 되었다.

### 나) 도문동(道門洞)

도문동(道門洞)은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원효, 의상 두 대사가 양양군(襄陽郡) 강선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雪嶽山) 쪽으로 가다가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숲속에서 맑고 우아한 곡이 들리며 무상 무아의 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 크게 깨닫고 도통의 문이 열렸다 하는 전설을 바탕으로 도문(道門)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 【도문평(道門坪, 도문뜰, 도문평야)】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에 걸쳐 있는 넓은 들. 도문뜰 또는 도문평야(道門平野)라고도 한다.

### 【벼락바위】

상도문리 옹구점말 입구 쌍천(雙川)가에 있는 바위. 크게 갈라져 있는데,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 【짜리재】

상도문리 옹구점말과 노학동을 연결하는 고개이다.



〈사진 16〉 쌍천 벼락바위

### 【옹구점말】

상도문리 동쪽에 옹기점(甕器店)이 있었던 마을. 일명 토기점(土器店) 또는 점말이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 후기 천주교를 탄압한 경신박해(1860)때 충청도에 거주하던 천주교인들이 강릉을 거쳐 이곳에 정착하여 생계를 위해 옹기를 구워 팔았다고 한다.

### 【떡밭재】

중도문리와 논산리를 연결하는 고개 이름이다. 고개 옆으로 밭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떡밭이라고 했다.

### 다) 설악동(雪嶽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장항리를 설악동(雪嶽洞)으로 개편하였다.

### 【노루목】

노루목 고개 일대(동쪽) 즉, 현재의 설악동 B지구 일대를 가리키던 땅이름. 노루목이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장항(獐項)이라고도 불렀다. 옛날에는 이곳에 민가가 있어서, 설악동(雪嶽洞)의 옛 이름인 장항리(獐項里)의 중심 마을을 이루었다.

### 【목우(牧牛)재(모기재)】

설악동과 노학동 척산리를 연결하는 높고 긴 고개. 옛날에 현재의 노학동 일대의 토지가 대부분 신흥사 소유였는데, 가을 추수 뒤에 농민들이 생산된 양곡을 싣고 신흥사로 가기 위해 이 고개를 넘다가 우마(牛馬)에게 풀을 뜯게 하며 휴식을 취했다고 하여 목우(牧牛)재가 되었다.

### 【마등령(馬登嶺)】

마등령은 높이가 1,327m의 준봉으로 마치 말의 등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등산객들만이 넘어 다니나 예전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속초지역 행상인, 민간인들이 동서를 넘어 다닐 때 이용한 옛길 중 하나이다.

### 【대청봉(大靑峰)】

‘청봉(靑峰)’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는 “멀리서 보면 아득하게 푸른 옥색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으로 그 봉우리를 가리켜서 이름을 청봉(靑峰)이라고 하였다.(遠見只價而靑故指其絶頂而名曰靑峰).”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말로 상청봉(上靑峰), 또는 청봉(靑峰)이라고도 하는 설악산(雪嶽山)의 주봉으로 해발 1,708m이다.

### 【장재터】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 건너편이므로, 본래 양양군 강현면 상북 2리에 속해 있었으나,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단지 C지구인 핏골과 함께 속초시 설악동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서쪽에 장자, 즉 부자가 살던 터가 있는 까닭으로 장재터라 불린다.

## 2. 설화(說話)<sup>4)</sup>

### 가. 속초 설화의 특징

속초는 아름다운 바다와 호수 그리고 평야와 산악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연유로 풍부하고 다양한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속초는 바다를 통하여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 바다와 관련된 많은 민속신앙이 존재하고 있고, 이 신앙의 특징은 독자적이면서도 공동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바다에서 풍요와 열정적인 힘을 배웠고, 호수에서 평화로움과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호수와 관련된 놀이문화와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평야에서는 농경 생활을 하면서 기다림의 참을성과 농경문화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농경문화에서는 다양한 제례 의식과 신을 위한 연희행위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산악을 통해서 장중함과 웅장함, 그리고 진리를 배우면서 설악산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자연을 벗하여 왔다. 속초에 전해오는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설화들을 알게 되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다.

### 나. 속초의 옛이야기

#### 1) 영랑호 이야기

신라 시대 화랑인 영랑(永郎), 술랑, 안상, 남석행 등이 금강산에서 수련하고 무술대회에 나가기 위해 고성 삼일포에 와서 3일 동안 쉬다가 금성으로 향하던 중 영랑호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중 영랑이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하여 무술대회에 나가는 것조차 잊고 뱃놀이를 하던 곳이라 해서 영랑호라 불리게 되었다.



〈사진 17〉 영랑호 습지 생태공원 인근의 화랑 동상

4) '설화' 편은 '장정룡·양언석 공저, 『속초지역 구전설화』, 속초문화원, 1999.'와 『속초 도시변천사 I』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 숙종 때 김삼연이라는 사람이 영랑호에 와서 쓴 글 중에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사흘을 통곡하고 갔다는 글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 할 수 있다.

## 2) 장천 마을의 인심

장천 마을에 아홉 해 동안 흉년이 들던 시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거지나 다름없었다.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9년간이나 흉년이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마을에는 큰 부잣집이 있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고 했다. 아무리 흉년이라 해도 친정에 갈 때 떡은 해가야 하므로 두세 가마나 들여 떡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도 가을이 아닌 봄(보릿고개)이었다.

그때 산에서 아기를 낳고 허기가 저 아기가 강아지로 보이고 요강이 가마로 보여 아기를 삶아 먹었다고 하는 미친 거지가 그 부잣집을 지나다가 떡을 치는 것을 보고 그 떡에 달려가 넘죽 앞드려버렸다. 그런데 그 거지 몸에는 이가 많아서 그 떡을 사돈집에 보낼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또다시 두세 가마를 들여 떡을 만든 후 사돈집에 보내고 더러워져 버린 떡은 벌을 내려도 마땅한 그 거지에게 모두 주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보다는 사람을 중히 여긴 이야기가 마을의 구수한 민담으로 전해 내려온다고 한다.

## 3) 영금정과 징바위

영금정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은 매우 아름답다. 영금정 하면 정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금정의 ‘영’자는 신령 영(靈), 거문고 금(琴), 정자 정(亭)자를 쓴다. 신령스러운 거문고 소리가 나는 정자모양으로 생긴 석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진 18〉 영금정 암반자리

원래 영금정은 큰 바위로 이루어진 절경의 산이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바위를 부쇄 방파제를 만들어 속초의 명소가 없어진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하강하여 영금정에서 목욕하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다시 돌아갔다고 하여 영금정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영금정 석산의 넓고 평평한 큰 바위 위에는 장군이 말을 타고 다녔다는 장군바위와 말발굽 모양이 있다고 하고 바위를 치면 징 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징바위도 있었다.

#### 4) 청초호 용의 전설

청초호는 용의 전설이 내려오는 호수이다. 속초의 민속놀이 중 만천동 나룻배 싸움 놀이의 유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사진 19〉 청초호수공원 청룡과 황룡 상징물

“속초의 양대 호수인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각각 수룡과 암룡이 살고 있었다. 청초호에는 수룡(청룡)이 살았고 영랑호에는 암룡(황룡)이 살았는데 서로 땅속으로 통하는 물길을 따라 오가며 사랑을 나누었다. 어느 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불이 나 청초호 주변 솔밭이 불타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수룡이 죽고 말았다. 이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해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벌을 내렸다. 만천동과 청대리 사이의 소야천(청초천)을 왕래하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용을 달래고 흉사를 없애기 위해 정월대보름이면 무당을 청해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수룡의 죽음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이때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으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가 거행되면서 놀이로 정착하였다.”

## 5) 노학동 전설

노학동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이곳에 이씨 성을 가진 명문 대가가 있었는데 대대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많고 학문의 경지에 오른 대학자도 많이 난 집안이었다. 그렇게 명성과 학문을 날리던 이씨 집안은 어느 때부터인지 점점 가문이 기울기 시작하여 과거급제하는 일도 거의 없고 대학자도 나타나지 않고 가문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불순한 일도 가끔 발생하곤 했다.

이렇게 되자 이씨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서 대가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논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만 하여도 풍수지리설을 매우 신봉하던 때라 지관을 모셔다가 선조의 묘소를 돌아보게 했다. 지관은 그 묘소 앞편에 산사태로 산이 많이 유실되어 나간 곳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실된 곳을 유심히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하다가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유실된 이 자리는 설악산 중에서 최고의 명당이었던 것이었다. 지관은 같이 갔던 이씨 문중의 어른들에게 여기가 설악산 최고의 명당인데 이렇게 유실되었으니 이씨 집안의 운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일러 주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그럼 지관 어른, 이렇게 명당이 유실되어 우리 가문이 쇠하게 되었는데 뭐 좀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지관 어른, 속는 셈 치고 그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그 방도를 알려주시지요?”

그 지관은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명당을 복원하여 후손이 흥성한 일이 가끔 있었으니 해보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꾼을 얻어서 유실된 명당자리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다지고 하여 복원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무렵에 이씨 문중에 가장 나이 든 어른이 돌아가셨다.

문중에서는 이 어른을 모셔야 할 산소 자리에 관하여 의논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지금 복원하고 있는 명당자리에 모셔야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직 다 복원도 안 되었고 또한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이 명당의 기운을 발할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르는 처지에 그곳에다 모실 수 없지 않느냐는 신중론이 대립하게 되었다. 그들은 몇 차례 다시 만나 깊이 의논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문의 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지라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가문의 제일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복원하는 명당자리에 모시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지관과 의논하였더니 그 지관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못자리를 너무 깊게 파지 않

는 것이 좋겠다고 단단히 일러주었다. 그래서 인부들로 하여금 못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정해진 깊이만큼 파 내려갔는데 한 인부가 잘못하여 그 깊이 아래로 삽질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움직이더니 하얀 학 두 마리가 광채를 발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놀라고 황홀하여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 두 마리는 하늘을 몇 번 선회하다가 한 마리는 지금의 학사평 쪽으로 또 한 마리는 양양 쪽으로 날아갔다.

원래 학사평은 옛날에 시인 묵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선비가 이곳을 출입했다고 하여 학사평을 배울 학(學), 선비 사(士), 평야 평(坪)하여 학사평(學士坪)이라고 불렀는데, 이 학이 내려앉고부터는 모래도 많고 하여, 학 학(鶴), 모래 사(沙), 평야 평(坪)하여 학사평(鶴沙坪)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학은 여기 학사평에 잠깐 내려앉았다가 지금의 노학동으로 날아갔다.

노학동은 원래 노동, 즉 갈대가 많은 고을이라 하여 갈 노(蘆), 고을 동(洞)하여 노동(蘆洞)이었는데 학이 왔다 하여 노학동(蘆鶴洞)으로 불리게 되었고 한편 양양 쪽으로 날아간 학으로 인해 양양에는 학포리(鶴浦里)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 6) 울산바위 전설

울산바위는 설악산을 대표하는 바위로 그 웅장함은 대단하다. 그런데 울산바위라고 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물주가 천하제일의 명산을 금강산에 만들기로 하고 전국에 있는 웅장하고 멋진 산봉우리를 뽑아서 1만 2천 봉의 천하 명산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위들에게 금강산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울산에 있는 바위는 항상 자신의 모습에 자만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습이 장엄하고 웅장하여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조물주의 이야기를 듣고 금강산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사진 20〉 울산바위

울산의 바위가 떠나면서 주위의 바위들에게

“나는 본시 장엄한 바위로 이곳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명성을 얻지도 빛을 보지도 못했다. 따라서 나는 다른 멋진 바위들과 웅장함을 겨룰 것이기에 오늘 금강산으로 떠난다.”하고 말하였다.

이 바위는 너무 큰 바위라 빨리 달릴 수도 빨리 걸을 수도 없었다. 다른 바위들은 달려가지만, 울산의 바위는 그럴 수 없었다. 말이 바위지 이 바위는 바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이었다. 이 거대한 바위는 걷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다. 울산의 바위는 산맥을 따라 걸으면서 후회하기도 하였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다. 온 힘을 다해 금강산으로 길을 재촉하였지만, 힘이 들어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기진맥진하였는데 울산의 바위가 기를 쓰고 온 곳이 바로 설악산이었다. 빨리 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 자기 모습을 뽐내고 싶었지만 긴 여정으로 울산의 바위는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기로 했고 이왕 쉬려면 풍광 좋은 곳에서 쉬기로 하였는데 그곳이 지금의 울산바위 자리로 웅장한 설악산과 아름다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조물주에게 1만 2천 봉을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조물주는 1만 2천 봉에 들지 못한 바위들은 모두 돌아가라고 명하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울산 바위는 매우 실망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에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조물주가 자신을 보면 높이 평가하여 중요한 자리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조물주를 찾아갔다.

조물주에게 예를 갖추고 나서

“조물주 님! 저는 웅장하여 빨리 걸을 수 없어 다소 늦었습니다. 저를 보시고 금강산에 좋은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조물주는 울산의 바위를 살펴보니

“형상은 금강산을 빗내고도 남음이 있으나 이미 금강산을 모두 이룬 후라 나도 어쩔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조물주는

“금강산은 너의 형상이 너무 커서 자리할 곳이 없으니, 다른 좋은 산으로 가서 멋스러움을 자랑하라.”하고 말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울산의 바위는 화도 나고 자존심이 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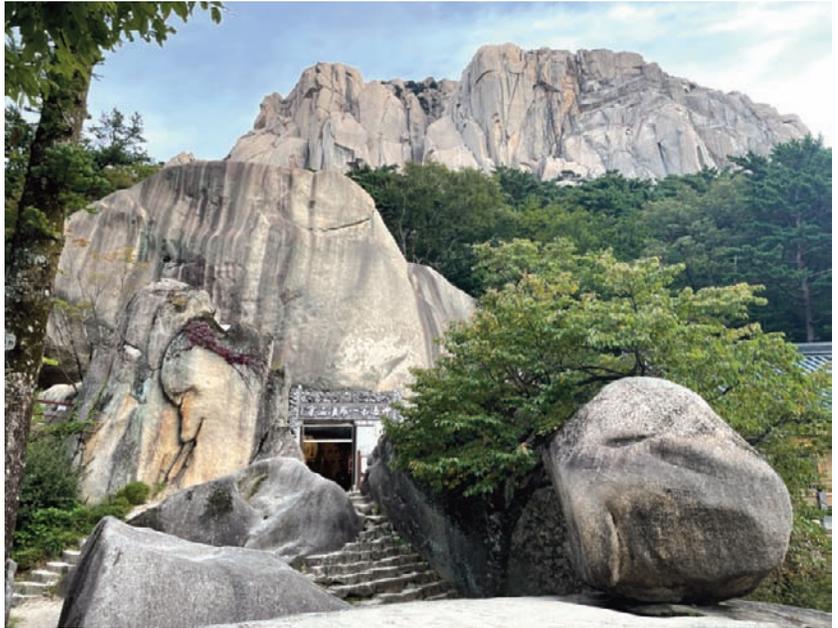
“저도 자존심이 있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겠소.”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울산의 바위는 고향의 바위들에게 이미 허풍을 떨어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에 금강산에서 물러 나오며 설악산을 생각하게 되었고 웅장한 산과 아름다운 동해를 굽어볼 수 있는 설악산에서 자신의 형상을 뽐내고 싶었다. 그래서 울산바위는 울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설악산에서 그 장엄함을 뽐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 7) 울산바위와 동자승

설악산의 울산바위는 그 장엄함을 뽐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풍류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았다. 그런데 울산의 원님이 설악산에 놀러 왔다가 울산바위의 유래를 듣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울산바위를 둘러보니 정말 장엄하고 멋스러웠다. 이에 울산 원님은 마음이 아팠다. 울산에 이런 웅장한 바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찾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웅장한 그 형상으로 설악산에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슬슬 배가 아팠다. 그래서 설악산에 대한 시기심도 있고 해서 스님들을 골려주고 싶었다.



〈사진 21〉 흔들바위와 계조암

다음날 원님은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설악산 스님들을 괴롭힐 생각에 신흥사로 찾아가 주지승을 찾았다. 조선조는 배불승유정책으로 불교가 유교보다 비교적 천시 받던 시기여서 주지승은 원님의 행차에 예를 갖추었다. 그런데 원님이 다짜고짜

“나는 울산의 원님인데 울산의 장엄한 바위를 설악산에다 가져다 놓아 풍경이 더욱 아름답고 이로 인해 설악산과 사찰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 왜 울산에 세금 한 푼 내지 않느냐! 못된 놈들이구먼.”이라고 하였다.

그때는 스님들이 힘이 없을 때라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다. 원님은 다시

“내 너희들이 몇 해가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 내가 오늘은 직접 세를 받으러 왔으니 당장 준비하도록 하여라.”하고 호통을 쳤다.

스님들은 당시 사회가 불교를 배척하는 시기라 원님에게 기도 퍼지 못한 채 변명이나 말도 못 하고 세를 바치기로 했고 그다음 해부터 울산에서 세를 받아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절의 살림살이는 세금으로 어려워졌고 농사를 지어도 여기저기서 다 가져가니까 주지승은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울산에서 또 세를 받으러 올 텐데…”하고 땅이 꺼지라고 근심하니까 이것을 다 지켜본 동자승이

“스님, 무엇 때문에 요즈음 그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네가 알면 걱정만 될 것이다. 그러니 알려고 하지 마라.”

“스님, 그러시지 말고 제게 말을 해 주십시오. 혹 제가 문제를 해결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동자승이 자꾸 애원하니까 주지승은 동자승에게 울산바위의 세금 문제를 얘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스님, 뭐 그런 것을 두고 걱정하십니까? 그 문제를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세를 받으러 오면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주지승은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오는 날 주지승과 스님들은 절을 피하고 동자승만 남겨 놓았다.

고을 원님이 보낸 사람들이 세를 받으러 절로 들이닥쳤다. 주지승을 찾자 동자승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맞이하였다.

“울산 원님이 시켜 울산바위 세를 받으러 왔으니 빨리 주지승을 불러오너라.”

“바위 세를 받으러 오셨다고요? 우리는 바위 세를 낼 수 없습니다.”

“뭐야 당장 주지를 불러오지 않으면 혼을 내야겠다.”

“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사찰에서는 그동안 억울하게 세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올해부터는 세를 낼 수 없다고 원님께 전해주십시오.”

어린 동자승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풀어 갔다. 그러자 원님이 보낸 사람들은

“설악산에서 울산바위가 풍광을 아름답게 하였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무슨 말인가?”

“사실, 저 바위가 있어 우리 사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저 바위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거대한 바위가 사찰에 자리하고 있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라지도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부터는 그 바위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저희가 세를 받아야겠습니다. 울산바위를 가지고 가지든지, 세금을 내시든지 하십시오.”

원님의 사람들은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다. 세금은 고사하고 도리어 세를 주어야 할 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며 돌아갔다. 다음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너 말대로 울산바위를 가지고 갈 테니 옮겨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어야겠다. 네가 만약 가져가도록 준비하지 못한다면 울산바위를 우리에게 넘길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그대로 받아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동자승이 그들이 그렇게 나올 것을 알고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였다.

“요구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너희들이 울산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재로 새끼를 꼬아서 울산바위를 묶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가겠다.”라고 하였다.

동자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로 새끼를 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체류하는 곳을 일러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울산에서 온 원님의 사람들은 숙소로 돌아가면서 아무리 도를 터득한 자라도 재로 새끼를 풀 수는 없다면서 비아냥거렸다.

주지승이 절로 돌아와 몹시 궁금하여 동자승에게 물어보았다. 주지승은 동자승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지혜는 뛰어나지만 어떻게 재로 새끼를 만들어 울산바위를 땔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동자승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스님들과 고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새끼를 꼬기 시작하였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새끼를 꼬았고, 동자승이 시키는 대로 그 새끼를 울산바위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는 동자승이 시키는 대로 울산바위를 새끼로 묶고 그 새끼에 불을 붙이니 울산바위는 재로 꼬아 만든 새끼로 묶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울산에서 온 자들에게 연락하였다. 그들이 울산바위에 와 보니 재로 만든 새끼로 울산바위가 묶어져 있었다.

동자승이 그들을 보고

“이제 재로 끈 새끼로 울산바위를 묶어 났으니 가지고 가시지요.”

이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뒷걸음쳐 산을 내려가 울산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동자승의 지혜로 그 이후에 울산에서 사찰로 세금을 받으러 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울산바위에 가면 바위를 묶었던 흔적이 있다고 한다.

## 8) 권금성의 유래

설악산의 절경 중에 권금성은 일품이다. 이러한 권금성은 재미있는 전설을 갖고 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에 권씨 성의 장사와 김씨 성의 장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자 산세가 험한 곳으로 피란하였다. 그곳이 지금의 권금성 자리이다. 적이 오자 방어할 길이 없어 서로 의논하였다. 그래서 두 장사가 그곳에 성을 쌓기로 하였다.

“적병이 오기 전에 성을 쌓아야 할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에 성을 만들어야 화를 면할 것이요.”

하지만 성을 쌓는다는 것이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의논 끝에 돌을 날라 이곳에 쌓기로 하였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돌을 날라서 성을 쌓는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았다.

두 장사가 궁리 끝에

“이렇게 합시다. 돌을 날라서는 성을 쌓을 수 없으니 내가 강에 내려가 돌을 던질 테니 당신은 여기서 받아서 성을 쌓으시오, 그래야만 하룻밤에 성을 다 쌓을 수 있을 것이요.”

“좋습니다.”

그래서 권 장사가 강으로 내려가 돌을 주어서 던졌고 김 장사는 그 위에서 돌을 받아서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힘들면 서로 교대로 김 장사가 강으로 내려가 돌을 던지고 권 장사는 위에서 돌을 받아 성을 쌓았다.

이렇게 권 장사와 김 장사가 만든 성이라 하여 권금성(權金城)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9) 귀면암과 마고선

귀면암은 설악산 천불동계곡의 비선대와 양폭포(陽瀑布) 사이에 있는 커다란 바위이다. 명칭은 바위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의 얼굴을 닮은 데서 유래한 것으로, 금강산의 귀면암에서 따왔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천불동계곡의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겉문다지' 또는 '겉문당'이라 불렀다고 하며, 귀면암이라는 명칭은 나중에 붙여졌다고 한다. 설악동 소공원~와선대~비선대~귀면암~오련폭포~양폭포에 이르는 양폭 코스는 6.5km 거리에 약 2시간 50분이 소요된다.



〈사진 22〉 비선대

귀면암(鬼面岩)은 귀신 귀, 낮 면, 바위 암자, 그 천불동 중 허리 부분에 자리 잡은 데가 귀면암이다. 귀면암 밑에 와선대(臥仙臺)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 송림(松林)이 울창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래전 마고선(摩姑仙)이라는 선인이 많은 선인과 같이 그곳에 와서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며 산수의 경치와 아름다움을 누워서 감상하던 데라고 해서 그대로 누울 와, 신선 선, 집 대자, 와선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와선대로부터 한 300m 올라가면 마고선인이 하늘로 동천했다고 해서 날 비, 신선 선, 집 대자, 비선대(飛仙臺)가 있다. 비선대는 예전에 시인의 발걸음이 끊기는 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인이 들어와서, 시도 짓고 이름도 새기고 나갔다고 한다. 어느 시인은 그곳에 와서 맑고 구슬같이 흐르는 물에다 발을 담그고, 반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하늘을 찌를 듯한 장군봉을 바라보며 날개라도 있으면 하늘로 날아갈 기분이라고 했을 정도로 비선대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10) 도문의 유래

도문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신라 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렸다. 무상 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해서,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다고 하여 도문(道間)이라고 했다고 한다.



### 3. 속초의 전통(아동)놀이

#### 가.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설에서부터 보름까지 날리고 그 이후는 그만 두는데 연을 날려 보내지 않으면 귀신이 연에 붙는다고 하고 ‘고리백정’이라고 놀리기도 한다. 연은 한지에 대나무를 쪼개 붙여서 만드는데 ‘참연’이라고 하는 연은 장방형이므로 ‘방패연’, ‘통연’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이외에도 ‘가오리연’이라 하여 바다 생선인 가오리 모양처럼 만든 연도 날린다.

연은 대보름날 마지막으로 날려 ‘귀양보낸다’라고 하는데 참나무 껍질로 배를 만들어 여기에 연줄을 연결하여 바다에 띄우고 쭉을 달아 불을 붙여서 줄이 타서 끊어지게 만들어 액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서로 연줄 끊어 먹기를 하는데 줄에다가 ‘깁치떡인다’하여 사기그릇 깨진 가루를 묻혀서 상대방 줄을 끊는 내기도 하고, 회고로 높이 띄우기 내기도 한다. 바다 쪽으로 보통 날려 보내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 액땀하기 위해 자기의 생년월일을 적어 날려 보낸다.

속초에서는 문화원에서 주최하여 대보름날 연날리기 대회도 했는데 영랑동에 거주한 조춘식씨가 연에 대하여 조예가 깊어 연날리기 대회를 재현하게 되었다고 한다.

#### 나. 윷놀이

정초의 놀이로 대표적인 안방 놀이가 윷놀이이다. 이 놀이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데 보통 박달나무나 참나무로 윷을 만들어서 논다. 윷놀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놀아야 재미도 나고 흥도 돋우는 노랫가락이 나온다. 윷놀이로 윷점을 치기도 하는데 요즘 속초지방에서는 별로 윷점 치는 예가 드물고 동네 노인정이나 친척끼리 모여 술 내기도 하고 이긴 사람들이 진 쪽의 사람에게 각종 벌칙을 주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윷은 사목으로 녀동내기와 말 잡아먹기 등의 방법이 있으며 도, 개, 걸, 윷, 모의 말판을 사용한다. 윷놀이는 전국적인 민속놀이라 해도 무방하다. 속초에서는 토시 속에 윷을 넣고 흔들어서 윷놀이를 하기도 한다.

## 다. 자치기

자치기는 남자 아동들의 놀이로 속초에서는 ‘대포치기’라고도 부른다. 50~60cm 정도의 나무를 엇비슷하게 양쪽 끝부분을 잘라 이 끝부분을 막대기로 내려치면 튀어 오를 때 긴 막대로 쳐서 멀리 보내는 놀이다. 짧은 막대는 메뚜기처럼 튀어 오른다고 하여 ‘메뚜기’라 부른다.

이렇게 멀리 보낸 메뚜기를 둥근 원안에 던져 원안에 들어가면 끝이 나서 서로 입장을 바꾸게 되고 금에 닿으면 한 번 막대로 다시 쳐서 보내고 금밖에 떨어지면 세 번 친다. 이렇게 쳐낸 메뚜기와 원과의 거리를 눈으로 측량하여 친 사람이 거리를 부른다. 예를 들어 10자라고 했을 때 재어서 10자가 되면 계산에 넣게 되나 미만이면 계산도 안 되고 서로 동작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계속 점수를 가산하여 처음 정해 놓은 500자나 1,000자를 먼저 얻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놀이다.

## 라. 비사치기

비사치기는 ‘돌치기’, ‘비석차기’라고도 하는데 두 명이 하거나 여러 명이 편을 갈라서 하기도 한다. 보통 10m 정도 양쪽에 줄을 긋고 두 편이 줄 밖으로 갈라서며 중간지점에 손바닥만 한 얇은 돌을 세운다. 양쪽에서 한 명씩 나서서 돌을 던져 세운 돌을 먼저 쓰러뜨리면 이기게 된다. 던지는 돌을 ‘말’이라고 하는데 던지는 방법도 다양하여 처음에는 선 채로 던지나 차츰 발등이나 무릎 사이에 끼워서 “일만만 이백천 삼시문”하고 외치면서 돌을 차서 세운 돌을 넘기기도 한다. 또 머리카락 어깨 위에 말을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떨어뜨려 넘기거나 목덜미에 엮고 뒷걸음질 쳐서 나가기도 하고 겨드랑이, 배 위에 끼우거나 올려놓게 하여 다가가기도 하고 고개를 옆으로 젖히고 뺨에 실어서 가기도 한다. 말을 머리 위에 얹은 채로 가는 것을 ‘떡장수’라고 하며 재미있게 논다.

## 마. 땅뺨기

남녀 아동들이 모두 노는데 직경 1m 정도의 원을 그리고 그 원을 여러 개의 반월형으로 획을 그어 놓고 토기나 깨진 유리, 사기그릇을 손톱으로 튕겨 구획한 금에 닿아도 안 되고 바로 연결한 구획이 아닌 다른 구획으로 가도 아니 된다. 이렇게 튕겨서 쳐놓은 구획 속으로 말이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서로 딴 땅은 금을 지워서 통합하고 더 이상 땅이 없게 되면 자기 말로 상대방 말을 맞추면 경계선으로부터 한 뼘, 두 뼘씩 상대방 땅을 점령하여 다 차지하면 이기는 놀이다. 이것을 ‘전투 싸움’이라고도 한다.

## 바. 풀각시놀이

여자아이들의 놀이 중 공기놀이와 함께 가장 많이 노는 것으로 봄철에 만물고지, 술고지, 난초 잎을 잘라다 나뭇잎을 삶듯 하여 후줄근해지면 수수깥이나 나무에 매어 여자아이 머리 땀듯이 땀고 비녀를 찌르기도 하고 여자 모양을 만들어 인형 놀이를 한다. 속초 주민들 말에 따르면 흥년든다고 못 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알 수 없다. 문헌에는 초각시희(草閣氏戲)라 하였다.

## 사. 짱치기

짱치기는 농한기에 나무하러 다니던 청소년들이 나무하고 돌아오던 중에 논밭이나 들판 얼음판 위에서도 편을 갈라 놀았다.

짱치기는 ‘짱방울’이라 하여 주먹만 하게 소나무 옹이로 공을 만들고 끝이 고부라진 나무로 1m 정도의 긴 ‘짱채’를 만들어서 상대방 문에 넣는다. 짱채가 특별히 없으면 지게 작대기를 이용하기도 하며 이 놀이에서 진 편이 이긴 편이 나무를 해주기도 한다.

중앙동의 짱치기나 대포 밧독재의 패짱이 유명했다고 하는데, 속초에서 짱치기가 행해진 것은 1920~30년대까지이며 일본 강점기에는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짱치기 터는 중앙동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렁골로 들어가는 곳까지로 지금은 미시령으로 통하는 교차로이나 그 당시의 지형은 양쪽에 낮은 산이고 가운데 오목하게 골이 쳐 있었기 때문에 짱이 옆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므로 짱치기에는 안성맞춤의 장소였다고 한다. 골대는 한 평 크기로 세워 놓았는데 놀이의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짱치기에 능한 장정이 심판을 맡고 양쪽에 10명 정도씩 동·서군으로 편을 가른 다음 짱터 한가운데에 넣는 숫자를 미리 정하여 먼저 득점하면 이긴다. 이 경기의 유래는 머슴들이 산에서 나무를 한 다음 그 나무를 내기로 하여 이루어졌다고도 하는데 이긴 편이 진 편이 나뭇짐을 받기도 하고, 아침에 하는 경우는 그날 나무 한 짐씩 해주는 것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속초지방의 짱치기는 매우 성행했던 것으로 옛 노인들의 추억에는 나무짱에 맞아 실명되기도 할 정도로 흥미로웠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놀이였다고 한다. 오늘날 필드하키와 같은 민속놀이로서 짱치기는 지속적으로 계승시킬 수 있는 단체경기 놀이라 하겠다.

## 4. 속초 8경<sup>5)</sup>

속초 8경은 속초시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곳을 선정,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다. 따라서 속초시민은 물론 속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러 속초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제1경 영금정 등대 전망대】

‘영금정 속초등대전망대’로 많이 알려진 곳이다. 영금정은 돌로 된 산으로 파도가 쳐서 부딪치면 신묘한 소리가 들렸다. 그 음률의 곡조가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유래가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속초항 개발을 위해 이곳 돌산을 깨서 항구를 조성함으로써 지금의 넓은 암반으로 변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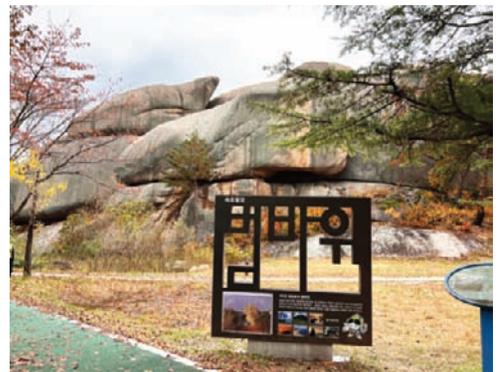
주변 ‘영금정 해맞이 정자’에서 보는 일출과 등대 전망대에서 보는 시가지 경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금강산 자락을 조망할 수 있어 자연의 조화로우움을 더해 준다.



〈사진 22〉 영금정 등대 전망대

### 【제2경 영랑호 범바위】

영랑호는 둘레 7.7km, 넓이 119만여㎡(36만 평)의 거대한 자연 호수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신라(新羅) 화랑인 영랑(永郎) 등이 금강산(金剛山) 수련 후 귀향길에 영랑호에 이르러 거울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붉게 물든 저녁노을 그리고 웅장하게 드러난 설악산 울산바위, 웅크리고 앉은 범의 형상을 한 범바위가 잠겨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호수의 명칭을 영랑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진 23〉 영랑호 범바위

5) ‘속초 8경’은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II』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제3경 청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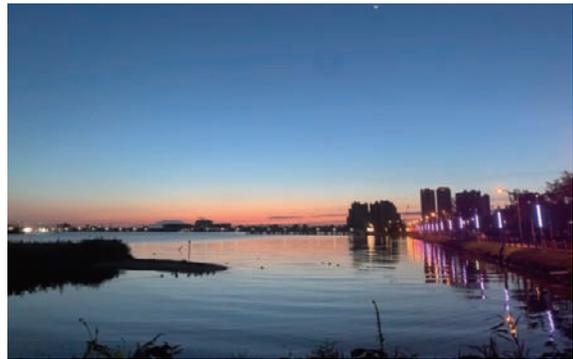
청대산은 해발 230m로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청대산 정상은 속초 시가지와 동해 일출뿐만 아니라 대청봉, 달마봉, 울산바위 등 설악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천연전망대이다.



〈사진 24〉 청대산 전경

### 【제4경 청초호】

속초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청초호는 넓이 1.3km<sup>2</sup>, 둘레 5km의 술 단지 모양을 한 커다란 자연 석호이다. 과거에는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 속사호(束沙湖)라고도 하였다. 1999년 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를 상징하는 73.4m 전망대에서 본 청초호변 야경과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동해 일출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사진 25〉 해 뜰 무렵 청초호

### 【제5경 속초 해수욕장 조도】

조도는 새들이 많이 찾는 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일출과 조도의 조화가 아름답다. 이와 연계한 속초해수욕장은 사계절 관광지로 넓은 백사장, 해돋이 전망, 산책로 등 인기가 높으며, 다채로운 행사도 많이 열린다.



〈사진 26〉 조도와 일출

## 【제6경 대포 외옹치】

설악산 기슭의 청정 바닷가에 자리 잡은 대포(大浦)는 6·25 사변을 전후로 발행된 지도에 동해안(東海岸) 표기로는 부산, 포항, 묵호, 대포, 장전, 원산항 순서로 표시될 정도로 큰 포구(浦口)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광어, 넙치, 방어 등 고급생선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외옹치는 장독처럼 생긴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밧독재라 불리며 정상에서 본 시가지와 등대 및 조도(鳥島) 그리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景觀)이 아름답다.



〈사진 27〉 외옹치 바다향기로

## 【제7경 내물치 설악해맞이공원】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宋時烈)선생이 함경도 덕원에서 거제도 로 유배되어 동해안을 따라 이곳을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때마침 폭우로 물이 불어 며칠 더 체류하다 떠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 하여 물치(勿淄)라 불렀다고 한다. 주변에 탁 트인 맑고 깨끗한 동해와 조각공원 그리고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일출의 조화로움은 이곳만이 연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이다.



〈사진 28〉 설악 해맞이 공원

## 【제8경 학무정】

설악산 대청봉에서 물줄기가 처음 생겨서 흐르는 쌍천변 소나무 속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 고종 9년(1872)에 상도문 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 연구와 인재 육성에만 전념하신 매곡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다.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육모정이라 부르며 남쪽에는 학무정(鶴舞亭), 북쪽에는 영모재(永慕齋), 북동쪽에는 인지당(仁智堂), 남서쪽에는 경의재(敬義齋)라고 쓰여 있다. 울창한 송림 속의 고요함과 아늑함이 주변 전통 한옥마을의 멋을 더해 준다.



〈사진 29〉 학무정

1

바로 쓰는 수업자료(교사용) 청초호 탐조 활동

주제	속초 8경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I	장소	청초호
학습목표	▷ 속초의 자연 호수인 석호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속초를 대표하는 석호에 찾아오는 새들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형태	모둠활동 개별활동
준비물	▷ 카메라(휴대전화기), 망원경, 조류도감, 필기도구	소요시간	120분

▷ 교사용 도움 자료

석호	<p>▶ 석호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곳에서 바다의 파도가 만의 입구를 막고, 이곳에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채워져 만들어진 호수이다. 하천으로부터 물이 다량 유입되거나 파도가 세면 백사장으로 막힌 입구가 터져 바닷물이 호수로 유입되기도 하고 어업활동을 위해 항시 입구가 개방되어 바닷물과 민물이 혼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석호는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퇴적물이 쌓이면 호수의 면적이 줄어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청초천 모래톱&gt;</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새들이 쉬어 가는 청초호&gt;</p> </div> </div>
철새	<p>▶ 계절에 따라 규칙적으로 번식지를 떠나 월동지에서 월동 후 다시 번식지로 돌아오는 이동을 하는 새들을 철새라고 한다. 석호인 영랑호와 청초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혼합된 특성상 바닷물보다는 덜 짜고, 민물보다는 더 짜다. 이런 이유로 먹잇감이 풍부하여 철새들이 찾아오는 보금자리의 역할을 한다. 특히 영랑호와 청초호는 시베리아 캄차카반도에서 지구의 반대편(남반구)까지 계절에 따라 오는 철새들의 ‘중간쉼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p>

<p><b>유의점</b></p>	<p>▶ 철새를 관찰할 때 지켜야 할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려한 색의 옷은 피한다. (계절에 따라 녹색, 또는 갈색)</li> <li>- 대화는 작은 소리로 하며, 이동 시에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li> <li>- 철새 서식지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li> <li>- 2인 또는 3인 정도의 작은 규모로 모듬을 만들어 이동한다.</li> <li>- 철새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체험학습 후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li> <li>- 철새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며, 동지를 발견하더라도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li> <li>- 사진을 찍을 때는 줌(ZOOM) 기능을 이용하여 멀리서 찍는다.</li> <li>- 풀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독충에 유의하고, 호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li> </ul>
<p><b>관찰지</b></p>	<p>▶ 철새 관찰 장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초호 정자 탐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조용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li> <li>- 겨울에는 대형 겨울 철새들이 많이 찾아온다.</li> </ul> </li> <li>② 엑스포타워 전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li> <li>- 높은 곳에서 청초호 철새 서식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li> </ul> </li> <li>③ 호수공원 탐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li> <li>- 갈대숲과 모래톱에서 쉬고 있는 왜가리, 가마우지와 같은 새를 관찰할 수 있다.</li> </ul> </li> <li>④ 엑스포 1교 및 청초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모래톱에서 쉬고 있는 원앙, 물떼새, 할미새,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등을 관측할 수 있다.</li> </ul> </li> </ol>
<p><b>영랑호 조류 사진</b></p>	

천연  
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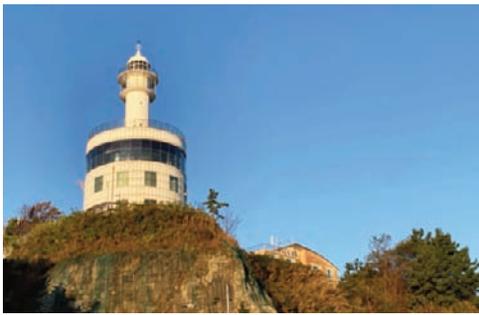
▶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한 동물·식물·지질·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을 일컫는다.  
청초호와 영랑호를 찾는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을 미리 학습하고 체험학습에 임한다.

천연기념물	이름	특징
6) 	큰고니 Whooper Swan (Cygnus cygnus)	큰고니는 몸길이 152cm 정도로 암수 동일하며 몸은 흰색이고 어린 새는 검은빛을 띤 회색이다. 부리 끝이 구부러져 있어 고니와 구별이 가능하다. 헤엄칠 때는 흑고니와 달리 목을 세운다. 호수와 늪, 하천, 해안 등에서 큰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암수와 새끼들의 가족군으로 구성된다. 물에서 나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 육지 식물의 열매, 물속에 사는 작은 곤충 등을 먹는다.
7) 	개리 Swan Goose (Anser cygnoides)	개리는 비교적 드문 겨울새로 암수의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몸길이는 약 81~94cm이다. 목이 긴 것이 특징이며, 눈앞과 머리 위에서 뒷목까지는 암갈색이고, 등과 날개는 흑갈색으로 흰 줄무늬가 있다. 가슴은 회갈색, 옆 목과 아랫배는 흰색이다. 호수와 늪, 논, 초습지, 해안, 간척지 등에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먹이는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 벼, 보리, 밀, 조개류 등이다.
8) 	원앙(鴛鴦) Cobitis choii	원앙의 몸길이는 보통 43cm 정도이다. 수컷이 매우 아름다운데, 눈 둘레는 흰색, 뒷머리 깃과 위 가슴은 밤색, 등은 청록색을 띠고, 가슴에 2개의 세로줄 무늬가 있다. 또 노란 옆구리와 위로 올라간 선명한 오렌지색의 부채형 날개깃을 가지고 있다. 암컷은 몸 전체가 갈색을 띤 회색이며, 흰 점무늬가 있다. 배는 흰색을 띤다.

6) ‘큰고니 사진 및 설명’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7) ‘개리 사진 및 설명’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8) ‘원앙 사진 및 설명’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제	속초 8경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II	장소	속초등대전망대
학습목표	▷ 영금정의 이름 유래에 대해 알 수 있다. ▷ 등대의 역할을 학습하고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활동형태	모둠활동 개별활동
준비물	▷ 카메라(휴대전화기), 필기도구	소요시간	120분

## ▷ 교사용 도움 자료

속초 등대	<p>▶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동쪽 해안가 바위산 정상에 위치한 속초항로표지관리소는 1957년 6월 8일에 등대가 처음 점등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속초항은 예부터 양양군의 문호로 알려져 있었으며, 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부존하고 있어 어민의 이주가 점차 증가하면서 어항으로 형성되었다. 1905년 동해 연안항로가 개설되자 기항지로서 기선(汽船)이 입출항 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말부터 본격적인 항만 축조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56년 1월 17일 무인 등대로서 속초항 등대가 최초로 설치되었고, 1957년 현재의 속초항 등대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속초항 등대는 폐지되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속초 등대 사진&gt;</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속초 등대에서 본 동명항&gt;</p> </div> </div>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 팔미도 등대	<p>▶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는 1894년 공무아문이 설치되고, 1902년 5월 소월미도, 북장자서, 백암등표와 함께 건축에 착수하여 1903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일 국내 최초로 점등되었다.</p> <p>팔미도 등대는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주요 요충지였다 연합군의 팔미도 등대 탈환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서울 수복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현재 불을 비추는 등대는 2003년 12월 세워진 등대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 팔미도 등대<sup>9)</sup> 및 돌담〉</p>
<p style="text-align: center;"><b>항로표지</b></p>	<p>▶ 항로표지: 빛,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에 의하여 항, 만, 해협, 기타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①광파표지: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항로표지</p> <p>②음파표지: 안개나 비, 눈으로 시계가 불량할 때 음향을 발하여 그 위치를 알려주는 항로표지</p> <p>③전파표지: 전파의 직진성, 등속성, 반사성 등을 이용하여 송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선박에 설치한 수신기로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의 항로표지</p> <p>④형상표지: 주간에 형상, 색채를 이용하여 위치를 표시해 주는 항로표지</p> <p>⑤특수신호표지: 조류, 선박 통행, 기상 등을 전파나 형상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항로표지</p>
<p style="text-align: center;"><b>속초등대 사진 모음</b></p>	

9) '팔미도 등대 사진 및 설명'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 참 고 문 헌

### 【기본사료】

- 『관동읍지(關東邑誌)』  
『면세일반(面稅一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현산지(峴山誌)』

### 【단행본】

- 김병기 외, 『과학문화탐방(설악권)』, 강원도교육청, 2011.  
김정환 외, 『속초의 근현대사』, 속초문화원, 2004.  
\_\_\_\_\_, 『중등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 안내서』, 속초문화원, 2021.  
김정환·박명선·손병섭·정종천·최현식 공저,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 II』, 속초문화원, 2007.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속초 도시변천사 I』, 속초문화원, 2020.  
\_\_\_\_\_, 『속초 도시변천사 II』, 속초문화원, 2021.  
속초문화관광재단,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도시기록사업 사진집 2020』, 2021.  
속초문화원·속초시,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속초문화원, 2013.  
속초시, 『2020년 속초 통계 연보』, 2020.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상)』, 속초문화원, 2006.  
손병섭 외,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속초문화원, 2000.  
\_\_\_\_\_, 『속초의 옛 땅이름』, 속초문화원, 2002.  
장정룡·양언석 공저, 『속초지역 구전설화』, 속초문화원, 1999.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 【웹사이트】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https://www.heritage.go.kr/>)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sokchomuse.go.kr/>)  
속초시청 홈페이지 (<http://www.sokcho.go.kr/>)



# Ⅱ . 속초의 지리와 동·식물 이야기





# 1. 속초의 자연환경

## 가. 위치와 면적

강원도 속초시는 강원도 동북지역 동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동경 128° 25' ~ 37', 북위 38° 07' ~ 13'에 위치한다. 속초시의 주변 지역은 남쪽으로 양양군, 북쪽으로는 고성군이 있으며, 서쪽으로 설악산맥을 경계로 인제군을 접하고 있다. 또한 속초시는 휴전선과 6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안에서 고성군과 함께 최북부 항구 도시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관광 도시이다.

속초는 동서 길이가 약 19km, 남북 길이가 9km로 면적으로는 105.76km<sup>2</sup>이다. 이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0.6%이며, 서울의 약 6분의1 크기이나, 속초시의 면적 중 53.2%는 설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다.

〈표 1〉 속초시의 지리적 위치

구분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번	극점	지명	
동단	청호동 1340	동경 128° 27'	조도	동서간 19Km
서단	설악동 산41	동경 128° 25'	저항령 남쪽	
남단	설악동 산41	북위 38° 07'	대청봉	남북간 9Km
북단	장사동 478	북위 38° 13'	장사동 북쪽해안	



〈그림1〉 속초 지역도  
출처 : 『속초시사(상)』

## 나. 속초의 지형

속초의 지형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화강암지형,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안지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속초의 설악산맥

속초를 지나는 설악산맥은 태백산맥의 일부로서 태백산맥 북부에 위치하여 있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은 해발 1,708m로 금강산(해발 1,638m)보다 70m가 더 높다. 태백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다. 대청봉의 동쪽으로는 화채봉, 금강굴, 울산바위, 달마봉이 있고, 산맥이 2개의 맥으로 갈라져, 하나는 주봉산, 청대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을 이루며 속초시의 중앙부를 지나 동해바다로 들어가게 되며, 다른 하나의 맥은 북쪽으로 뻗어 영금정을 이루고, 그 나머지가 해저로 들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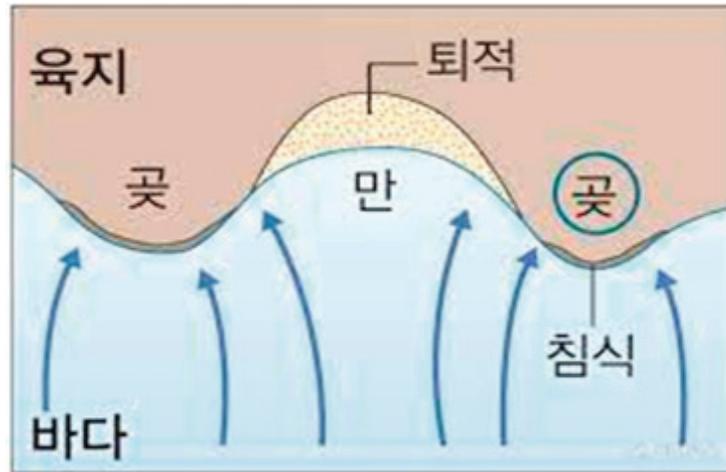
〈사진 1〉 설악산 대청봉  
출처: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사진 2〉 설악산 중청봉  
출처: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 2) 속초의 해안 지형

해안이란 육지와 바다가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좁고 긴 지대를 의미한다. 동해안은 한반도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에 인접하여 평행하게 발달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완만한 융기가 지속되었다. 또한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소하천들의 하곡이 침수되어 곶(串)과 만(灣)이 반복되는 톱니 형태의 해안선이 형성되었으나, 해수면 안정 이후 곶(串)은 파랑에 의해 침식되어 만(灣)은 하천 운반물질에 의해 퇴적되면서 현재와 같은 단순한 해안선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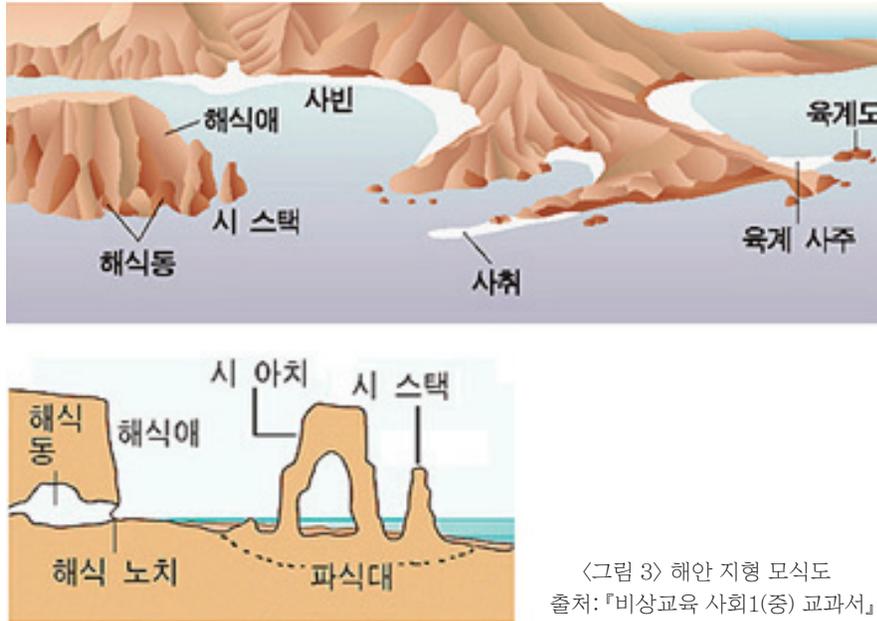
〈그림 2〉 갯과 만  
출처: 『비상교육 사회1(중) 교과서』

수심이 깊고 단조로운 해안선의 특성상 조류의 작용은 거의 받지 않으며, 파랑<sup>1)</sup>과 연안류<sup>2)</sup>의 작용에 의한 해안지형이 주로 발달한다. 그중 속초에는 주로 암석해안과 사빈해안이 분포하며 장사동 갯바위, 영금정 부근 암석해안에서는 소규모의 해식애<sup>3)</sup>, 해식동<sup>4)</sup>, 파식대<sup>5)</sup>와 같은 해안 침식지형도 관찰이 가능하며, 사빈해안에서는 퇴적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사진 3〉 장사동 갯바위 소규모 해식동과 해식애  
출처: 『속초 도시변천사 I』

- 1)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 2)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 3)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 작용에 의해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
- 4) 대부분 해안선 가까이에서 파도, 조류, 연안류등의 작용을 받아 해안에 형성된 동굴
- 5) 암석해안에서 육지의 기반암이 파식을 받아 후퇴할 때, 해식애 밑에 형성되는 평평한 침식면



〈그림 3〉 해안 지형 모식도  
출처: 『비상교육 사회1(중) 교과서』

#### 가) 해변(beach)<sup>6)</sup>

강원도 동해안은 대체로 강릉을 경계로 하여 북부와 남부가 지질구조와 지형상 많은 차이가 있다. 화강편마암과 고생대층으로 이루어진 남부는 암석해안이 많고, 화강암이 주를 이루는 북부는 사빈(모래해안)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중 속초의 해안은 외용치를 경계로 하여 북쪽 해안에서는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되어 있으며, 대포동 쌍천 하구 부근에는 쌍천에서 운반되어 온 비교적 큰 암괴와 자갈이 많은 해변이 형성되어 있다. 이 중 동해안에 가장 많은 해변의 형태는 사빈이며, 속초의 사빈 즉, 모래해안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모래는 주로 고성군 토성면을 흐르는 용천천과 양양군의 남대천에서 온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수욕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 나) 석호

동해안에는 사빈과 함께 다양한 석호가 분포한다. 석호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에 접한 골짜기나 낮은 지대가 침수되어 만(灣)으로 변하고 만의 전면에 연안류에 의해 퇴적된 사취 또는 사주가 발달하여 형성된 지형이다.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일반적으로 극히 작기 때문에 석호는 빨리 매립되지 않고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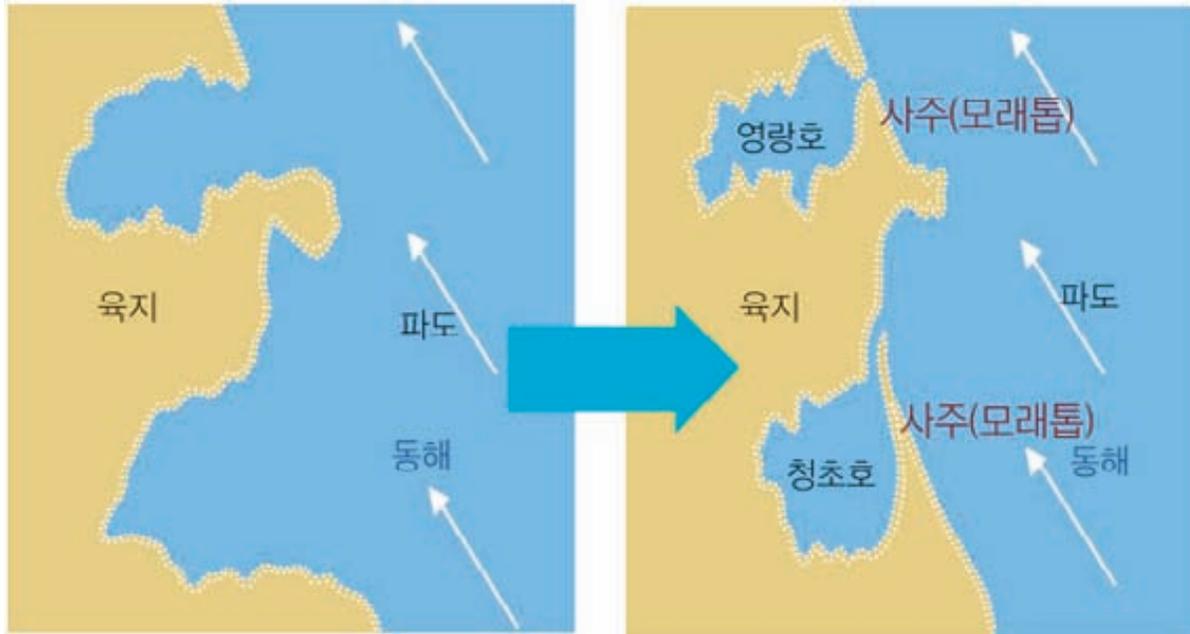
6)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발달한 사질(모래), 역질(자갈) 및 생물기원 퇴적물이 쌓인 지형, 주로 모래해안(사빈), 암석해안(역빈)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4〉 동해안의 석호 분포도  
출처: 『원주지방환경청』

동해안에는 강릉 경포호, 속초 청초호, 영랑호, 고성 화진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석호가 발달하였다. 석호는 주로 토사 운반량이 적은 작은 하천 하곡에 발달한다. 만약 토사 운반량이 많다면 하류에 토사 퇴적에 의한 충적지가 발달하여 처음부터 석호가 발달할 수 없다. 하지만 작은 하천이라도 꾸준히 토사를 운반하기 때문에 만약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동해안의 석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매립되어 충적지로 변하게 된다.

속초의 대표적 석호로는 청초호와 영랑호가 있다. 동해안의 석호는 대부분 사주에 의해 바다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석호의 수위가 높아지면 좁은 수로를 통해 바다로 유출이 된다. 또한 파랑이 거세지면 모래가 대량으로 운반되어 수로를 막고 파랑을 타고 바닷물이 대량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동해안의 석호는 염분 농도가 담수호에 비해 높고 해수보다는 낮은 특징을 보인다. 청초호의 경우에는 속초항을 중심으로 어업항, 상업항의 기능을 지녀 관리의 수월성을 위해 수로를 넓게 터놓아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비교적 높은 염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림 5〉 영랑호와 청초호의 형성 과정  
출처: 『원주지방환경정』

영랑호와 청초호는 지속적인 관광 개발과 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매립, 준설, 호안 공사가 이루어져 자연 석호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청초호는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부지 확보를 위한 매립이 이루어져 호수 둘레가 약 7km에서 4.276km로 줄었으며, 면적 역시 약 1/3 이상 축소되었다. 영랑호의 경우 1981년 호수공원이 개발되면서 영랑호 주변에 골프장, 광장, 음식점, 리조트, 별장형 콘도, 보트 선착장 등이 순차적으로 개장하였다. 하지만 장천천에서 유입되는 농약 및 비료 성분, 인근 주택 생활폐수의 유입 등으로 영랑호의 수질 오염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2019년 4월 4일 고성, 속초 산불로 인해 영랑호 탐방로 7.3km 중 86.3%에 해당하는 6.3km 구간의 갈대, 소나무, 갯버들, 생태 관찰 데크 3개소 소실, 산책로 주변 별장형 콘도 27동이 전소되었다.

속초시에서는 영랑호의 관광객 유입과 산불 피해를 입은 영랑호의 생태관광을 위해 40여억 원을 들여 생태탐방로인 ‘영랑호수윗길’을 2021년 11월에 개통하여 설악산과 영랑호,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였다.

동해안의 석호는 수심이 얇고, 해수의 영향을 받는 기수호<sup>7)</sup>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많다. 연중 비교적 안정된 수위로 인해 수변에는 습지가 발달할 수 있었으며, 습지에는 담수, 해양 생물 및 기수성 생

7) 바다와 연결되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는 호수

물 등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석호는 역사적, 지리학적, 생태학적 가치가 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환경보전의식이 고취되면서 보호, 보전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 영랑호와 청초호

- 영랑호



〈사진 4〉 영랑호  
출처: 『속초시청』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 면적 : 1,024,000㎡
- 평균수심 : 4m
- 둘레 : 7.7km
- 유입하천 : 장천천
- 염분 농도 : 3~5%
- 담수량 : 4,000천㎡

- 청초호



〈사진 5〉 청초호  
출처: 『속초시청』

- 위치(속초항 기준)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 면적 : 879,863㎡
- 평균수심 : 4m
- 둘레(청초호 해안선) : 4.276km
- 유입하천 : 청초천
- 최고 만조위 : 39.0cm
- 최저 간조위 : 0cm
- 염분 농도 : 약 32.5%(속초항 일대)

## 다. 속초의 기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고,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서 계절풍이 탁월한 한랭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하지만 속초에는 해발 800m~1,700m의 높은 산, 산악 기후의 특성, 설악산 급경사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사계절에 걸쳐 다양한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호우, 가뭄, 폭풍, 대설 등의 기상 악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동해안과 접한 속초는 길고 좁은 단조로운 형태를 이루고 있어 해양성 기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표 1〉 속초(해양성 기후), 인제(대륙성 기후) 비교 (1991~2020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속초	12.5	16.6	8.7	1407.2
인제	10.4	16.7	5.0	1204.6

출처: 『기상청』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속초의 기후 특성은 태백산맥 서쪽, 영서 지방에 속한 대륙성 기후 지역인 인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속초는 인제와 비교하여 연평균 기온이 온난한 모습을 보인다. 대륙보다 비열이 높은 해안에 닿아 있는 속초의 특성상 겨울철 상대적으로 온난한 바다의 영향으로 겨울철 최저기온이 높고 강수량 역시 인제보다 연평균 200mm 이상 많아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표 2〉 강원도 지역별 30년 기후 평년값(1991~2020)

	속초	강릉	태백	철원	대관령	춘천	원주	인제	홍천
평균기온(°C)	12.5	13.5	9.0	10.3	7.1	11.4	12.0	10.4	10.8
최고기온(°C)	16.6	17.8	14.6	16.4	12.2	17.4	17.8	16.7	17.7
최저기온(°C)	8.7	9.6	4.0	4.7	2.3	6.3	6.9	5.0	5.3
평균습도(%)	65.0	59.5	66.1	69.9	73.3	70.5	66.6	68.2	67.0
강수량합(mm)	1407.2	1444.9	1308.0	1354.4	1695.1	1341.5	1299.0	1204.6	1338.9
평균풍속(m/s)	2.3	2.6	1.6	1.7	3.8	1.2	1.1	1.8	1.1

출처: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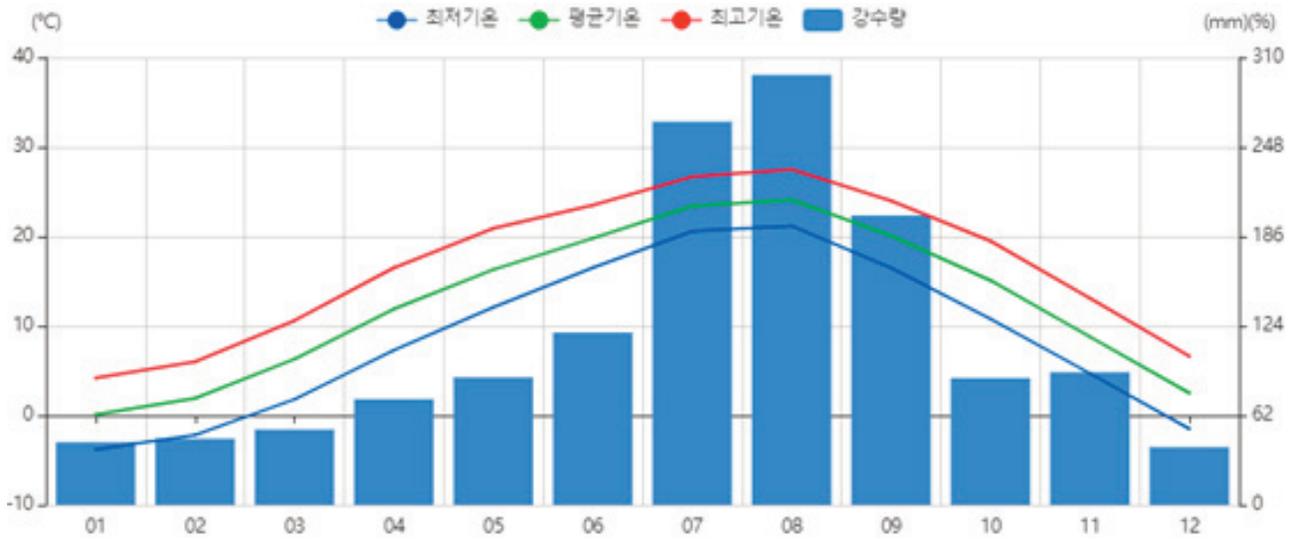
## 1) 기온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속초의 평균 기온은 12.5°C로 우리나라 평균 기온 10°C~15°C 인 것으로 보아 비교적 온난한 편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교차는 24.0°C, 최난월 8월의 평균 최고기온은 27.5°C이고, 최한월 1월의 평균 최저기온은 -3.8°C이다. 계절별로는 봄 11.5°C, 여름 22.4°C, 가을 14.7°C, 겨울 1.5°C로 겨울에도 평균기온이 영상권으로 나타난다. 이는 속초가 사계절에 걸쳐 동해상에서 유입되는 해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륙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적은 양의 열로도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반면, 해양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는데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륙은 여름에 쉽게 가열되고, 겨울에 쉽게 냉각되며, 해양은 여름에 천천히 가열되고, 겨울에 천천히 냉각된다. 또한 동해는 서해보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서해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겨울에는 높게 유지된다. 따라서 동해안은 서해안에 비해 기온이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속초의 기온은 여름철에 비교적 서늘하고, 겨울철에는 비교적 온난하며, 연교차가 작은 특징을 보이게 된다.

## 2) 강수

우리나라의 연중 지역별 강수량은 중부지역 1,200~1,500mm, 남부 1,000~1,800mm, 제주 1,500~1,900mm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속초 연강수량의 평균값은 1407.2mm로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강수량을 보인다. 계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연 강수량의 50~60%가 하계(6,7,8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속초 역시 하계 강수 집중이 되어 있으나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초가을 9월 강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별 합계 강수량은 8월이 298.0mm로 가장 많으며, 12월이 40.1mm로 가장 적은 모습을 보인다. 계절별 강수량은 봄 214.1mm, 여름 683.1mm, 가을 380.5mm, 겨울 128.2mm로 여름철 강수량이 전체 강수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속초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다설지이다. 겨울 중에서도 특히 2월에 눈이 많이 오는데 그 이유는 태백산맥이 속초가 있는 영동 지방을 향해 치우쳐 급경사를 이루고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형 특성과 2월을 전후하여 만주 지방의 대륙성 고기압, 오호츠크 고기압이 발달하는 기압배치 때문이다. 이러한 기압배치의 영향으로 고기압인 북동쪽에서 상대적 저기압인 남서쪽으로 부는 북동계절풍이 동해안을 지나면서 차고 습한 성질을 갖게 되고 이것이 태백산맥 급경사를 타고 상승하면서 대규모의 눈구름이 형성되어 폭설이 내리게 된다.



〈그림 6〉 속초 기후 월별평년값 (기간 : 1991 ~ 2020년)  
출처: 『기상청』

### 3) 바람

속초는 바다, 산맥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다. 연평균 풍속은 2.3m/s이며, 월별 평균풍속은 1월이 2.6m/s로 가장 빠르고, 8월이 1.8m/s로 가장 느리다. 계절별 평균 풍속은 봄이 2.7m/s로 가장 빠르고, 여름이 1.9m/s로 가장 느린 모습을 보인다.

속초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바람으로는 봄철(4~5월) 남부지방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을 때 산악효과에 의해 부는 강풍인 양간지풍, 북동풍이 높은 산을 넘으면서 나타나는 편현상 그리고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에 영향으로 나타나는 폭풍 현상이 있다.

〈표 3〉 해양성 기후 지역 (속초, 강릉)과 대륙성 기후 지역(인제, 홍천)의 풍속 차이 (1991~2020년)

지역	평균풍속(m/sec)
속초	2.3
강릉	2.6
인제	1.8
홍천	1.1

출처: 『기상청』

#### 4) 양간지풍

##### 가) 어원

양간지풍(襄杆之風)은 봄철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빠른 서풍으로 강원도 양양군과 강원도 고성군(간성) 사이에서 분다는 의미에서 양간지풍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른 말로는 양양군에서 강릉시 사이의 바람이라는 의미로 양강지풍(襄江之風)이라고도 한다. ‘양간지풍’이라는 용어는 1633년 이식의 『수성지』에서 ‘통고지설’(通高之雪)(통천과 고성에 눈이 많이 내림)과 함께 등장한다. 양강지풍은 1751년 조선 후기 실학자 이증환의 ‘택리지’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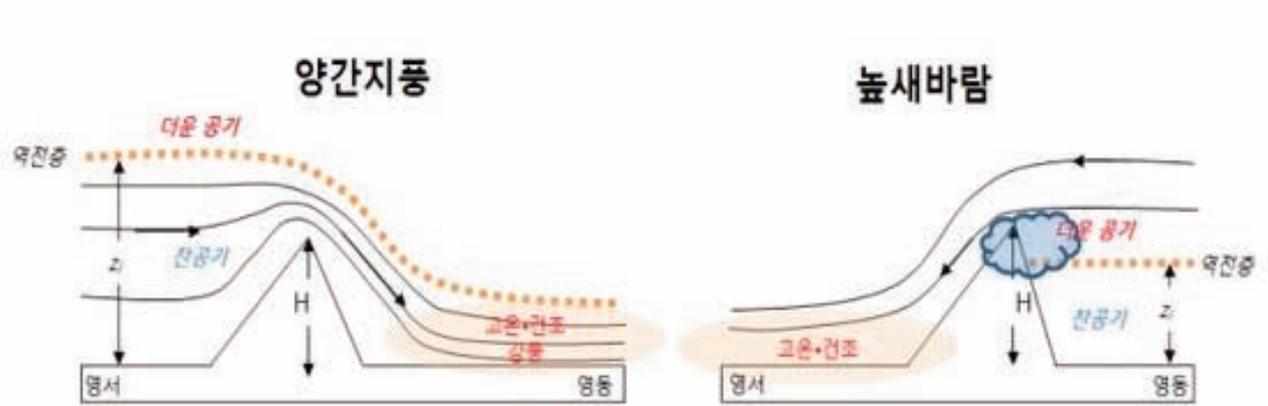
##### 나) 양간지풍 형성과정 및 영향

봄철 중국에서 한반도로 온난한 이동성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남고북저의 기압배치가 형성된다. 이때 강원도를 향해 온난한 서풍이 불게 되고 이 온난한 공기가 태백산맥 상공에 모여 역전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역전층을 통과하는 바람은 높은 태백산맥을 따라 상승하지만 상층에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태백산맥과 상층 따뜻한 공기에 의해 압축이 되면서 공기 흐름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영동지방으로 불게 된다. 이렇게 불어온 바람은 영동지방에 많은 소나무 숲의 송진과 솔방울을 만나 대형 산불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이것이 봄철 ‘불을 몰고 온다’며 화풍이라고도 불리는 고온건조한 빠른 바람, 양간지풍이다. 양간지풍은 영동지방에 동풍이 불 때 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수증기의 응결에 의해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한 바람을 일으키는 편현상 중 하나인 늑새바람과는 구별된다. 양간지풍은 상층에 역전층이 강할수록, 타고 내려가는 경사면의 경사가 클수록, 공기가 냉각되는 야간일수록 풍속이 강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1996년, 2000년 고성 산불,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2018년 고성 가진 산불,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20년 고성 도원리 산불 등 봄철 영동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양간지풍이 진화를 어렵게 하면서 대형 산불로 확산된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 당시 고성, 속초지역에서 관측된 최대순간풍속은 미시령 초속 35.6m/s, 양양공항 초속 29.5m/s, 설악산 초속 28.7m/s, 속초 설악동 초속 25.9m/s 이다. 이는 초속 25m/s ~ 33m/s ‘강’ 수준 태풍의 풍속이며 지붕,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는 풍속이다. 이 산불로 인해 고성군과 속초시 합산 피해 면적 산림 250ha(250만㎡)와 주택 125채, 창고 6채, 비닐하우스 5개 동이 불에 타고,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간지풍의 형성  
출처: 『중앙일보, 2019.04.05.일자』



양간지풍과 Nyessebaram 모식도  
출처: 『한경일보, 2012.02.2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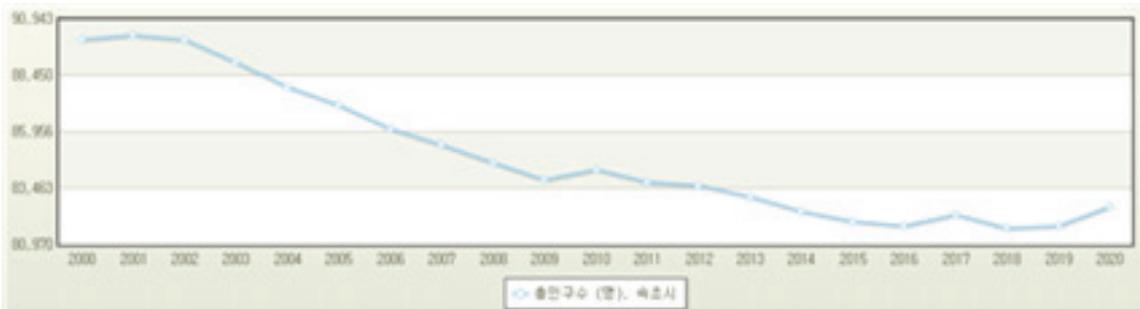
## 2. 속초의 인문환경

### 가. 인구

#### 1) 인구 변화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
1954년	속초리가 4구에서 6구로 분화 (속초항개발, 청호동의 피란민 정착으로 인한 도시 성장)
1962년	속초읍 총 인구 50,000명 돌파
1963년	속초시 승격, 인구 55,000명 돌파 (농업과 어업의 부흥)
1973년	인구 감소 시작
1980년 대	적극적 인구 유입 정책, 관광진흥정책으로 다시 인구 증가
2000년 대	인구 90,000명 돌파
~ 현재	인구 감소 추세 (22년 9월 기준 82,8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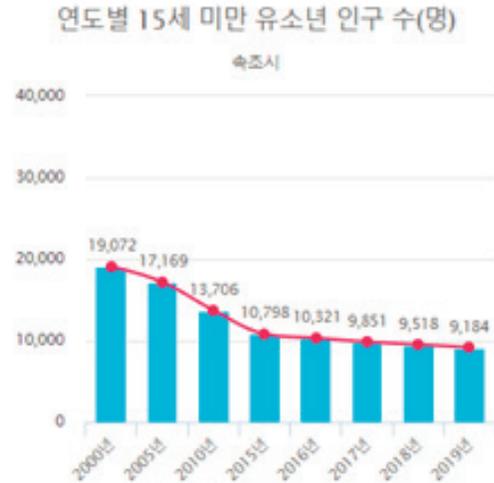
2022년 기준으로 속초는 하루 평균 전입 23.36명, 전출 24.95명, 출생 1.1명, 사망 1.68명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노령화 지수는 156.75%로 전국 평균 119.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7〉 속초시 총 인구수 변화 (2000~2020)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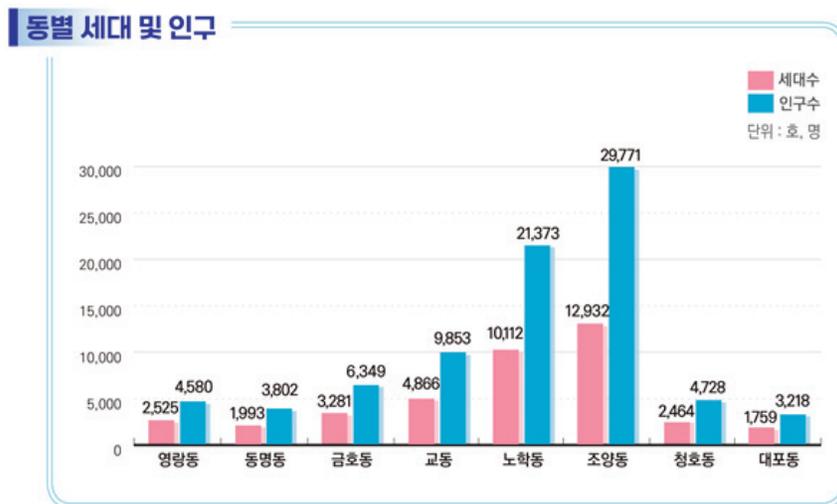
〈그림 8〉 속초시 고령 인구 수 (2000~2019)  
출처: 『통계청』



〈그림 9〉 속초시 유소년 인구 수 (2000~2019)  
출처: 『통계청』

## 2)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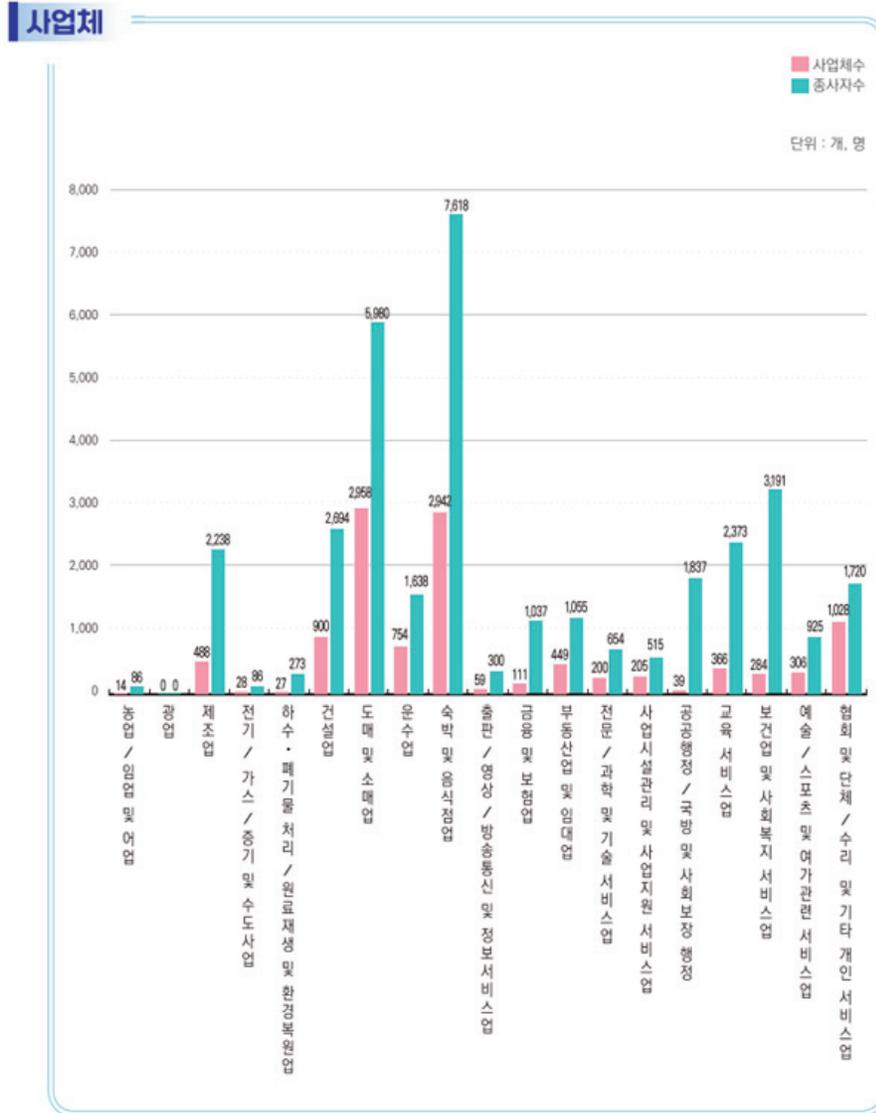
1965년 동제를 실시할 당시 인구는 60,316명으로 그중 50% 이상인 30,892명이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에 거주하였다. 이 지역들은 중앙시장 및 피난민촌이 형성되어 인구가 밀집되었던 반면 노학동과 조양동은 전통 농촌 지역으로 낮은 인구 밀도를 보였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인구 밀집 지역이 쇠퇴하고 노학동과 조양동에 인구가 밀집되기 시작하였다. 노학동은 1980년 동우대학의 설립으로 외지 청년층 유입이 활발하였으며, 조양동은 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활발하게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림 10〉 속초시 동별 세대수 및 인구 분포 (2020년말 기준)  
출처: 『2022년 속초 통계연보』

## 나. 산업

산업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산업은 자원을 채취하거나 생산하는 농업, 임업, 수산업을 포함하는 1차 산업, 자원을 가공하는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생산된 물자는 수송하고 판매하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 금융, 상업,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3차 산업으로 구분된다. 속초는 농업과 동해바다를 활용한 수산업, 수산물을 가공하는 수산물 제조업, 동해바다와 설악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업과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 구조가 나타난다.



〈그림 11〉 속초시 산업체 분포도 (2020년말 기준)  
출처: 『2022년 속초 통계연보』

### 1) 농업

농업은 인류 탄생 이래 가장 먼저 시작된 원시산업으로 산업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업이다. 속초의 산업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속초 농업의 역사는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발굴된 속초 대포

동 외옹치 유적에서 농사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어 주변 하천을 이용한 농업이 행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농업이 이루어진 것은 청동기시대로 속초 조양동 유적에서 발굴된 민무늬토기 등의 토기류, 반달돌갈, 돌도끼, 숫돌조각 등의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속초의 농업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농업기술이 개발, 발전, 보급되면서 1960년대 초까지 전체 산업 비중의 약 4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의 수산업 호황과 경공업 중심의 산업체계 변화, 새마을운동의 시작으로 급격한 변모를 보이게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관광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속초의 농경지는 많은 부분이 시가지, 도로포장, 공장, 관광리조트, 골프장 등이 들어서면서 전체 경지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및 도시와의 격차 증가로 인한 청년층의 이촌향도가 나타나면서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증가하였지만 휴경지가 증가하고 경지이용률이 축소되었다.

현재 속초에서 생산되는 식량 작물로는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옥수수, 콩, 팥, 고구마, 감자 등이 소량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과실류 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속초의 농업은 시 외곽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물은 중앙시장과 마트를 통하여 소비되고 있지만, 속초의 생산물로는 속초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인근 지역의 생산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입지로 인해 여러 지역의 농산품이 유입되고 있다.

<표 4> 속초의 농가 및 농가 인구 변화 (2015~2020)

연별	농 가 Farm households			농가인구 Farm population		
	전업 Full-time	겸업소계 Part-time	농가인구 Farm population	남	여	
				Male	Female	
2015	1,072	395	677	2,730	1,370	1,360
2016	1,049	325	724	2,829	1,451	1,378
2017	1,037	332	705	2,624	1,273	1,351
2018	1,015	327	688	2,549	1,274	1,275
2019	1,027	375	652	2,492	1,261	1,231
2020	1,027	402	625	2,461	1,232	1,229

출처: 『2022년 속초 통계연보』

## 2) 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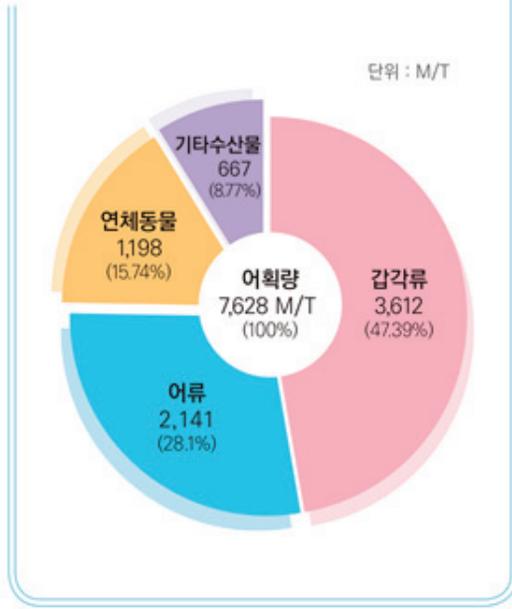
속초의 수산업은 주로 어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점차 양식업, 수산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으로 발달하고 있다. 속초의 수산업은 일제강점기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1910년대 말부터 어선의 동력화로 인해 근대적 대규모 어업이 발달하였으며, 1920년대 일제는 근대적 어항 건설에 주력하여 1921년 대포항, 1929년 외옹치항에 방파제를 갖춘 접안 부두를 건설하였고, 1937년 속초항 1기 공사를 완공하여 내항과 외항을 갖춘 현재 속초항의 모습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후 전쟁을 겪고 피란민들이 청호동과 속초항을 기점으로 정착하면서 속초의 수산업은 더욱 성장하였다. 1955년 속초의 어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9%로 농업 인구 20.7%를 능가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 속초항 제2 방파제, 1998년 장사항 방파제, 2008년 설악항 방파제가 준공되면서 속초는 6개 항구를 갖춘 수산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관광업의 급속한 발달로 속초의 대포항, 동명항, 속초항 등 속초의 대표 항구들은 어항으로의 역할보다는 관광항의 모습을 보이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라 속초의 어가와 어가 인구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5〉 속초의 어가 및 어가 인구 변화 (1995~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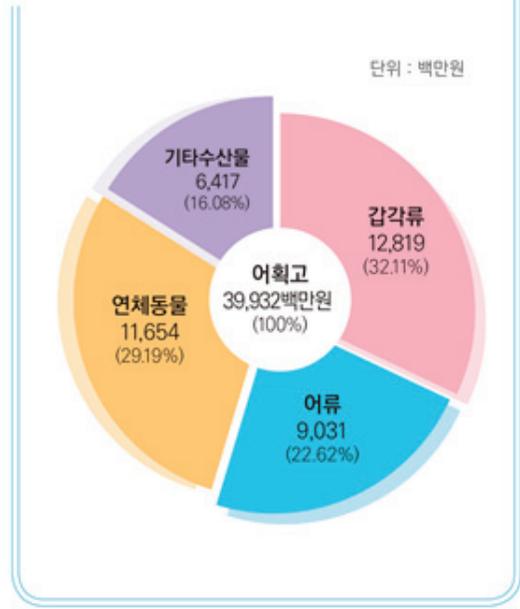
연별	어 가 Fishery households					어 가 인구 Fishery population			어업종사자 Fishery workers				
	전업 Full time	겸 업 Part time			호당인구 Person per household	남 Male	여 Female	호당종사자 Worker per household	남 Male	여 Female			
		소계	1종 class I	제2종 class II									
	단위 : 가구, 명	Unit : households, person											
1995	1,494	513	981	776	205	5,378	...	2,805	2,573	1,558	...	1,515	43
2000	933	614	319	202	117	3,145	3.37	1,660	1,485	998	...	940	58
2005	670	386	284	207	77	2,154	3.21	1,115	1,039	718	...	661	57
2010	479	219	260	175	85	1,362	2.84	726	636	579	0.32	481	98
2015	277	139	138	63	75	738	2.66	391	347	328	1.18	278	50
2020	196	96	100	37	63	492	2.51	262	230	240	1.22	201	39

출처: 『2022년 속초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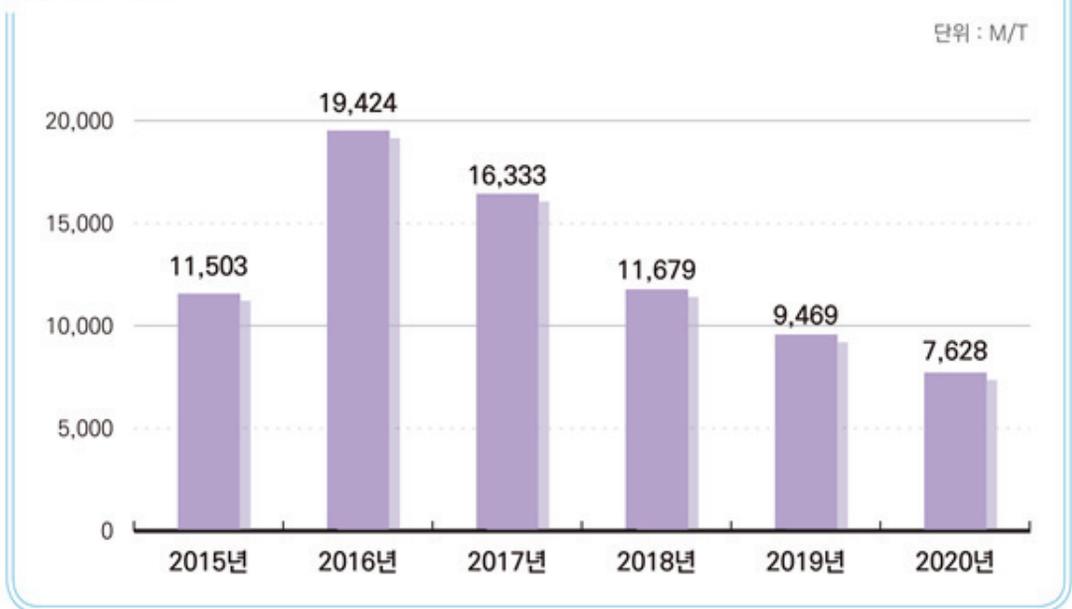
### 어획량



### 어획고



### 연도별 어획량



〈그림 12〉 속초시 수산물 현황 (2020년말 기준)  
출처: 『2022년 속초 통계연보』

### 3) 관광업

농업과 어업이 주종 산업으로 발전해오던 속초는 수산업의 퇴조, 국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추구 등 다목적으로 관광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동해바다, 설악산국립공원, 영랑호, 청초호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속초시가 관광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표 6〉 속초 관광 인프라 구축 연표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 지정
1980년대	명성콘도(현 한화리조트) 등 대형 콘도 건설
1986년	척산온천 휴양촌 개장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관련 교통망 정비
1998년	교동 먹거리 단지 영업 개시
1999년	속초 관광 엑스포 개최
2006년	미시령 터널 완공
2016년	동해고속도로 속초 연장 개통
2018년	양양국제공항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공항 지정
2021년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선 착공 확정

계절별로는 여름 동해바다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가을 설악산의 단풍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가 많고, 다음으로는 겨울 동해바다와 설악산의 설경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으며, 가장 적은 관광객이 찾는 계절은 봄철이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는 속초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아바이마을, 설악산 국립공원이며, 주로 속초 남부권의 방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속초의 동·식물

#### 가. 속초의 동물

##### 1) 영랑호와 청초호의 어류

영랑호에서 지금까지 출현한 어종은 11목 20과 35종이다. 그 중, 해수어가 11종, 기수어가 13종, 담수어가 11종이다. 그리고 어종별 비교풍부도를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출현한 어종은 황어이며 다음은 빙어, 흰발망둑, 피라미, 날망둑, 검정망둑, 전어, 가숭어, 문절망둑, 붕어 등의 순이다.

청초호에서 지금까지 출현한 어종은 모두 11목 28과 53종이다. 그 중, 해수어가 22종, 기수어가 21종, 담수어가 10종이다. 그리고 어종별 비교풍부도를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출현한 어종은 황어이며 다음은 문절망둑, 전어, 복섬, 잔가시고기, 흰발망둑, 송어, 게레치, 가숭어, 점농어, 학공치, 피라미, 날개망둑 등의 순이다.

<표 7> 영랑호와 청초호의 어류





날망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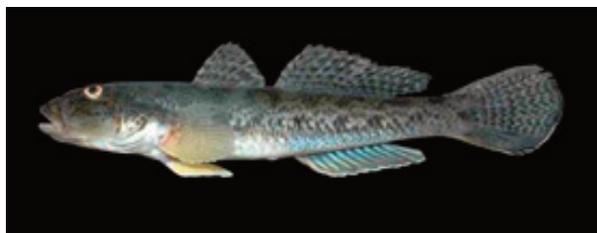
검정망둑



전어



가승어



문절망둑



붕어



복섬



잔가시고기



승어



황공치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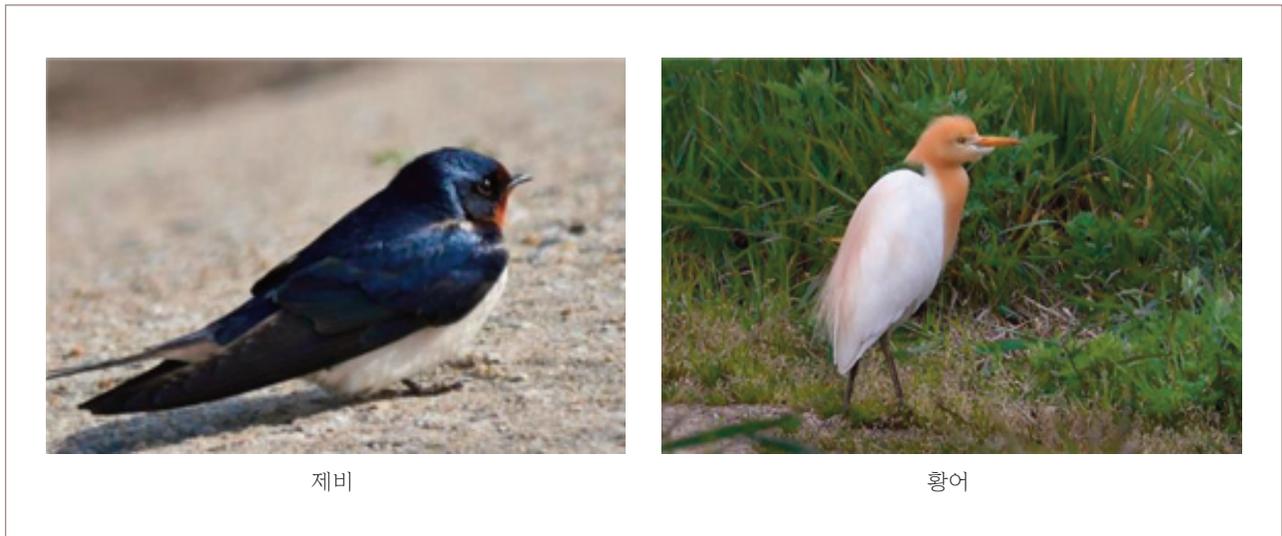
## 2) 속초의 조류

동해안 석호는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먹잇감이 풍부해서 다양한 철새들의 도래지이자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한다. 겨울을 동남아시아 등 따뜻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보내고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 찾아와 번식을 하고 여름이 지나면 다시 월동지로 이동하는 여름 철새(왜가리, 개개비, 제비, 황로 등), 여름 철새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고위도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늦가을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에 다시 번식지로 올라가는 겨울 철새(청둥오리, 넓적부리, 큰고니 등),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고위도 지역에서 번식하고, 저위도 지역에서 월동하는 철새로, 우리나라에는 번식지와 월동지를 이동하며 봄과 가을에 관찰되는 나그네새(장다리물떼새, 청다리도요 등)들이 계절에 따라 오가는 곳으로서 매우 귀중한 서식처라 할 수 있다.

또한 철새로 분류되더라도 그중 일부는 번식지나 월동지로 떠나지 않고 텃새화 하는 경우가 있다. 철새는 서식지의 기후와 먹이 변화에 반응하여 이동하는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기 때문이다.

속초 지역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총 46과 121속 227종이 된다. 그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조류는 I 급이 7종, II 급이 20종이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는 23종이 있다.

〈표 8〉 속초의 조류



제비

황어



넓적부리



큰고니



장다리물떼새



청다리도요



왜가리



중대백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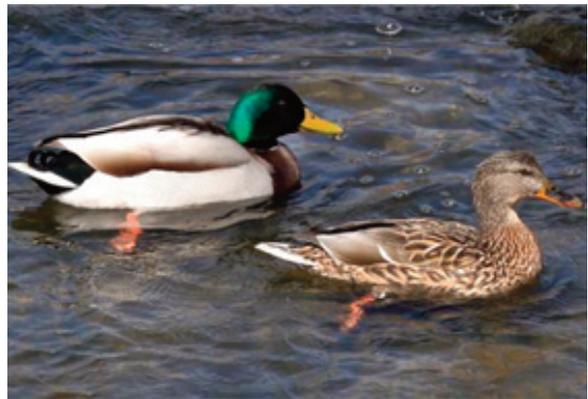
두루미



황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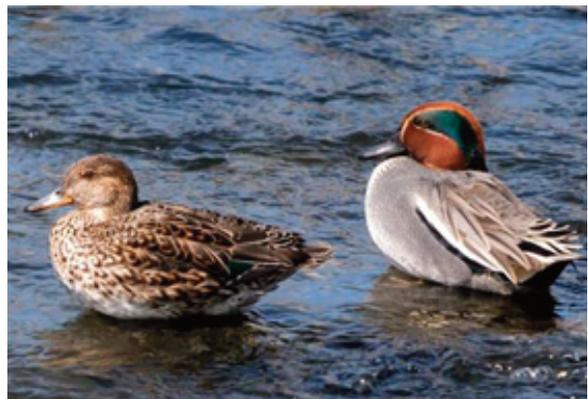
흑고니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갈매기



괭이갈매기



민물가마우지



물총새



아비



논병아리



알락오리



흰줄박이오리



참매



솔개



검은머리물떼새



민물도요



바다쇠오리



멧비둘기



삐꾸기



수리부엉이



후투티



오색딱다구리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나. 속초의 식물

### 1) 해안식물

해안은 모래해안과 암석해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모두 보수성이 부족하여 쉽게 건조되며,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고 염분을 많이 함유한 토양 환경을 갖는다. 또한 염분을 함유한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모래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등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식물을 염생식물이라 하는데 우리는 보통 해안식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식물은 부족한 수분과 무기염류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잎과 줄기에 비해 뿌리가 매우 발달하는 특징이 있어 뿌리의 양이 잎과 줄기의 양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보수력이 보다 나은 내륙으로 갈수록 잎과 줄기의 양의 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식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잎이 두텁고 좁으며, 털이 많은 특징이 있다.

속초 지방의 기후는 남한에서 최북단에 위치하지만 난류의 영향을 받아 영서 내륙 지방에 비하여 여름철 최고 온도는 낮으며, 겨울철에는 최저 온도가 높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므로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섬현삼은 지금까지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야생식물로서 처음으로 육지(속초)에서 분포가 밝혀진 해안식물이다.(2004, 국립환경연구원)

속초시의 해안에 자라고 있는 해안식물 중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은 다음과 같다.

<표 9> 속초의 해안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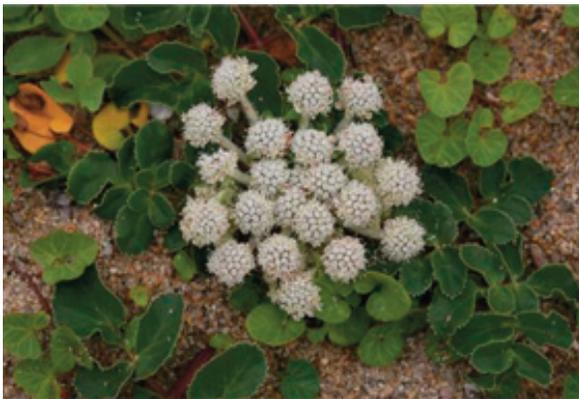




해당화



갯안두



갯방풍



갯메꽃



참꿀무꽃



털질경이



모래지치



섬현삼



갯씀바귀



해국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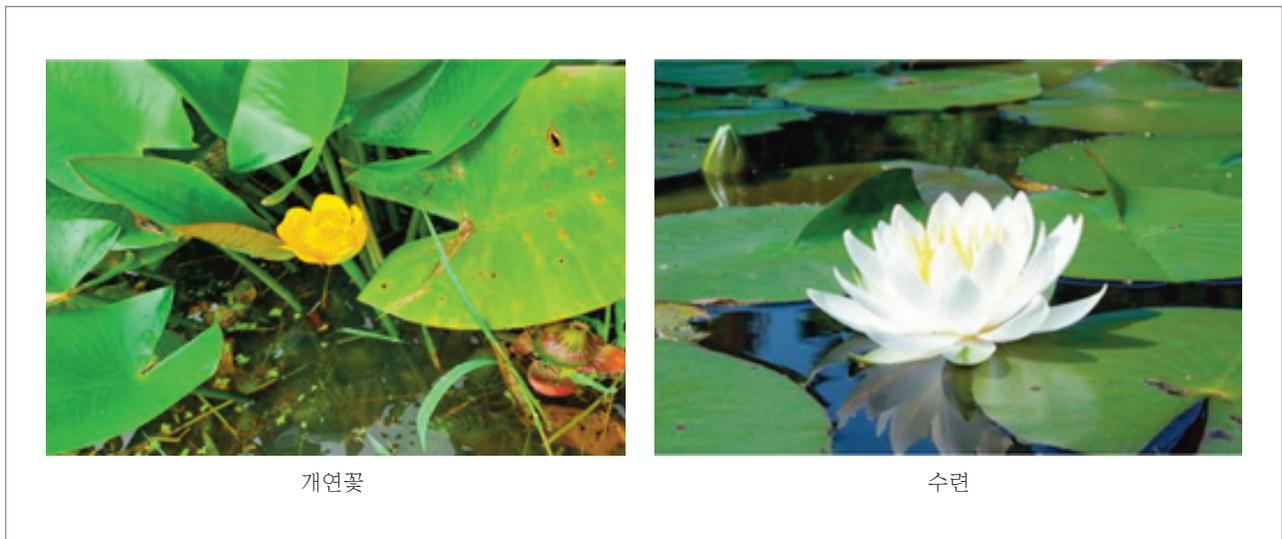
## 2) 속초의 습원식물

석호인 영랑호와 청초호 그리고 농업용수용 저수지와 웅덩이 등에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쌍천과 청초천 등의 소하천과 농수로 주변에는 하천식물이 자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초는 수생식물을 총칭하는 말이며, 수생식물은 생활 장소나 생활형에 따라 정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및 부유식물로 대별할 수 있다. 수초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물속 또는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체의 전부 또는 그 일부분이 수중에 있는 고등식물”을 수초로 본다. 그러므로 수초와 습지식물 또는 습지식물과 수변식물의 한계가 불분명할 경우가 생긴다.

속초시에 소재하는 호수, 하천, 관개용 저수지와 수로 등의 습지에 자라는 수생식물을 생활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침수식물에 실말, 줄말, 물질경이 등이 있고, 부엽식물에 가래, 애기가래, 수련, 개연꽃 등이 있고, 부생식물에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등이 있으며, 정수식물에 갈대, 줄, 부들, 애기부들, 물옥잠, 물달개비, 골풀, 송이고랭이 등이 있으며, 기타 습지식물로는 알방동사니, 사마귀풀, 비녀골풀, 부처꽃 등이 있다.

〈표 10〉 속초의 습원식물





부처꽃



부들



가래



애기가래



줄말



보풀



물질경이



송이고랭이



울챙이고랭이



알방동사니



개구리밥



좁개구리밥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마귀풀



물옥잠



물달개비



비녀골풀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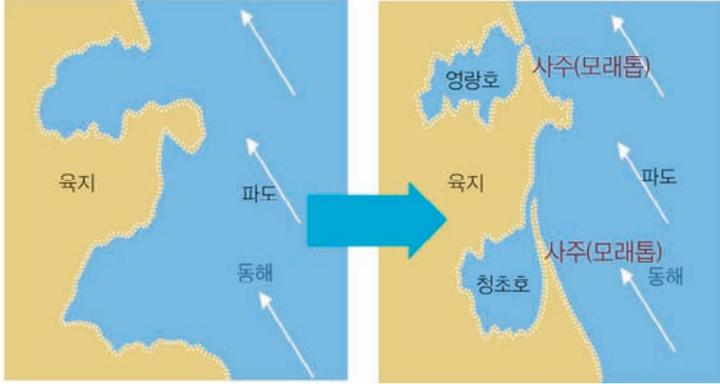
1

## 바로 쓰는 수업자료(교사용) 석호

주제	석호의 알아보기	장소	영랑호, 청초호
학습목표	▷ 석호가 무엇인지, 석호의 가치를 알 수 있다. ▷ 석호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다.	활동형태	모둠활동 개별활동
준비물	▷ 카메라(휴대폰), 필기도구	소요시간	120분

### ▷ 교사용 도움 자료

석호란?	<p>석호는 지각변동과 모래톱 등에 의해 약 6천 년 전에 형성된 자연호수이다.</p> <p>이러한 석호는 호수변 습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고 담수와 해수의 중간 성격을 갖는 기수호로서 희소가치가 높다. 일년에 몇 차례 갯터짐이 일어나면 바다와의 물길이 열리고 이때 송어, 황어, 전어, 뱀어, 빙어 등 많은 어종들이 산란 및 먹이를 위해 찾는다. 그리고 이 다양한 어류와 저서생물들을 먹이로 하는 철새들의 도래지가 되는 중요한 생태, 환경적 자원이다.</p> <p>석호는 독특한 형성과정과 환경으로 우리나라에는 동해안에만 형성되어 있다. 석호 중에는 이미 그 존재가 사라진 것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다수의 석호가 인위적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p>	
석호의 가치	역사·지리·학술적 가치	자연역사의 기록지로서 중요한 의미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많은 철새들의 도래지이자 중간기착지
	기수호 생태계로서의 가치	담수생물과 해양생물 및 기수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자연환경 생태계
	자연호로서의 희소가치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수변 습지 생태계 국내 유일한 자연호로서의 희소가치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수려한 주변은 심미적 휴식과 여가선용의 공간

<p><b>석호의 생성과정</b></p>	 <p>석호의 형성과 발달은 해면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해면 상승기에 연안류를 따라 이동하던 모래가 하천의 하구부에 퇴적되어 사주 또는 사취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해면이 안정화되면 사주가 확장되어 석호가 형성되어 석호에 유입하는 하천에 의해 퇴적물이 운반 퇴적되고 호성삼각주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해면의 움직임이 없이 안정되면 지속적인 퇴적물 공급이 이루어져 석호는 매적된다.</p>
<p><b>철새들의 도래지 이자 중간 기착지</b></p>	<p>석호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독특한 기수역 생태계의 특성을 갖는다. 수위변동이 적고 경사가 완만하여 수변에 습지식생이 골고루 발달하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염분도에 따라 서식생물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분포하며, 기수성 어류들의 산란 및 성장장소를 제공한다. 특히, 석호 근처의 습지에는 많은 철새들이 날아와 먹이를 얻고 쉬어가는 철새들의 영양공급처이자 이동을 위한 중간기착지와 도래지로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 육상 및 수중생태계보다 생산성이 높고 생물다양성도 크다. 습지에는 다양한 저서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유역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을 퇴적시켜 분해하는 자연정화기능의 역할도 한다. 담수생물과 해양생물, 기수생물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다른 어느 호소(湖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독특한 자연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다.</p>
<p><b>담수와 해수가 섞여 있는 기수호</b></p>	<p>호수의 물 1L중에 무기염류가 0.5g 이상 함유된 호소로서, 바다와 수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염류가 섞여 들어온 것이다. 바닷물은 민물에 비해 비중이 크고 깊은 곳일수록 염류의 농도가 높아진다. 이와 같이 물이 깊은 곳일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호소의 물은 안정되어, 1년동안 정체 상태에 있는 호소가 많다.</p>
<p><b>철새들의 도래지</b></p>	<p>동해안 석호는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먹잇감이 풍부해서 다양한 철새들의 도래지이자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한다.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캄차카반도에서 남쪽으로 호주, 뉴질랜드까지 여름철새, 겨울철새, 나그네새들이 계절에 따라 오가는 곳으로서 매우 귀중한 서식처라 할 수 있다.</p>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정환 외, 『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 안내서』, 속초문화원, 2021.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속초 도시변천사 I』, 속초문화원, 2020.  
속초시, 『2022년 속초 통계연보』, 2020.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상)』, 속초문화원, 2006

### 【논문】

- 신동혁·남정희·최재석·김도연·이광열·최재윤 공저, 『석호의 어류』, 원주지방환경청, 2017.

### 【웹사이트】

-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https://species.nibr.go.kr/>)  
기상청 홈페이지 (<https://www.kma.go.kr/>)  
동해안의 자연호수 석호 홈페이지 (<http://www.lagoon.kr/>)  
속초시청 홈페이지 (<http://www.sokcho.go.kr/>)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https://me.go.kr/wonju/>)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kostat.go.kr/>)



# Ⅲ. 속초의 역사와 전통 이야기





# 1. 속초의 역사

## 가. 연혁

‘속초(束草)’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의 ‘속초포(束草浦)’이다. 하지만 이 책에는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알만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이후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보면 속초는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라는 한 동리였다. 면리제가 실시되었던 조선시대의 속초 지역은 양양도호부 소천면과 도문면 2개의 면 지역으로 소천면에 4개 리(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 도문면에 6개 리(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용진리, 신흥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이던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속초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대포리, 외용치리, 내물치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장항리)로 이루었으며, 이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사진1〉 신증동국여지승람  
출처: 『속초문화원』



〈사진2〉 [면세일반]의 속초 옛 지도(1925년)  
출처: 『속초도시변천사 I』

1937년 면사무소를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여 속초면이라 개칭하고,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누고 노리에서 도리원,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면으로 강등되었다가, 6·25전쟁으로 두 차례의 탈환을 거듭하면서 1951년 8월 18일부터 수복지구로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읍으로 되었다.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고,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1963년 시 승격 후 1966년에 동제가 실시되어 12개 동으로 개편되었다.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 장사동으로 개칭 13개 동이 되었고, 1983년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어 법정동 13개 동, 행정동 13개 동이 되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교동 일부와 노학동이 노학동으로, 대포동·도문동·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은 13개 동, 행정동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나. 선사시대

### 1) 구석기시대 - 속초 청호동 유적

우리나라에서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이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 도구와 뿔석기를 가지고 고기잡이와 사냥, 채집하면서 생활하였다.

속초시의 역사는 뿔석기를 사용하고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던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 확인된 곳은 현대산업개발(주)의 사업 부지에서 발굴조사 되었다. 정밀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층에서는 후기구석기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밀개, 굽개, 썰기, 화살촉 등의 도구와 함께 다량의 쯤돌날 몸돌 및 쯤돌날, 돌날 등이 출토되었고, 철기(원삼국)~삼국시대 유구(주거지 15기, 수혈 4기, 小수혈군)에서는 경질무문 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기류, 석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3〉 구석기시대 유물 출토 모습



〈사진4〉 망치 및 모루



〈사진5〉 찌르개 및 잔손질 된 석기

출처: 『속초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구석기시대 유물층은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약 80~90m 떨어진 곳으로, 6m 내외의 해발고도를 보이는 나지막한 사구가 형성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이 만들어진 시기는 후기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약 15,000~10,000년 전의 집터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속초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적이다. 출토 유물로는 석기 제작 도구인 모루 및 망치와 더불어 석기 제작 부산물인 몸돌, 격지, 부스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소량이지만 후기구석기시대를 대표할만한 밀개, 굽개, 썰기, 화살촉 등 약 6,000여 점 유물이 출토되었다. 완성 혹은 미완성 상태의 격지 석기 중에는 흑(오)수정을 몸체로 하여 떼 면을 조정하여 떼어낸 줌돌날 석기와 한쪽 측면을 날카롭게 떼어낸 굽개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1점에 불과하나 유문암재로 제작한 르발루아(Levallois)식 찌르개 1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 2) 신석기시대 - 속초 대포동 외옹치 유적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용도로 쓰인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농경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농경 생활로 인해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한곳에 머물러 정착하였다. 정착 생활은 농경문화의 틀을 만들어 민족문화의 뿌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속초 지역의 신석기 유적은 대포동 외옹치에 위치한 롯데리조트 건축을 위한 발굴조사로 확인된 대포동 외옹치 유적이 유일하다. 이 유적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으로 알려진 양양 오산리 유적(B.C.6,000~3,000)과 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6〉 기타 석기



〈사진7〉 수정 및 석영제 석기



〈사진8〉 조사지역 원경(북→남)



〈사진9〉 어로구 관련 석기

출처: 『속초 대포동 외옹치 유적 발굴보고서』

이 유적은 대포동 외옹치리에서 동쪽 해안가로 뻗어 있는 나지막한 언덕 정상부(해발 46m)에 있으며, 낮은 지대에는 작은 물줄기와 비교적 넓은 농경지 및 백사장이 발달해 있다. 아쉽게도 주거지, 야외 노지 등은 풍화 등으로 인해 없어져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개소의 유물포함층 내부에서는 이음 낫바늘, 작살 등의 어로 생활 도구와 토기, 돌도끼, 굽개 등의 식량 가공 도구 등과 수정으로 만든 석기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로 볼 때 이곳은 주변 하천을 이용한 농경과 해안을 무대로 다양하고 활발한 어로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성 문암리와 양양 오산리의 중간 기착지 정도의 일시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3) 청동기시대 - 속초 조양동 유적, 속초 장사동 유적

신석기시대에 이어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에,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는 기원전 15~13세기경에 청동기시대가 전개되었다. 청동기시대에는 생산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전문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속초가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2년 발굴된 조양동 유적은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양동 유적은 조양동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관계로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 골입술구멍무늬토기, 숫돌조각이 지표 채집되었으며, 일부 탐색조사 갱내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화층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발굴을 실시한 결과 유적에서는 집자리 7기와 고인돌 2기가 조사되었다. 집자리는 해발 25~30m 사이의 구릉 정상부에 등고선의 방향과 평행하게 동서열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과 네모 반듯한 형태로 풍화암반층을 파고 만든 움집이다. 움집의 크기는 길이 6.2~12.8m, 폭 3.6~6.75m로 작은 것은 약 8.5평에서 큰 것은 23평까지 된다.

움집의 바닥은 대개 점토, 마사토를 섞어 다짐하였으며 내부 시설로는 화덕 자리, 기둥구멍, 저장 구덩이, 제습용 홈, 작업대 등이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 집자리의 4벽면을 따라 나 있으며 장축의 중심선에서 4개의 기둥 자리가 확인된 것도 있어 지붕은 맞배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기둥구멍 사이를 연결한 홈으로 옥외로 연결한 배수구 시설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집자리의 형태나 구조 및 내부 시설들은 청동기시대 집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장용 구덩이가 많이 사용된 점이라던가 이러한 구덩이 속에 저장용 토기 등을 묻어 두는 것 등은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집자리의 특성에 속하는 것이며, 제습용 홈과 같은 내부 시설은 지역적 특성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인돌은 2기가 조사되었는데, 1호 고인돌은 묘실에 별도의 덮개돌이 없이 묘곽의 바로 위에 뚜껑돌을 올려놓은 것으로 묘곽의 바닥에는 납작한 할석을 깔았다. 그리고 네 벽을 큼직한 할석을 쌓아서 만든 전형적인 석곽형의 개석식 고인돌이다.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에 비해 유물의 출토량은 적은 편이나 1호 고인돌에서는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도끼 1점과 화살촉 9점이 완형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중국 요령 지방의 요령식 동검문화 유적에서 유행한 형식으로 실물로는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속초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 내세울 만하다.

토기로는 홀구연과 이중구연에 구멍무늬, 골무늬, 단사선문이 결합된 것이 많으며, 두형(豆形)굽다리잔과 목항아리 등의 붉은간 토기가 대부분의 집자리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굽다리잔은 청동기시대 초기의 것으로 함경도 동북지방과 연결되는 토기로 강원 영동지방의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 문화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사진10〉 부채꼴 주머니도끼



〈사진11〉 굽다리잔 토기

출처: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석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집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것들이 골고루 출토되었는데, 돌도끼, 돌대패, 돌살촉, 반달돌칼, 돌창이 있으며 그 밖에 석제, 토제의 가락바퀴와 그물추가 있다. 조양동 유적은 토기의 성격 등으로 살펴볼 때 남한 지역의 초기 민무늬토기 문화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조양동 유적은 서북 및 동북지방의 민무늬토기 문화를 수용하여 이를 혼합한 것으로, 한강 유역뿐만 아니라 강원 영동지방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된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집자리의 저장구덩이, 화덕자리 등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행되는 전환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청동기시대 집자리 구조와 가옥 발달사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집자리로 평가된다. 조양동 유적은 이런 이유로 사적 제376호로 지정되었다.

속초 장사동 지역(현 속초고등학교 앞산)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간돌검 1점과 돌화살촉 6점이 1980년 12월에 발견되었다. 간돌검은 자루가 있는 돌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이며, 화살촉은 버들잎 모양이 5점이고 스페(자루 속에 박히는 뾰족한 부분) 달린 화살촉이 1점이다. 간돌검과 돌화살촉 이외에 철기 1점과 토기편 3점이 같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현재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사진12〉 장사동 유적 위치도



〈사진13〉 유물 현황

출처: 『속초도시변천사 1』

#### 4)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이후 지배·피지배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발전하여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 즉 군장이 지배하는 군장국가(족장국가)가 형성되었다.

그 초기 국가의 하나로 강원도 동해안 북부에 동예(東濊)라는 나라가 있었다. 동예의 영역은 영흥, 덕원, 안변 등 영흥만 일대였으나 뒤에는 고구려에게 쫓겨 더 남쪽의 강릉, 영덕 등지로 옮겨갔다. 이러한 점은 속초가 동예의 영역이었음을 말해준다.

동예의 크기는 총 2만 호 정도로 지리적인 여건상 선진문화(금속문화)의 수용이 늦었다. 따라서 정치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여 군장국가의 단계에 머물다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중국 문물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분화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은 위만조선과 한

(漢)군현 및 고구려 등 주변의 강대한 세력들에 의한 잇따른 지배와 수탈이 그 주요 원인의 하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동예는 2세기 이후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245년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동예의 주요 읍락들이 위(魏) 군에 유린되거나 그에 투항하였다. 이후 동예는 당분간 낙랑군의 영향 아래 귀속되었다. 그러나 4세기 초 진(晉) 나라의 쇠퇴와 함께 고구려가 낙랑군을 병합함에 따라 동예 지역에 다시 고구려의 세력이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예의 일부는 여전히 고구려의 지배 밖에 있었는데, 5세기 초 광개토왕 대에 동예에 대한 정벌전이 감행되어 많은 촌락이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생활은 고기잡이, 사냥, 농경으로 넉넉했고 특히 산누에를 길러 명주를 짜고 삼베도 짰다. 동예의 읍락은 산과 내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함부로 남의 구역을 침범하면 책화(責禍)라 하여 노예·소·말 따위로 보상하게 했고,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써 죄를 갚게 했다. 또한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꺼리는 것이 많아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으로 죽으면 살던 집을 버리고 새집으로 옮겨가는 풍속도 있었다. 이는 가옥구조가 비교적 간편하며 사회 발전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풍속이기도 하다.

속초 지역의 철기시대 유적은 최근 청호동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를 위한 발굴에서 확인된 이 유적은 4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속초에서 발굴된 유일한 철기시대 유적이다.

철기(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는 북고남저의 지형에 따라 일정 간격(최소 5m 이상)을 두고 이격되어 총 15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형태에 따라凸자형과 ㄇ자형으로 분류된다.凸자형 주거지는 2기이고, ㄇ자형 주거지는 13기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이다. 토기류는 독, 작은 독, 항아리, 뚜껑 등으로 용류가 가장 많다. 철기류는 대도(大刀)가 출토되었고, 석기류는 검파두식, 석제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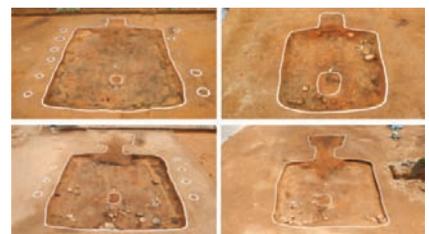
〈사진14〉 정밀발굴조사 후 전경(동→서)



〈사진15〉 출토된 토기



〈사진16〉 출토유물(대도)



〈사진17〉 주거지

출처: 『속초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청호동 유적 조사를 통하여 속초 지역에서도 철기시대 생활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영동지역 철기시대 생활유적 입지의 다양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다. 삼국시대

철기 문화의 보급과 이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를 토대로 성장한 여러 소국들은 그중 우세한 족장을 왕으로 하는 연맹왕국을 이루었다. 왕은 자기 집단 내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을 활발하게 정복하여 영역을 확대하였고, 율령 반포, 불교의 수용 등을 통하여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를 형성하였다. 우리 역사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고대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가야는 삼국의 각축 속에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연맹이 해체되어 신라와 백제에 흡수되었다.

속초가 1963년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양양에 속해 있었고, 현재의 장사동은 간성군에 속해 있었다. 이곳은 고구려와 신라의 영향권 하에 있던 지역으로 두 나라의 정복 전쟁과 함께 이름이 변하기도 하였다.

### 1) 연혁

속초 지역이 삼국 중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된 것은 5세기 초 광개토대왕대로 추정된다. 당시 고구려는 동예에 대한 정벌전을 감행하여 많은 촌락을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고구려에 복속된 양양의 명칭은 익현현, 다른 말로 이문현이었다. 간성의 고구려 때 이름은 슈성군, 일명 가라홀(加羅忽)이었다.

그 후 속초·양양 지역은 신라의 북상에 따라 고구려에서 신라에 속하게 되는데, 그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국사기』에 신라 진흥왕 12년(551)에 고구려의 10군을 취한다는 기사와 진흥왕 17년(556)에 함경남도 안변(安邊)에 비렬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한다는 기사로 미루어 그 시기는 진흥왕 때라고 추정된다.

신라 때 양양은 익현(翼縣)에서 익령(翼嶺)으로 고쳐졌고, 9주 중 명주(溟洲)에 속하였다. 명주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강릉이었고, 명주의 영역은 오늘날의 영동지역과 거의 일치했다. 통일 후 신라는 문무왕 때부터 시작하여 신문왕 7년(687)까지 지방 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9주 5소경으로 완성하였다. 그 후 경덕왕 16년(757)에는 주·군·현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개명하였다.

당시 속초 부근 군·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현은 오늘날의 간성인 수성군의 영현이었다. 수성군은 익령현과 오늘날의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에 치소가 있었던 동산현을 영현으로 거느렸다. 동산현의 고구려 때 이름은 승산현, 일명 소물달이었고, 고려 때부터는 열산현, 일명 봉산(鳳山)

으로 되어서 간성에 속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고성군 현내면과 거진읍이 그 지역이었다.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는 익령현과는 별도로 동산현이 있었는데, 명주의 직할 영현이었다. 동산현의 고구려 때 이름은 혈산현이었고, 고려 때부터는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현에 예속되었다. 오늘날 양양군 현남면과 현북면이 그 지역이었다.



〈사진18〉 삼국시대의 속초  
출처: 『만화로 보는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 2) 화랑도와 속초

영랑호는 신라 화랑 영랑(永郎)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영랑호에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 사선(四仙-영랑·술랑·안상·남석행)이 금강산 금란(金蘭)에서 수련하고 무술대회에 나가기 위하여 고성 삼일포에서 3일 동안 쉬다가 금성으로 향하던 중 영랑호에 오게 되었다. 이 호수는 물빛이 맑고 투명하여 영랑이 그 풍취에 도취되어 무술대회에 나가는 것조차 잊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호수의 이름을 영랑호라 하였다고 한다. 이는 사선 중 영랑이 이곳 풍광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뱃놀이를 즐기고 고기를 낚으며 풍류의 멋을 다하였다는 것으로, 당시의 화랑들이 추구하던 정신세계와 영랑호의 맑고 투명한 물빛이 그 성격상 같았다고 하는 것이다.

영랑은 문헌의 기록과 금석문으로 인하여 실제의 인물임이 확인되고 있다. 우선 문헌의 기록은 『삼국유사』 백율사(栢栗寺)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세상에서는 안상(安常)을 준영랑(俊永郎)의 무리라고 했으나 이일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영랑의 무리에는 오직 진재(眞才)·번완(繁完) 등만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이들도 역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위 기사에 보이는 준영랑은 곧 영랑을 지칭하는 것이다. 사선 중에서도 영랑이 대표적인 화랑이었음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 울산군 두동면 천전리 서석(書石) 명문에도 영랑에 관한 기록이 있다.

“戊年六月二日永郎成業(술년육월이일영랑성업)”

이것은 내용으로 보아, 영랑이 화랑으로서의 수련 기간을 마친 것을 기념하여 여기에 각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 영랑이 바로 효소왕 때의 영랑일 것이라 짐작되고 있다.



〈사진19〉 영랑호 전경



〈사진20〉 영랑호 화랑조형물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한편 영랑호에 대한 명칭을 최초로 기록한 것은 이곡의 『동유기(東遊記)』다. 고려 충정왕 1년(1349)에 쓰여진 『동유기』에 사선이 영랑호를 순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사선에 대한 흥미가 대단하여 화랑과 화랑정신의 표상이라 하였으며, 이 이후 그 정신이 계승되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 고려 태조 왕건은 국풍, 즉 화랑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여 팔관회의 행사에 선랑을 등

장시키고 있다. 이는 사선을 추모하는 의미이며, 이러한 현상은 화랑과 화랑정신에 대해 후세의 추앙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간성군조에 의하면 “영랑호는 고을 남쪽 50리에 있다. 주위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라고 하여 그 유적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3) 삼국시대 불교 문화와 속초

만해 한용운이 편찬해 놓은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중 신흥사 사적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 율사가 설악산 동쪽에 향성사를 창건한 것이 신흥사의 시초라 한다. 향성사 터는 현재 켄싱턴 호텔 자리라고 하는데 당시에 세워진 탑이라고 전해지는 향성사지 3층 석탑(보물 443호)이 호텔 정문 앞 길 건너 개울가에 남아 있다.

향성사 외에도 이 지역에서는 법흥왕 7년(520)에 아도화상에 의해 건봉사의 전신인 원각사가, 문무왕 11년(671)에는 의상대사에 의해 낙산사, 신문왕 8년(688)에는 원효대사에 의해 영혈사, 혜공왕 5년(769)에는 진표율사에 의해 화암사가 개창되었다. 선종의 대사찰 진전사, 선림원도 이때 세워진 사찰이다. 이러한 사실로 당시 이 고장에서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21〉 향성사 터(켄싱턴 호텔 자리)  
출처: 『속초문화원』

#### 4) 산천 제사와 속초

『삼국사기』 권32 잡지 제사조에는 신라의 국가 제사 전반에 걸친 체계와 규범, 즉 제전이 실려 있다. 이것은 중국 제전의 체계를 본받아 규범화한 것이지만, 신라 나름의 형편을 고려한 독특한 것이었다. 원래 사전(祀典)이란 『예기』에 입각하여 천지·종묘·사직 등 왕권을 상징하는 중대한 제사를 대사에 편제하고, 그보다 덜 중요한 제사를 중·소사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신라의 사전은 그 체제상 대·중·소사에 산천 제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사에는 강원도 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강산·설악산·화악산이 그것이다. 화악산은 경기도와 연접해 있다. 위 소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설악산에는 속칭 천제단이라 하여 석단을 쌓아놓고 선불적 신위명(仙佛的神位銘)을 새겨 놓은 제단이 있다.

## 라. 고려시대

### 1) 연혁

고려는 신라 말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연합하여 건설한 국가였다. 태조는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고,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했다.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갔고, 지방의 중소 호족들에게는 향촌 사회에서의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 2년(983) 전국 주요 지점에 12목(牧)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고려사(高麗史)』백관지 외직조에 의하면 처음으로 전국에 12목을 설치하는 한편 금유·조장의 직제를 폐지하였다. 이때의 12목은 양주(서울)·광주·충주·청주·공주·진주·상주·전주·나주·승주·해주·황주였다.

성종은 12목의 설치를 기점으로 삼아 지방 세력의 통제를 강화시켜 갔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통일신라시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중요시되던 곳으로는 상주·양주(양산)·강주(진주)·한주(광주)·삭주(춘천)·명주(강릉)·웅주(공주)·전주·무주(광주)와 중원경(충주)·북원경(원주)·금관경(김해)·서원경(청주)·남원경(남원) 등 9주 5소경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12목의 중심지가 되지 못한 곳은 양주·삭주·명주·무주·북원경·금관경·남원경이었으며 더욱이 양주·삭주·명주는 12목제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는 고려의 서북계를 군사 지역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북지역도 군사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원도 지방은 동북면병마사가 다스렸다. 동북면병마사는 강원도와 함남 남부를 맡고 있었으며, 서북면병마사는 평안도 지방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후 목종 8년(1105)의 제도 정비를 거쳐 현종 9년(1018)에 전국을 도(道)와 계(界)로 나누면서 행정구역을 정비하였다. 현종 9년에 4도호(都護) 8목(牧)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

(縣令)이 설치되면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일단락되었다. 이후에도 다소 변동이 있지만, 골격에는 큰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4도호부·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 5도는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구역으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였고, 양계는 국경 지대에 설치된 군사 행정구역으로 북계와 동계가 그것이었다.

『고려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의하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현은 오늘날 양양 현남면 동산리에 있었던 동산현을 속현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또 신라의 수성군이었던 간성에도 고려시대에 간성현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현령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간성현은 오늘날 고성군 현내면 산하리에 있었던 열산현을 속현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그 후 익령현은 고종 4년(1217)에 몽고에 쫓긴 거란의 침입을 격퇴시킨 공으로 고종 8년 양주방어사(고을 이름은 양주이고 지방관은 방어사)로 승격되었다. 고종 40년(1253)에는 몽골에 항복하였으므로, 고종 41년(1254) 현으로 강등되었다가(이 기사는 『고려사』에만 나옴), 다시 고종 44년(1257) 덕녕감무(고을 이름은 덕녕, 감무는 수령 중 최하급으로 조선시대에는 현감으로 그 명칭이 바뀜)로 강등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종 1년(1260) 지양주사(고을 이름은 양주이고 수령은 지사임)로 회복되었다. 고려대의 양양은 대체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였다.

속초를 비롯한 영동지방은 동계에 속하여 동북면병마사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도의 명칭, 소관 구역의 변동이 극심하였다. 명종 8년(1178)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 원종 4년(1263) 강릉도, 충렬왕 16년(1290) 강릉삭방도(江陵朔方道), 우왕 14년(1388)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 등이었는데 이를 통해 추정해보면 영동지역도 계속 동계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국경선의 북상에 따라 동계 지역은 함경도 지역으로 북상하고, 영동지역은 명주도 혹은 강릉도로 불리다가, 강릉도가 우왕 14년(1388)에 영서의 교주도와 합쳐져 교주강릉도가 되어 오늘날 강원도의 토대가 되었다.

『고려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의하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은 현령이 파견된 지역이었다.

## 2) 외세의 침입과 속초

### 가) 거란의 침입과 항전

몽골군이 거란을 공격하자 거란의 후예인 금산과 금시라는 두 왕자가 수만 명의 군사로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서북면 요새를 쳐들어 온 것은 1216년 8월 경이다. 이해 12월까지는 거란군이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고려군과 교전했다. 11월에 금나라에서 타타르(달단)군사, 즉 몽골 군사가 곧 고려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잘 대비하라는 첩보가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고종 4년(1217)에 거란군의 세력은 황해도와 경기도까지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양수척의 내통과 최우가 정권의 안보를 위해 관군 가운데서 정예병을 빼어가는 따위로 국방에 소홀했던 데 있었다.

5월 4일에 거란군이 철원을 함락시키면서 마침내 강원도로 들어오게 되고, 이어서 횡성, 춘천, 원주 등이 점령당하였다. 7월 5일이 되어서야 고려의 중군(中軍)과 전군(前軍)이 거란군을 충주와 원주 사이에 있는 법천사로 추격하고, 이어서 제천까지 진격하면서 거란군을 쳤다. 고려군이 이처럼 김취려 장군의 지휘하에 전승을 거듭하게 되자 거란군은 쫓겨 대관령을 넘어 명주(강릉)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해 7월 거란군이 쳐들어온 이래로 명주의 주민들이 당한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격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란군의 일부는 인제 쪽으로 도망하여 회양을 거쳐, 함주(함흥)를 통해 여진 땅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서북면의 거란군과 합세해 강동성으로 들어갔다. 거란군의 다른 한 갈래는 바닷가를 따라 양양으로 들어갔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전에 크게 낭패해 통천을 거쳐 함경도 쪽으로 북상해 여진의 땅으로 돌아갔다. 양양은 이때 주민들이 항전한 공을 기리어 현(縣)에서 주(州)로 승격하지만 거란군의 퇴각로 연변의 주민들은 인명과 재산상에서 크게 피해를 받았다.

#### 나) 여진과 몽골의 침입, 그리고 쌓게 된 권금성

발해 멸망 이후 만주 지방의 여진족은 현종 2년(1011)부터 숙종 2년(1097)까지 약 80여 년 동안 동해안에 출몰하여 20여 회나 서북면 요새를 쳐들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몽골이 고종 18년(1231) 고려에 침입해 왔다. 1231년부터 1234년까지는 주로 서북면이 주요한 전장으로 되지만, 금나라가 정복된 1235년 이후는 동북면까지 전장이 확대되었다. 강원지방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휘말려 들게 된 것은 1253년에 들어서이다.

고종 40년(1253) 당시 몽케칸의 동생인 술지우트가 거느린 부대는 동북면에서부터 남하하여 9월에 등주(登州, 안변도호부)를 포위 공격하고, 10월엔 금양성 곧 통천방면 동해안을 따라 내려왔다. 이들은 10월 21일 양주(양양)를 점령하였다. 낙산사 승 익장이 쓴 『낙산사기』에 의하면

“계축년(癸丑年, 1253)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수어(守禦)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설악산에 쌓았다는 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말하고 있는 권금성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최근의 조사에서 권금성은 고려시대에 쌓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22〉 권금성 모습  
출처: 『속초시청』



〈사진23〉 권금성 성벽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다) 왜구의 침입과 토벌

고려 후기에 오면 왜구가 전국의 해안은 물론 내륙에까지 침입하여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였다. 왜구의 침입은 무려 471회나 기록되어 있다.

우왕 5년(1379) 왜구는 경상도 내륙 지방을 침범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격을 해왔다. 울산과 계림 일대에서 승리한 왜구의 일부는 6월에 강릉도로 향하므로, 조정은 조인벽을 강릉도원수로 삼아 이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왜구와 전투를 벌인 장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강릉도원수를 역임한 조인벽이 말년에 지금의 낙산 해수욕장 부근인 양양 조산리에 은거했으며, 그 후 그를 모시는 동명서원이 그곳에 세워진 것을 보면 그가 이 부근에서 왜구를 격파했으리라 생각된다.

우왕 9년(1383)에 왜구가 동산현에 침입하였다. 왜구는 강화나 예성강으로 올라와 개경을 위협하던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강원도 내륙 지방을 통해 개경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왜구에 의해 홍천현과 춘주(춘천)마저 한때 함락되기도 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은 조준을 강릉교주도 도검찰사로 임명하여 이 일대의 왜구 토벌에 나서게 하였다. 원수 이을진과 부원수 권현룡 등이 동산현(양양)에서 왜구 20명을 죽이고 말 72필을 노획하는 승리를 거두자 왜구는 고성포로 퇴각하였다. 그 뒤 고성포에 정박한 왜구는 11월에도 빈번한 야간 기습작전으로 고려군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처럼 1383년에 왜구들은 소규모 병력을 동원한 국지전을 전개하면서 내륙지역으로의 침투를 기도하였으나 고려군의 적극적인 토벌 작전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뒤 왜구는 1385년 4월에 양양에 다시 침입하였으나 모두 고려군에 의해 패하였다.

## 마. 조선시대

강원도는 근세조선 이후에 쓰인 이름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비슷한 행정구역도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강원도는 처음에 고려 말에 형성된 교주강릉도의 이름을 바꾼 데서 출발하였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강원도라는 이름은 태조 3년(1393)에 생긴 것이며, 1395년에 충청도에 속해 있던 원주를 강원도에 복귀시켜 감영 소재지로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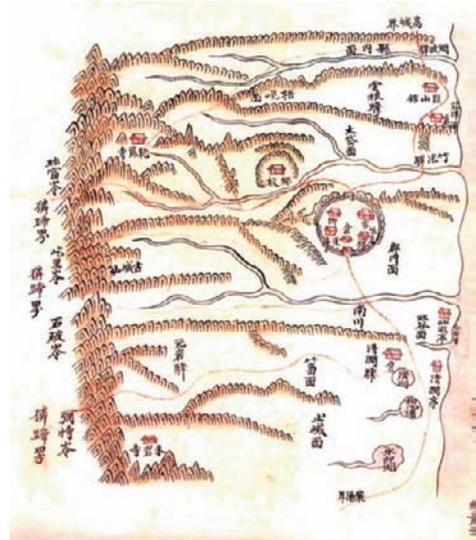
그리고 태조 때부터 세종 때까지 구역 정비와 행정조직을 완성하였는데, 이때의 것이 조선 말기(1895)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면 원양도·강양도·강춘도·원춘도 등 명칭 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선시대가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반역, 강상죄 등이 명칭 변화에 반영된 것이다.

### 1) 행정구역

조선시대의 속초는 강원도 양양도호부 도문면과 소천면으로 되어 있었다. 양양도호부는 태종 16년(1416)부터의 이름이다. 양양도호부는 도문면, 소천면을 포함하여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용진리, 신흥사가 속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사진24〉 관동읍지의 양양



〈사진25〉 해동지도의 양양

출처: 『옛 문헌 속의 속초』

태종 16년(1416)에 처음으로 양양으로 불렸는데,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다가 아관 파천(1896) 이후 다시 강원도 양양군이 되었다. 속초의 인구는 영조 36년(1760)에는 1,265명, 1871년에 편찬된 『관동읍지(關東邑誌)』에는 1,20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유학·교육

당시 지방 교육기관으로 향교를 들 수 있다. 향교는 관립학교로서 모든 고을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었다. 속초가 속하였던 양양·간성에 모두 향교가 있었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또 사립학교로는 양양읍 조산리에 고려말의 무장 조인벽을 모시는 동명서원이 있었으며, 속초 대포동 내물치에 남아 있는 유물재비에 의하면 그 자리에 물재 유희일을 추모하고 제사 지내던 향현사라는 향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많은 서당이 있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에 1,405개의 서당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속초에도 많은 서당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 3) 군사와 국방

조선 초기의 군사 조직은 중앙에는 5위를 두었고, 지방에는 영진군 등이 주둔하고 있어 수령의 지휘를 받았다. 세조 때 진관체제라는 지역단위의 방위 체제가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는 여러 고을을 하나의 진관으로 묶어 그중 한 사람의 수령이 지휘하게 한 것이었다.

세조 이전에는 각 도에 절도사가 주재하는 주진을 두고 변경·해안 등 요충지에 진(鎭)을 두어 방비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해안 방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태조 6년 정축에… 수군만호수어처가 6이니 월송포가 평해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속초’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록에 의해 확인된 최초의 것이다. 아울러 이미 세종 때 수군만호처가 존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원주, 강릉, 회양 중심의 진관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양양은 강릉대도호부사가 지휘하는 강릉진관에 편성되어 있었다. 수군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삼척에 전진기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대장인 삼척포첨사가 동해안 각지의 수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만기요람』과 『증보문헌비고』는 육군경비전투기지 격인 관방과 해군경비기지 격인 해방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의 관방으로는 양양읍성, 권금성, 토왕성, 대포진성(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고, 해방으로는 쌍성호(청초호), 대포(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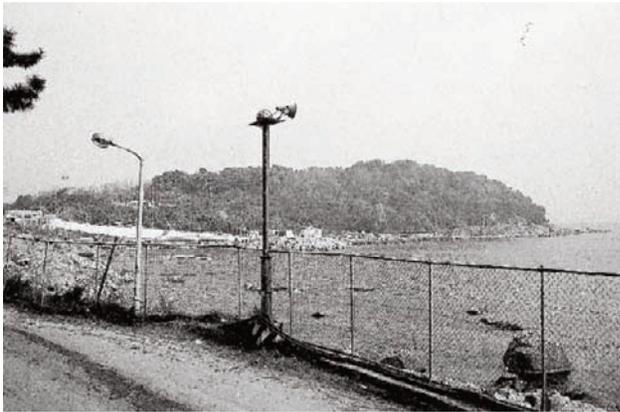
조선시대의 속초는 전쟁으로 인한 큰 피해는 겪지 않았다. 다만 임진왜란(1592~1597) 때 제4진으로 상륙한 모리요시나리 군이 안변에서 영동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이에 사명대사가 고성 건봉사에서 승병들을 모아 전투에 참가한 기록이 있다. 또한 양양 『향토지』에 부사 김수연이 9월에 부임하여 방어

하지 못해 10월에 면직당하고, 임시 수령 정은신이 11월에 부임하였다가 12월에 해임되고, 12월에 부사 황규가 부임하는 등 그 피해가 5개월에 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 4) 교통·통신

교통 제도를 대표하는 것은 역마제다. 역은 주요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마다 말과 역정(役丁)을 갖추어 공문을 전달하고, 공무 여행자에게 말을 제공하고 숙식을 알선하였다. 그 밖에 진상하는 관물의 수송까지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500여 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양양에는 상운, 연창, 인구, 강선, 오색 등에 역이 있었다.

봉수는 변경의 긴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는 군사상의 이유로 설치되었다. 대략 수십 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서로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봉화대를 마련해 놓고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 신호하였다. 속초 대포동 외옹치에도 덕산봉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남으로는 수산, 초진산, 북으로는 죽왕면 삼포리의 죽도, 거진 반암리의 정양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진26〉 덕산봉수 옛 모습  
출처: 『속초문화원』



〈사진27〉 덕산봉수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 5) 특산물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각 군현별로 공납이라고 하여 특산물을 상납하고 있었다. 특산물은 전국과는 달리 수확량의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농촌 경제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모시, 철, 죽간(竹簡, 글씨를 쓰던 대조각), 해송자, 오미자, 자초(화상, 동상 등에 바르던 약초), 인삼, 지황(한방약재), 복령(버섯 종류, 한약재), 꿀, 백화사(뱀종류), 김, 콩, 전복, 홍합, 문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송어, 해삼, 송이 등을 기록하고 있다.

## 6) 조선 말기 민족 운동

### 가) 동학농민운동

동학은 1860년경 철종 때 경주 사람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다. 이돈화가 지은 『천도교 창건사』에 의하면, 1869년에 2대 교주 최시형이 2년간 양양에 체류하면서 전도를 하였다고 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영동보다 영서에 동학이 크게 퍼졌고, 아울러 영서지역에서 동학군이 봉기하게 된다. 영월, 평창, 정선 등지에서 봉기한 동학군은 대관령을 넘어 한때 강릉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단행하나, 곧 강릉 읍민에게 패퇴하여 평창 등지에 주둔한다. 또 홍천에서는 강릉, 양양, 원주, 횡성, 홍천 5읍 도점주였던 차기석이 동학군을 이끌고 홍천 동창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기린, 양양, 간성 등지에 비밀리에 통문을 발하여 동지를 모으고 영동으로 진격할 기세였다. 이에 강릉을 비롯한 영동에서는 유림 등이 중심이 되어 반동학군을 조직하고 각 영에 배치하여, 동학군의 공격에 대비함과 동시에 영서의 동학군을 공격한다. 이때 양양에서는 도문동 출신 이석범이 민병을 조직하여 홍천 내면 방면의 동학군을 공격했다.

### 나) 의병항쟁운동

구한말 민족 운동의 두 흐름은 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이다. 의병항쟁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항거에서 시작되었다. 각지의 의병들은 친일적인 지방 수령을 숙청하고 일본인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국왕의 해산 권고 조치으로 9개월 정도 후에는 활동이 종식된다.

영동지역의 의병장으로는 민용호가 대표적이다. 그는 경기도 여주 사람으로 원주에서 의병을 모아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진격하여, 1896년 1월 30일 강릉에서 그곳 의병들과 합류하여 관동9군창의 소를 설치했다. 양양 『향토지』에 의하면 양양에도 창의소가 설치되었다. 그는 의병들을 이끌고 원산까지 공격하나, 안변·선평에서 관군에게 패퇴하여 강릉으로 후퇴한다. 원산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의병과 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읍에서 임천리까지 전투장이 되었고, 민가 30여 호가 불에 탔다. 독립신문(1896년 6월 20일 자)에 보면 당시 군수가 의병에게 처형당했다는 기사가 있다.

## 바. 일제강점기

1910년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항일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가 조직되었고, 의병 부대는 만주와 연해주로 옮겨 독립군으로 재편성되어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의 활동이 1919년 3·1운동이라는 전 민족적 봉기의 배경이 되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족의 활동에 맥을 같이하여 활발한 주권 회복을 벌였다.

### 1) 일제강점기의 속초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 통수권 등을 가진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1914년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으며 전국의 군을 220개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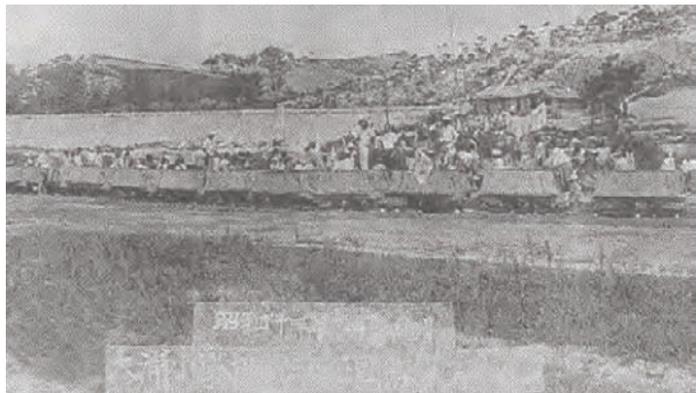
이때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1926년에 발간된 도천면 『면세일반』에 의하면 면장은 1907년부터 설치되었고, 1913년에는 소천·도문 연합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 도천면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5년경 도천면은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의 11개 리로 되어 있었다. 당시 대포리는 도천면의 소재지였고, 근대화로 외지의 교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후기에 와서 청초호가 정기 기선의 기항지로 개발되면서 청초호 북쪽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37년 7월 1일에는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속초는 면 이름이자 동리 이름이 된 것이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의 리가 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17개의 리로 편성되었다.



〈사진28〉 도천면 우편소(1938년)



〈사진29〉 대포소학교 근로보급대 작업 현장(1938년)

출처: 『속초의 근·현대사』

## 2) 3·1운동과 속초

속초가 속한 양양군의 3·1운동은 그 규모나 내용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운동이었다.

만세운동 거사 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유학계의 지도자는 이석범(李錫範)이었다. 그는 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으로 당시 중도문리에 쌍천 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한 인물로 반동학군 활동, 의관, 면장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무엇보다도 3·1운동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제자들이 많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다른 한편의 계획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개성 호수돈여학교에 다니던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온 후 양양 감리교회 청년 지도자 김필선, 김주호 등에게 인계하여 태극기 제작 등 준비를 하던 중 유림세력과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이석범의 지휘와 또 다른 양양 감리교회의 계획이 합쳐져서 양양에서는 4월 4일 장날을 이용하여 양양면·서면·손양면 등 면민 4천 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손양면 가평리의 함흥기는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가 피살되고, 경찰의 야간 사격으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과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가 피살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5일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 장터에 모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 주재소가 있는 대포리에 모였다. 오전에는 도천면민이 대포에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오후에는 강현면 사무소와 물치 장터에 모여 시위하던 강현면민이 대포리에 와서 합세하였다. 이에 일제는 경찰 이외의 일본인을 새벽부터 배를 띄어 바다에 머물게 하는 등 두려움에 떨었다. 당시 강원도 장관의 4월 6일 자 전신 보고에, 물치 장터에 모인 군중은 5백 명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했고, 오후 대포리에 모였을 때를 8백 명이라 했는데 1천 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만세운동은 4일 양양시장과 군청, 경찰서 앞에서 시작된 이래 9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6개면 82동리의 주민 6,000명이 참가하여 전개한 전 군민적인 만세운동으로, 전국에서도 그 예가 드물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장기간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만세운동으로 12명의 사망자와 7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났으며 3일 오후 임천리에서 추진되던 준비 작업의 일부가 발각되어 22명이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양 지역의 만세운동은 독자적으로 계획되어 상반된 이해를 갖는 보수세력과 개화세력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연합하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의 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초기의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제 군경의 무차별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무력시위운동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후 항일 독립운동으로 계속 연결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진30〉 이석범



〈사진31〉 조화벽

출처: 『일제에 항거한 속초 대표만세운동』

### 3) 3·1운동 이후 사회운동

#### 가)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농민조합운동

3·1운동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후, 양양 지역의 사회운동은 점점 쇠퇴하여 갔다. 이러한 가운데 1923년 물치 노농동맹이 조직되었다. 물치노농동맹은 양양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으로 당시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 운동사에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양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은 농민조합운동이다. 양양은 지주 경영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급 자족적인 영세 소농 경영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지주 투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야학의 설립과 외지 유학생들에 의한 신문화 유입 등이 농민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각 리 별로 활동하던 농민조합을 1927년 12월에 군 농민조합으로 탄생시켜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천면 출신의 지도자 김병환은 1926년 12월경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일제는 192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양양농민조합은 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하여 1931년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일제는 1932년 도내의 21개 경찰서에서 무장 경관대를 차출하여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쳤다. 짧은 시간 안에 3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검거되었고, 이 중 공판에 회부된 인원은 김병환 등 36명으로 이들은 4년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양의 농민조합운동은, 당시 신문이 단천 농민조합사건 다음으로 가는 대사건이라 보도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고 활동도 활발했다. 그러나 농민조합운동이 1931년 이후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민조합에 참여

한 것은 현실 생활의 타개, 토지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민조합운동은 일제에 저항한 민족 해방운동의 연장선에서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신간회(新幹會) 운동

신간회는 민족통일전선의 일환으로 1927년 2월에 조직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우파의 연합단체이다. 신간회의 설립 목적은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으로서 양양 지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될 정도로 군민의 기대가 컸다.

설립 후 신간회는 미신 타파, 조혼 금지, 단연과 아편 흡연 추방, 매춘과 풍기 문제 등 계몽운동의 전개와 생활·생존권 수호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반일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8월 29일을 국치일로 정하고, 이날의 치욕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기로 하는 등의 형태로 반일 감정을 확연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일제는 신간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대포 공진 소년회 매욕 사건’(대포 공립 보통학교의 교장이 공진 소년회에 입회한 학생 24명에게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인데, 결국 이 문제는 양양 청년동맹과 신간회 양양지회가 관여하게 되어 양양 지역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대립은 결국 일제의 방해로 심화시켰고, 신간회의 활동도 비공식적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1927년 말부터 1928년 초에 드러난 신간회의 조직상 결함으로 인해 창립 1주년이 되는 시기에 구체적 활동 방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자연스럽게 신간회의 활동 역시 이전의 사회단체들이 전개했던 것과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29년에 이르면 조직 자체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농민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농민조합이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으므로 신간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결국, 신간회는 중앙에서부터 합법적 단체 성격의 한계와 여러 차례 주요 간부들이 검거되면서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양양에서는 1930년 4월 25일 제4회 정기 대회를 열고 신간회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나 1931년 해소될 때까지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농민조합으로 넘기게 된다. 그러나 신간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성장해 온 민중운동을 규합하여 조직하고, 민족 단일 전선을 이루었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 사. 해방 후의 속초

### 1) 공산 치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 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학정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하였으므로, 해방된 민족을 조직하고 이끌만한 조직체가 없었다. 따라서,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되어 혼란만을 가져왔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으로 혼란을 빚어내고 있을 때, 미국·소련 양국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였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속초 지역은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군은 점령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 2) 반공 투쟁(反共鬪爭)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하에 공산정권이 만들어졌다. 1947년 2월에 조직된 이른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들은 토지개혁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속초에서는 반공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공 투쟁을 위한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공산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장 활동을 벌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과 90인 사건,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이다.

#### 가)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

속초 애국 동지회는 속초에 거주하던 고재덕을 중심으로 10명이 조직한 반공 애국단체였다. 이들은 소련 점령군의 약탈과 북한 공산당의 횡포에 못 이겨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각오로 지하조직망을 통하여 동지를 규합하였다. 이들은 1946년 2월 18일 거사를 모의하다가 비밀이 탄로되어, 다음 날인 2월 19일 모두 체포되었다. 증언에 의하면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고, 송곳으로 몸을 찔러 잠들지 못하게 하고, 자루를 대로 만든 망치로 쳐서 정신을 잃게 하는 고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1946년 3월 15일 원산보안서로 송치되었다가, 4월 5일 원산교도소로 이감된 후 1946년 6월 19일 사건 기각으로 풀려났다.

#### 나) 90인 사건

90인 사건은 해방 후 일본인이 물러간 뒤 그들이 살던 적산가옥 처리에 있어서 공산당 요인들만 차지한 데서 사건이 기인되었다고 한다. 김환기, 박상희 등 9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하룻밤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하룻밤만 고초를 겪고 풀려났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다고 한다. 주동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 다)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

호림 유격대는 8·15 해방 이후부터 주문진을 중심으로 동해안 38선 접경에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1949년 육군 정보국 소속 하에 육군 호림 부대로 통합되어 120명의 특수 요원으로 편성되었다. 호림 부대의 작전 임무는 38선 이북 지역에 침투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것이었다.

호림 부대는 1949년 6월 29일 38선을 돌파하여 멸공 유격전을 개시하였다. 그중 호림 5대대가 대청봉에서 화채봉까지를 본거지로 삼고 양양 지구의 반공청년들과 연락을 취하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식량 등의 군수 물자 보급은 현지 반공 청년들의 지원을 받았다. 7월 8일 강현면 상북리에 진입하여 반공 청년 김종모와 김정배의 집에 4일간씩 머물면서 작전을 구상하던 중, 김정배의 조카딸이 극력 공산주의자였던 남편 이종구에게 밀고함으로써 발각되었다. 호림 부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민군과 상북리 핏골(현재의 설악동 C지구)에서 북한 보안대원 6명과 열성 당원 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많은 청년 대원들이 전사하였다.

### 아. 6·25 전쟁과 그 이후의 속초

#### 1) 6·25 전쟁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의의 남침을 감행하였다. 속초는 동해안의 국군 전선 돌파를 명령받은 인민군 제5사단의 진격 코스가 되었고, 전쟁 초기에는 접전지역이 아닌 인민군의 후방 보급 루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병력과 장비가 모자라는 국군은 부득이 낙동강을 저항선으로 하는 지점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유엔이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였다.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듯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 2) 속초의 수복(收復)

속초의 수복은 한국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의 진격에 의해 이루어졌다. 38선 진격이 결의되자 제1군단장은 9월 30일을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 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제3사단은 1950년 10월 1일 양양 38선에서 북한 공산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국군은 민족의 분단선을 무너뜨린 이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동해와 태백산맥은 조국 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첫 진격의 장으로 전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이에 양양군민은 1950년 10월 2일을 기하여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도 자치위원회를 결성하여

행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안 확보를 위하여 읍면에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치안대는 국군과 합동으로 패하여 도망가는 북한 공산군을 논산리(지금의 조양동) 앞뜰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 3) 북한 주민의 월남

국토의 분단은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왔다. 1946년부터 1·4후퇴까지의 기간 중 북한지역에서 자유를 찾아 남하한 월남민은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속초에 거주하는 함경도 사람들은 아직도 일명 아바이마을(청호동)이라는 집단촌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통일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32〉 청호동마을 모습(1954년)



〈사진33〉 청호동과 수로 일대 전경(1954년)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분단의 쓰라림을 뼈저리게 느끼는 월남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속초에는 실향민들의 염원이 담긴 수복기념탑이 세워져 망향의 숨결을 달래고 있다. 6·25전쟁이 종전되고 속초 지역이 수복된 지 3년 만인 1954년 5월 10일, 당시 1군단과 속초읍, 그리고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수복기념탑을 세웠다.

1983년 동해안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수복기념탑은 파손되기도 했다. 하지만 범시민적으로 수복기념탑복원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성금 모금으로 그해 11월, 수복기념탑은 다시 복원되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34〉 최초의 수복기념탑



〈사진35〉 복원 후 수복기념탑

출처: 『속초문화원』

#### 4) 속초시의 승격

일제강점기 후기에 오면서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됨에 따라 청초호에 인접한 속초가 커져서, 1937년 7월 1일 면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42년 10월 1일 속초읍으로 승격되었고,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 있다가 6·25동란으로 수복되어 1951년부터 군정이 실시되면서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가 편입되었다. 그 후 1954년 11월 17일 ‘수복 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하여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되었다. 이때 속초리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5구와 6구가 신설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6호에 의해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호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외 조양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과 더불어 12개 동이 되었다.



〈사진36〉 속초시제 실시 경축 기념대회



〈사진37〉 속초시청사 준공 후 전경

출처: 『2021 속초도시변천사Ⅱ』

#### 5) 현재의 속초

1963년 시로 승격된 이래 속초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행정구역은 1998년 동 통폐합으로 13개의 동에서 8개의 동으로 조정되어 법정동 13개 동, 행정동 8개 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속초시 인구는 82,781명으로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에 이어 5번째로 인구가 많다.

속초시의 면적은 105.76km<sup>2</sup>로 강원도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전체 면적의 53.2%가 국립공원 설악산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설악산을 끼고 있는 속초는 한국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1999년에는 강

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50일간 국내외 관광객 226만 명이 박람회를 관람함으로써 강원관광의 위상을 빛낸 바 있다. 또한 2022년 10월 18일에는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이 엑스포 광장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99분 만에 주파하는 이 철도는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대한민국의 문화·관광·교통의 중심 도시 속초의 역할이 더욱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38〉 19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출처: 『속초의 역사와 문화』



〈사진39〉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  
출처: 『속초시정소식지 '속초홀릭'(22년 11월)』

## 2. 속초의 문화재

### 가. 문화재

####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물, 즉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따라서 한 민족이 생활하면서 생성·발전시켜 온 모든 유·무형의 산물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 2) 문화재의 종류

〈표1〉 문화재의 종류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	<p>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공연·예술</li> <li>-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li> <li>-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li> <li>-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li>-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li> <li>- 구전 전통 및 표현</li> <li>-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li> </ul>
기념물	<p>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li> <li>-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li> <li>-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li> </ul>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나. 속초시의 문화재

### 1) 속초시 문화재 현황

속초시의 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13건, 강원도 지정문화재 10건, 강원도 문화재자료 8건이 등록되어 있다.

〈표2〉 속초시 문화재 현황(최종 수정일 2022.5.30. - 속초시청)

국가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국가무형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민속 문화재
13	.	5	.	1	5	2	.
강원도 지정문화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10	8		2	.			.
강원도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8	8						

※ 문화재자료 : 문화재보호법 제70조 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닌 각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뜻한다.

### 2) 속초시 문화재 목록

〈표3〉 속초시 문화재 목록

지정별	지정 구분	지정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보물	속초향성사지3층석탑	속초시 설악동 산24-2	1966.08.25.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2011.09.05.
		속초신흥사목조지장보살삼존상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2012.02.22.
		속초신흥사극락보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2018.06.04
		제진언집 목판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9.03.06
	사적	속초조양동유적	속초시 조양동 1529 외 1필지	1992.10.10.

지정별	지정 구분	지정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설악산비룡폭포계곡일원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설악산토왕성폭포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설악산울산바위	속초시 설악동 산40 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013.03.11.
		설악산비선대와 천불동계곡일원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설악산공룡능선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천연 기념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속초시 설악동 산20 외 인제군,고성군,양양군	1965.11.05.
		속초설악동소나무	속초시 설악동 20-5, 15-21	1988.04.30.
강원도 지정 문화재	유형 문화재	속초신흥사목판	속초시 설악산로 1096(신흥사유물전시관 내)	1971.12.16.
		속초김중우가옥	속초시 도문동 1186	1985.01.17.
		속초신흥사보계루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1985.09.13.
		속초신흥사금고	속초시 설악산로 1096(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속초신흥사동종	속초시 설악산로 1096(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속초신흥사안양암 아미타회상도	속초시 설악산로 1096(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속초신흥사명부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2011.12.16.
		속초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	속초시 영랑호반길 69-2(동명동 579-2)	2020.8.21.
	무형 문화재	속초도문농요	속초시 상도문2길 53-8(도문동 33-4)	2007.02.23.
		속초사자놀이	속초시 아바이마을1길 86-1(청호동 550-13)	2019.03.08.
강원도 문화재 자료	문화재 자료	속초신흥사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1984.06.02.
		속초김근수가옥	속초시 도문동 1504	1985.01.17.
		속초신흥사부도군	속초시 설악동 산26-3	1991.02.25.
		속초노학동3층석탑	속초시 노학동 산433	2000.01.22.
		속초매곡오윤환선생생가	속초시 도문동 195	2006.07.28.
		속초신흥사칠성도	속초시 설악산로 1096(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속초신흥사청동시루	속초시 설악산로 1096(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5.11.06.
		속초보광사현왕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69-2(동명동 579-2)	2018.10.26.

### 3) 지정별 문화재

#### 가) 국가 지정문화재

속초 향성사지 3층석탑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보물	속초시 설악동 산24-2	1966.08.25.
 <p>신흥사 사적에 의하면 향성사는 신라 고승 자장이 652년(진덕여왕 6년)에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지는 현존 신흥사의 전신이다.</p> <p>이 석탑은 2중 기단 위에 3층의 몸돌을 세운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몸돌과 지붕돌은 각기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p> <p>각 층 몸돌에는 양쪽으로 모서리 기둥을 지붕돌 아래로는 5단의 지붕돌받침을 조각하였고, 탑 꼭대기에 있던 상륜부[탑의 맨 위에 놓인 장식]는 모두 없어졌지만 전체적으로 9세기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다.</p> <p>처음 해체 수리할 때 3층 탑신석 중앙에서 사리 구멍을 확인하였으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p> <p>석탑의 높이가 4.33m로 장엄하면서도 간결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속초 문화유산, 속초시립박물관』</p>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보물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2011.09.05.
 <p>속초 신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교 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p> <p>이 불상을 조각한 무염은 대화사 현진과 함께 17세기 전·중엽 경을 대표하는 화사로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를 시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p> <p>전체적으로 이 삼존불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체의 불필요한 주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지만,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준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의 조각적 역량이 흠뻑 담겨 있는 작품이자 그가 조각한 작품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 주는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속초시립박물관』</p>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보물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2012.02.22.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축원문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불상 제작에 있어 조성화원과 화성화원, 즉 불상의 제작과 개금·개채를 분리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시 불상의 제작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만든 무염은 대화사 현진, 청헌 등과 함께 17세기 전·중엽 경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와 그의 조각 경향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준다. 또한 상체는 부드러운 선묘로, 하체는 강직한 선묘로 처리하여 예배자로 하여금 종교적 긴장감을 차츰 고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의 조각적 역량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작품이다. 비록 시왕권속들이 남아 있지 않아 완전한 구성 체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높은 종교적 감성과 조각적 완성도를 간직하고 있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보물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2018.06.04.



이 건물은 신흥사의 본전(本殿)으로 1647년(인조25)에 처음 지어졌으며, 1750년(영조 26)과 1821년(순조 21)에 크게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잘 다듬어진 화강석으로 쌓은 높은 장대석[네모지고 긴 석재로 기단에 가로 길게 놓은 돌] 기단위에 자연석으로 된 주춧돌을 놓고 그랭이질 한 후, 다시 그 위에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둥근 기둥을 세웠다. 3출목의 공포에 양서를 조성하고, 주두, 소로와 첨차 등에서 굽받침이 없이 아랫부분이 직면으로 비스듬히 잘린 모습으로 조선시대 후기 건축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면 중앙의 꽃살 문양문과 협칸의 빗살문양 문이 돋보이며, 1761년(영조 37)에 다시 조성된 3계 5단의 전면 석계단은 진경시대의 조각 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맷돌을 용 모양으로 마감하고, 바깥 면에는 귀면 형태의 나어두와 삼태극 및 비운문 문양을 양각하고, 위아래로 안상[계단 면석에 팔면의 오금곡선으로 안쪽을 파낸 모양]대를 둘렀다. 사찰에 잘 쓰이지 않는 다양한 문양으로 만들어졌으며 조각 수법이 뛰어나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제진언집 목판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보물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9.03.06



‘제진언집 목판’은 1658년(효종 9) 강원도 신흥사에서 개판한 목판으로, 『불정심다라니경』, 『제진언집목록』, 『진언집』 등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판각은 1569년(선조 2)에 안심사(安心寺)에서 이루어졌으나 안심사본 목판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흥사 중간 목판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한다. 한글, 한자, 범어(梵語)가 함께 기록된 희귀한 사례에 속하며 16~17세기 언어학 및 불교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또한 신흥사가 동해안 연안과 가까이 인접해 있어 수륙재 등과 관련된 불교의례가 빈번하게 시행된 사실을 감안할 때 강원도 지역의 신앙적 특수성과 지리·문화적인 성격, 그리고 지역 불교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원천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속초 조양동유적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사적	속초시 조양동 1529 외 1필지	1992.10.10.



속초시의 남쪽 청초호 가까운 곳에 있는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터이다.

1992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은 이 지역에서 모두 7채의 움집터와 당시의 무덤이었던 고인돌 2기를 함께 조사하였다.

집터는 풍화암반층을 40~60cm 깊이로 파내고 바닥에는 고운 진흙을 얇게 깔아 만들었는데 약 23~76㎡ 규모의 약간 긴 네모꼴로 처리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당시의 사람들이 약 7~23평 크기의 움집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집터에서는 당시의 생활 모습을 밝혀 주는 많은 토기와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집터가 발견된 구릉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고인돌에서 발굴된 부채꼴 모양의 청동끼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예가 없어, 이 지역 선사문화 연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이곳은 주택단지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이와 같은 중요성이 인정되어 사적으로 지정, 보존하게 되었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설악산 비룡폭포계곡 일원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명승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p>비룡폭포는 외설악 지역을 배수하여 동해로 흘러 드는 쌍천의 지류가 화채봉의 북쪽 기슭에 만들어 놓은 폭포다. 비룡폭포는 토왕골계곡 하류의 육담폭포와 상류의 토왕성 폭포의 중간 지역에 있으며, 폭포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비경을 보여준다.</p> <p>비룡폭포의 높이는 16m, 폭포 경사도는 44°, 위치한 고도는 370m, 폭포의 너비는 16m이다. 비룡폭포는 기반암하천인 산지하천에 해당하는데 이는 설악산에 발달한 다양한 지형경관 중 하나이며, 설악산의 암질차이와 절리 발달은 귀면암, 울산암 등과 같은 기암을 형성하거나 절리방향에 따르는 차별침식으로 폭포, 구혈, 급류, 소등의 하천지형을 형성한다. 비룡폭포가 발달하고 있는 토왕골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오랜 세월을 걸쳐 용기, 풍화, 침식, 운반작용을 받아 폭포, 폭호, 뾰족한 암봉, 담소, 협곡, 암석 하상, 자갈 하상 등의 하식지형이 발달한 독특한 화강암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p> <p>출처: 『속초시립박물관』</p>		

설악산 토왕성폭포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명승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p>토왕성폭포는 외설악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적봉 남쪽 토왕골에 있다. 토왕성은 『여지도서』 『양양도호부』 고적조에 “토왕성(土王城)부(府)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으며, 성을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옛날에 토성왕이 성을 쌓았다고 하며, 폭포가 있는데, 석벽 사이로 천 길이나 날아 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양부읍지』에도 같은 기사가 실려 있는데, 모두 토왕성으로 되어 있다.</p> <p>토왕성폭포는 화채봉에서 흘러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 150m, 중단 80m, 하단 90m로 총 길이가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으로 하늘에서 비류하는 광경은 천상의 절경이다.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에 널어놓은 듯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폭포의 물은 토왕골을 흘러 비룡폭포와 육담폭포가 합류하여 쌍천으로 흐른다.</p> <p>출처: 『속초시립박물관』</p>		

설악산 울산바위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명승	속초시 설악동 산40 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013.03.11.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체로서 총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가 있어 근경이 훌륭하며, 시각적 풍경뿐만 아니라 예부터 ‘큰 바람 소리가 울린다’는 의미에서 ‘천후산’이라 불리고 있어 청각적 감상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원경도 빼어나 미시령 옛길 방면에서 보이는 경치가 웅장하고 탁월한 느낌을 준다.

울산바위는 화강암의 독특한 풍화양상으로 만들어진 기암절벽으로,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안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는 그 특유의 기복이 심한 산형이 주변의 다른 산체들과 비교되어 더욱 장엄한 모습을 보여준다.

울산바위 아래에는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유서 깊은 계조암과 신흥사가 있어 문화적 의미가 더하며, 계조암과 흔들바위 등지에서는 미립적인 풍화에 의한 타포니와 토르 같은 아름다운 미지형들도 나타난다. 울산바위에 대해서 주세붕, 최연, 허적 등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인들이 그 웅장함과 훌륭한 경치를 노래하였으며, 김홍도가 그린 실경산수화도 여러 편이 남아 있어 미술사적 명승의 가치 또한 있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명승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비선대라는 이름은 와선대에서 노닐던 마고선이라는 신선이 이곳에 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붙여졌다.

비선대는 예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다고 하며, 암반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특히「비선대(飛仙臺)」라 쓴 글자가 대표적이며, 『양양읍지』에 윤순이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비선대 뒤 미륵봉 중턱에 뚫린 길이 18m의 자연석굴을 금강굴이라 하며, 일찍이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했었다고 알려진다. 천불동계곡은 비선대에서 대청봉으로 오르는 7km의 계곡으로 설악의 산악미를 한곳에 집약하듯, 와선대를 비롯하여 비선대·문주담·이호담·귀면암·오련폭포·양폭·천당폭포 등 수려하고 빼어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자연 경관적 명승 가치가 뛰어난 계곡이다. 천불동이라는 명칭은 천불폭포에서 댄 것이며, 계곡 일대에 펼쳐지는 천봉만암과 청수옥담의 세계가 마치 ‘천불’의 기관을 구현한 것 같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바위와 암봉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는 범상치 않고 빼어난 천하의 절경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산악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리산 칠선계곡과 한라산 탐라계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계곡 중 하나이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설악산 공룡능선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명승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p>마등령에서 신선암까지의 능선을 가리키며, 공룡능선은 영동·영서를 분기점으로 구름이 자주 끼는 등 기상변화가 시시각각 변한다.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의 중심 능성이며, 내설악의 가야동계곡, 용아장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설악의 천불동계곡부터 동해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p> <p>공룡능선은 생긴 모습이 공룡이 용솟음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름이 휘감은 공룡능선의 모습은 마치 신선의 영역을 보는 듯한 초절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준다.</p> <p>출처: 『속초시립박물관』</p>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천연기념물	속초시 설악동 산20 외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965.11.05.
 <p>이곳은 총면적 4,950만 평으로 태백산맥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으로는 금강산을 거쳐 북한의 고원지대로 통하고, 남으로는 오대산, 태백산을 거쳐 차령산맥, 소백산맥과 연결된다.</p> <p>식물 분포상은 온대 중부의 대표적인 숲을 형성하고 있고 정상부 일대에서 보이는 고산식물군락은 지질시대의 기후 변천에 따른 식물의 이동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분포상 북방 계통의 남방한계를 이루며, 남방계통의 북방한계 지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p> <p>동물 분포상은 구만주아구(舊滿洲亞區)에 속하나, 표범, 산양, 반달곰, 잣까마귀, 솔새 등의 시베리아 아구적인 북방계의 동물들과 외눈이사촌나비, 후치령부전나비, 산부나비 등의 북방계의 곤충들도 서식하고 있다. 특히 멸종 위기의 크낙새, 산양, 사향노루, 까막딱따구리 등을 볼 수 있으며 물두꺼비도 다량 서식하고 있다. 또 설악산은 동서의 분수령 역할을 해 내설악과 외설악 간 어류의 분포가 뚜렷한 점으로 주목되는 중요한 지역이다.</p> <p>출처: 『속초시립박물관』</p>		

속초 설악동 소나무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천연기념물	속초시 설악동 20-5, 15-21	1988.04.30.
 <p>나무의 크기는 높이 17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 4.1m, 밑동 둘레 5.8m이며, 가지는 동서로 16m, 남북으로 19m 정도 퍼져 있다.</p> <p>지상 2.5m 부근에서 나무줄기가 3개로 갈라졌으나, 양쪽 2개는 죽었고 가운데 줄기만이 살아 있는 모습으로 나이는 확실하지 않으나,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p> <p>이 나무는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있으며, 지금까지 마을의 서낭당 나무로서 잘 보호받아 왔으며, 현재도 설악동의 상징수로 사랑받고 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 나무 옆에 돌을 쌓으면 오래 산다고 하여 소나무 앞에 큰 돌무더기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설악 관광로 개발로 돌무더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속초시립박물관』</p>		

## 나) 강원도 지정문화재

속초 신흥사 목판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유형문화재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1971.12.16.
 <p>경판은 불경을 찍어내던 각판으로, 나무 판에 도장 새기듯 불경을 새긴 것이다.</p> <p>설악산 신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경판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을 비롯하여 법화경 경판 일부, 다라니경 경판 일부와 기타 흠어져 있는 몇 매의 경판 등 모두 280매이다.</p> <p>이 가운데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3, 4쪽과 13, 14쪽의 경판 두 장이 빠져 있다.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문을 함께 싣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은 그림까지 그려 넣었다. 이 경판 끝장에 “순치(順治) 15년 강원도 양양부 설악산 신흥사 개간(開刊)”이라는 연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58년(효종 9)에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속초시립박물관』</p>		

### 속초 김중우 가옥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유형문화재	속초시 도문동 1186	1985.01.17.



구조는 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전통 민가 형식이다.

이 가옥은 18세기 중엽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며, 현 소유자의 부친 때부터 이곳에서 살아 오고 있다. 안채와 행랑채 그리고 부속 창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의 본채인 안채는 온돌 중심의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ㄱ’자 형태이다.

팔작지붕의 5량 가구 짜임새이며, 평면 배치는 오른쪽에 부엌이 있고 앞쪽에는 마루 2칸과 사랑방이 놓이고 뒤쪽에는 안방, 뒷방, 뒷사랑이 있다.

부엌에 이어져 있는 외양간은 본채 지붕과 같은 높이로 1칸 돌출되어 있으며, 상부는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연석 쌓기 기단과 투박하게 다듬은 목재는 독특한 멋을 내고 있다. 겹집 형태이며 마구간이 본채에서 돌출된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 속초 신흥사 보제루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유형문화재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1985.09.13.



중, 경판이 보관되어 있고 몇몇의 현판과 중수기가 걸려 있다. 이 중에는 이 사찰이 왕실의 원찰(願刹)이었음을 보여주는 현판도 걸려 있다.

보제루는 1770년(영조 46)에 세워진 것으로, 장대석[네모지고 긴 석재로 기단에 가로로 길게 놓은 돌]으로 2단을 쌓은 기단 위에 정면 7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이 건물은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선방과 요사채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을 둘러싸고 있어 사찰 중심 영역의 공간성을 확보해 준다.

건물의 하부는 기둥으로만 구성된 열려 있는 공간으로 극락보전으로 가는 통로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규모가 커진 모습을 보여주는 보제루 내에는 법고와 목어, 대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 속초 신흥사 금고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유형문화재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속초 신흥사 보제루 내에 보관되어 있으며, 금고의 측면 음각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 1788년(정조12)에 제작되었다. 금고의 앞면에는 3개의 용기선으로 동심원을 그려 공간을 구획하였다. 중심에는 당좌가 있고 그 밖에 특별한 장식은 없다. 뒷면은 뚫려 있으며, 안쪽에는 신(神)'자의 글자가 있다. 이는 신흥사의 의미를 담아 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주조 기술과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옆면에는 금고의 조성 기록이 음각되었는데, “1788년(정조 12)에 60근으로 신흥사 금고를 제작하였다[신흥사 건륭오십삼년무신칠월 일 주중육십근(神興寺乾隆五十三年戊申七月日鑄重六十斤)]”는 내용이다. 함께 소장되어 있는 신흥사 범종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유물이다.

신흥사 금고는 특별한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이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옆면에 제작 연대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특히 신흥사 동종의 명문 내용과 일치하여, 일괄적으로 조성된 사찰 유물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불교 공예품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속초 신흥사 동종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유형문화재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속초 신흥사 보제루에 걸려 있는 동종으로 1788년(정조 12)에 제작되었다. 종의 몸체 하단에는 양각의 단문과 음각의 장문으로 새겨진 명문이 확인된다. 양각의 명문은 일부 글자의 판독이 어렵지만, 1656년(효종 7)과 1748년(영조 24)의 연대가 언급되었다. 또한 음각으로 장문의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1788년(정조 12)에 종과 금고 등을 주조했다는 기록이다. 이 내용은 신흥사 보제루에 함께 소장된 금고의 명문과 제작 연대가 일치한다.

두 종류의 명문을 종합하면, 신흥사에서 동종이 처음 주성된 시기는 1656년(효종 7)이며, 이후 1748년(영조 24)에 다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88년(정조 12)에 재차 동종을 주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참여한 장인은 김봉태와 최해중이다.

신흥사 동종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명문이 남아있어 제작 연대, 주조 경위, 시주자, 장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흥사 금고의 명문 내용과도 일치하여, 일괄적으로 조성된 사찰 유물이라는 점에서 18세기 불교 공예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속초 신흥사 안양암 아미타회상도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유형문화재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신흥사의 부속 암자인 안양암에 소장된 불교 회화 작품이다.

서방극락세계를 주재하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여러 권속들이 배치된 군도 형식의 아미타회상도로, 화기를 통해 1874년(고종 11)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세로 169.0cm, 가로 215.0cm 크기의 종이에 채색을 베푼 작품이다.

그림의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화기를 통해 조성 연대와 금어(金魚) 원명공우(圓明巨祐), 서봉응순(西峰應淳), 편수(片手) 용하(裕夏), 법찬(法讚), 체훈(體訓), 철유(喆有), 광엽(廣暉) 등 제작에 관여한 화승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19세기 작품으로 평가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속초 신흥사 명부전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유형문화재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2011.12.16.



신흥사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모시기 위한 불전으로 1737년(영조 13)에 창건되었으며 1797년(정조21)과 1975년에 중수되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5량가 구조로 출목 2익공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에 맞배 기와지붕이다.

신흥사 명부전은 주불전인 극락보전의 동쪽에 남향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명부전 내부 중앙에는 단집을 갖추고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좌우목조도명존자입상과 목조무독귀왕입상을 봉안했으며, 지장보살 후면에는 지장탱화를 걸었다.

건물 내부 천정은 중도리 상부에서 우물천장을 구성하고, 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 빗천장을 대었다. 이는 대들보를 드러내고 건물의 높이를 확보하려는 의도였으나, 다양한 천정 마감으로 장식적인 효과도 만들어냈다. 정면 여칸과 협칸에는 꽃살 창호를 설치하여 장식하였으며, 좌우 협칸의 창호는 폭과 높이를 줄여 여칸과 차별성을 두었다.

신흥사 명부전은 전체적으로 18세기 사찰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나, 그중에서 공포 형태와 창호 구성이 독특하다. 이는 18세기에 유행하였던 것으로 시대성을 반영하므로 동시대의 건축 양식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유형문화재	속초시 영랑호반길 69-2 (동명동 579-2)	2020.08.21.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1654년 내시 나업의 부인 한씨가 죽은 남편을 위해 금강산 안양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발원한 작품으로, 조각승 초안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이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이다. 지장보살은 높이가 46cm, 무릎 너비가 30.5cm로. 높이와 폭이 1:0.6의 신체 비례를 가져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기년명 보살상에 비하여 옆으로 퍼진 느낌이 든다.



불상 내에서 발견된 복장물 가운데 조성발원문, 불교 경전 등은 조선시대 불교사와 정치사 연구에 중요한 문헌 자료들이다. 특히 복장물 중에 [제불명칭가곡]은 15세기 명나라에서 조선 왕실에 보낸 경전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번 언급되었다.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속초도문농요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무형문화재	속초시 상도문2길 53-8 (도문동 33-4)	2007.02.23.



속초도문농요는 쌍천을 따라 형성된 넓은 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농경 마을인 도문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요로 영북 지방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농요들이 사라져 가는 실정 속에서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잘 보존되어온 농요라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해 지정 가치가 크다.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속초사자놀이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무형문화재	속초시 아바이마을1길 86-1 (청호동 550-13)	2019.03.08.
 <p>속초사자놀이는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희된 사자놀이가 넘어온 이주 민속의 하나로 그 원형이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귀중한 사례이다.</p> <p>속초사자놀이는 정월대보름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마을공동체와 함께 했던 마당놀이와 동네 돌기(길놀이)를 재현하고 있다. 벽사진경의 의미와 가가호호를 순회하며 놀이를 펼치는 연희적 요소가 강조되어 있다.</p> <p>속초는 실향민의 고향으로 함경도 민속문화와 언어가 중단되지 않고 계승되고, 함경남도 출신 최다 집거지인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중심으로 실향민 1세와 2세대들이 합심하여 사자놀이를 전승시키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p>		

## 나) 강원도 지정문화재

속초 신흥사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문화재자료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설악동 170)	1984.06.02.
 <p>이 절은 652년(진덕여왕 6) 자장율사가 향성사를 처음 지은 것에서 비롯된다. 이때에는 설악산 동쪽, 즉 이 곳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이 사찰은 698년(효소왕 7) 소실되었다.</p> <p>701년(효소왕 10)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금의 내원암 터에 사찰을 다시 짓고 선정사라 이름을 바꾸었으나, 1642년(인조 20) 화재를 당하자 그 2년 뒤에 영서, 해원, 연옥 세 스님이 현재의 터에 새로 짓고 신흥사라 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사찰 내부에 많은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고 수리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1971년 일주문, 사천왕문 등이 복원되었으며, 1994년 중전의 “신(神)”자를 “신(新)”자로 바꾸어 “신흥사(新興寺)”로 하였다.</p> <p>일주문을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부도와 비석들이 있으며, 세심천에 놓인 세심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 사천왕문이 나타나고 그 뒤에 신흥사의 중심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사찰의 배치는 극락보전과 보제루, 사천왕문이 일직선상에 위치하여 중심축을 구성하고, 극락보전의 정면 중정 좌우에 적묵당과 요사채가 있는 마당 중심의 배치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배치는 조선 중엽 이후에 세워진 조계종 사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탑은 새롭게 조성되지 않았다. 극락보전 왼쪽에는 명부전이, 오른쪽에는 종각이 있고 앞에는 괘불대가 남아 있으며, 명부전 뒤에 삼성각이 있다. 극락보전 부속 암자로는 계조암과 내원암이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속초시립박물관』</p>		

속초 김근수 가옥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문화재자료	속초시 도문동 1504	1985.01.17.



이 가옥은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의 함경도형 온돌 중심 겹집에 마루가 수용된 형태로, 기와에 ‘도광 5년(1825)’과 ‘건륭 27년(1762)’의 명문이 몇 년 전 발견되었으나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다.

홀처마 팔작기와지붕 형태의 가옥으로 대대로 함평 이씨가 살았으나 30년 전 현 소유자가 매입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평면은 부엌과 본채 지붕에서 이어져 내려와 돌출된 마구간을 두고 앞쪽에 우물마루 [넓은 널을 짧게 잘라 끼워 놓은 마루] 2칸과 사랑방이 있고, 뒤쪽에 안방, 아랫방, 뒤사랑이 있다. 뒤사랑에는 가묘를 모시는 벽장이 있으며, 마루에는 산간지방의 주거생활에서 볼 수 있는 ‘코클’이 있다. 원래는 집의 전면에 행랑채, 곳간채, 사랑채가

있는 큰 가옥이었으나, 해방 전후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현재는 안채만 남아있다. 풍수에서는 ‘뱀’의 형국에 해당하는 명당이라고 전한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속초 신흥사 부도군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문화재자료	속초시 설악동 산26-3	1991.02.25.



부도는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넣은 원당 모양 또는 석종 모양의 석조물을 일컫는 말로, 승탑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부도군은 1644년(인조 22)에 신흥사가 중건된 이후 역대 고승들의 부도를 같은 장소에 조성한 전형적인 부도군으로 19개의 부도가 있다.

대원당탑 등 3개가 원당 모양의 부도이며, 성곡당 탑 등 16개가 석종 모양인데,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은 12개이다.

부도와 함께 신흥사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신흥사 사적비를 비롯하여 강세황이 쓴 용암당대선사비 등 6개의 비석이 있는데, 1764년부터 1827년 사이에 세워진 것이

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 속초 노학동 3층석탑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문화재자료	속초시 노학동 산433	2000.01.22.



이 석탑은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석탑으로, 1층 탑신과 지붕 돌은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2층 지붕돌과 3층 탑신, 3층 지붕돌과 노반[탑의 꼭대기 층에 있는 지붕 모양의 장식]은 각각 1석으로 조성되었고, 2층 탑신은 없어졌다.

탑의 가장 큰 특징은 1층 탑신의 4면에 사방불을 조성한 점이다. 연꽃 받침 위에 원형 머리 빛과 몸 빛을 갖춘 좌상을 조각하였는데,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형상을 알 수는 없지만 안정감 있게 돌을새김 하였다.

강원 영동지방의 석탑 중에서 사방불이 조각된 귀중한 석탑으로, 조성 수법으로 볼 때 고려시대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의 높이는 1.8m이다. 석탑을 중심으로 약 200평의 대지가 마련된 점과 기와 조각과 석축이 있는 점으로 보아 암자 터로 추정된다. 신흥사의 부속 암자인 소림암 터라고도 하지만 현 위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 속초 매곡 오윤환 선생 생가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문화재자료	속초시 도문동 195	2006.07.28.



이 가옥은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 함경도형 온돌 중심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평면의 부엌 뒤 쪽으로 일자형의 발들이 연결되어 T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 본채 전면은 머름대와 함께 현대식 미닫이 창호가 사랑방에서 마루까지 달려 있다.

뒷마당에는 증축한 공간과 창고가 있으며 창고의 상부는 장독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구간 벽체는 판벽으로 짜여 있고 본채 지붕에 이어서 내림 지붕으로 낮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안방에는 할머니가, 뒷방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하였고 뒷방에는 뒷마루가 뒷 후원 쪽으로 나와 있어 잘 꾸며진 후원을 거닐게 하였다. 사랑방에는 조부가 뒷사랑에는 손자가 생활하였고 뒷방에는 며느리가 뒷 뒷방에는 딸들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집 주위는 돌담이 둘러 있으며 장대석 기간(H=250mm)에 200mm 각기둥을 세운 팔작기와지붕 형태의 150~180년 정도 된 가옥이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 속초 신흥사 칠성도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문화재자료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료이다.

칠성도는 북극성을 상징하는 칠성광 여래를 주불로 일광, 월광보살과 주변에 복두칠성인 일곱 분의 여래가 구성된 불화이다. 칠성신앙은 복두칠성과 황도 28수 등 밤하늘의 별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고유의 성수 신앙이 불교와 합쳐진 것으로 한국 불교의 독특한 면을 보여준다.

신흥사 칠성도는 19세기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조성된 칠성도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른 작품으로 인물의 준수한 조형감과 세련된 붓의 표현 기법을 보여준다. 특히 불화 하단의 시주자 명단에는 제작에 동참한 수많은 시주자들과 함께 14인의 계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회기는 일반 신도로 구성된 계원들의 활동이 친목 도모에만 그치지 않고 불화 제작 시주에도 함께 참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 속초 보광사 현왕도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문화재자료	속초시 영랑호반길 69-2 (동명동 579-2)	2018.10.26.



보광사 현왕도는 화사 금전, 재준이 발원하고 화원 송암대원, 법인, 삼여, 금어 원명공우가 공동으로 1863년에 제작하였다. 보광사 현왕도는 조성연대와 작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19세기 중반 강원도 지역의 중요한 작품이다.

보광사 현왕도는 비단바탕에 진채색으로 현왕을 중심으로 권속이 좌우대칭의 원형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현왕도는 사람이 죽은 뒤 3일 만에 죄를 심판하는 현왕과 그 권속을 그린 불화이다. 화면의 상단에는 8쪽의 병풍을 배치하였다. 현왕은 화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색의 화문장식 깃이 달린 붉은 도포를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현왕의 좌우로는 천녀와 동자가 있다. 화면 중간 부분에는 대륜성왕과 전륜성왕을 배치하였고, 그 아래 판관과 녹사를 배치하였다. 적색과 녹색, 청색,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하였다. 현왕도는 전체적으로 얇은 먹선으로 매우 세밀하게 그려졌으며 중간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절제된 모습이 엿보인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 속초 신흥사 청동시루

지정구분	소재지	지정일자
문화재자료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5.11.06.



시루 형태는 아래쪽에서 상부로 올라가면서 완만하게 넓어지고, 구연부에는 한 단의 턱이 있으며, 약간 외반된 이중 구연을 지닌 원통형이다. 시루 내저의 투조는 중심에서부터 3개의 동심원을 두고 수레바퀴살과 같이 구획을 하여 약간의 장식성을 보이고 있다. 외부 몸통 부분에는 약간씩 사이를 두고 음각으로 5개의 횡선이 둘러져 있으며 2개의 손잡이가 좌우에 각각 부착되어 있다. 특히 시루의 구연단에는 얇은 횡대를 두른 후 그 아래에 타정(打釘) 수법으로 “襄陽雪岳山神興寺□上室 鑄銅道光四年甲申五月日買□奠百斤都監□玄別坐廣□”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의 내용으로 보아 이 시루는 양양 설악산 신흥사에서 1824년(도광4) 왕실의 제사를 위해 청동 백근을 주조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루는 신흥사 유물 중에서도 왕실과 관련된 사격과

사세를 알려주는 자료 중에 하나로, 명문에 있는 도광 4년은 신흥사가 본격적으로 왕실의 원찰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던 때이다. 따라서 이 청동시루는 왕실의 제사인 국기일과 관련된 의식에 필요한 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흥사 보제루에는 1775년 쓰여진 국기일 현판이 보존되어 있고, 영조와 원비인 정성왕후(1692~1757)의 기일이 기록되어 있다. 1803년 부충이 쓴 신흥사 용선전기(龍船殿記)에는 신흥사가 열성조의 위패를 봉안한 사찰이라고 하였으며 국기일 현판에 영조 승하 후 후기로 적어 넣은 것으로 보아 왕실 원찰로서 기능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특히 왕실의 역대 위패를 모신 용선전 건립을 계기로 정조의 추복사찰이 되었다. 신흥사 청동시루는 조성 당시의 사격과 사세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시루는 보통 창사 연혁이 오랜 절에서 가끔씩 발견되는 유물이며 그중에서도 청동시루는 국가나 왕실의 제사 의식을 봉행하던 왕실 원찰에서 전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왕실의 원찰 기능을 하던 사찰에 소장 되어 있는 청동시루는 조선시대 국가의 제사에 대한 일을 맡아 보던 봉상시의 내력과 업무를 정리한 책임 태상지에 실린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태상지에는 김으로 곡식을 찌는 시루는 길이 3척으로 밑바닥은 둥근테를 가로지른 사선과 함께 투공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 1

## 바로 쓰는 수업자료(교사용) 속초의 역사를 찾아서

주제	역사 탐방 체험학습	장소	속초 시립박물관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초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속초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속초만이 가진 인문·환경적 특징을 알고, 그 특징이 반영된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li> </ul>	활동형태	모둠활동 개별활동
준비물	▷ 카메라(휴대폰), 필기도구	소요시간	120분

### ▷ 교사용 도움 자료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층: 속초 역사, 산촌 민속, 불교 문화</li> <li>▶ 1층: 어촌 민속, 실향민 문화, 기증 유물실 순서로 관람한다</li> </ul>
문화촌	▶ 속초의 자연환경과 가옥의 모습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발해역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 1층: 해동성국 발해실(발해 역사의 개관)</li> <li>▶ 1층: 발해 고분 전시실(발해의 특징적 고분 전시)</li> </ul>
야외공연장	▶ 공연 시간 미리 확인(필수 사항은 아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학습 전 박물관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관람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파악한다.</li> <li>- 모둠활동과 개별활동 시 소란스럽지 않게 활동한다. (모둠별로 개별 과제를 나누고 관람 후 자료를 모으고 토의하는 방식 추천)</li> <li>- 수업 주제와 관련된 시설은 박물관과 문화촌이지만 여유 시간을 확보하여 발해역사관과 야외 마당 관람도 가능하도록 한다.</li> </ul>
속초 시립박물관 누리집	<a href="https://www.sokchomuse.go.kr/main/">https://www.sokchomuse.go.kr/main/</a>



〈사진40〉 속초시립박물관 전경



〈사진41〉 속초시립박물관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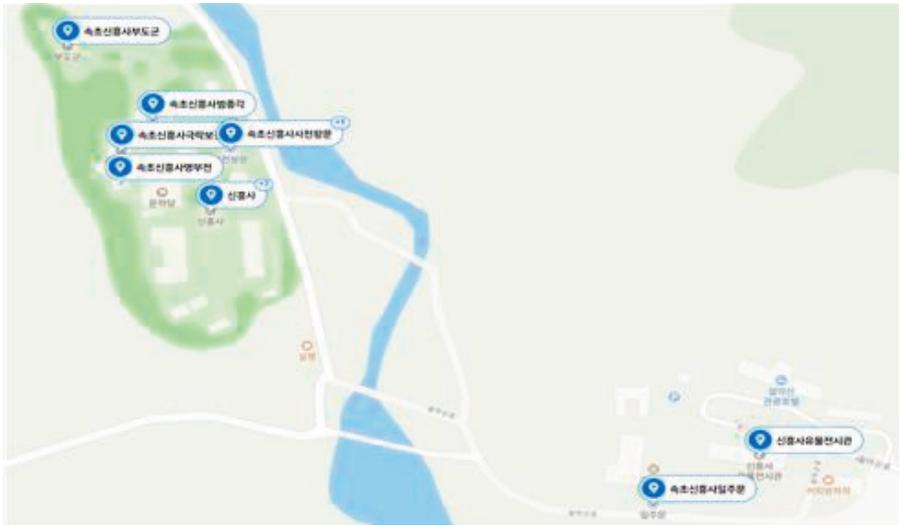
출처: 『속초시청』

## 2

# 바로 쓰는 수업자료(교사용) 신흥사 역사 지구 탐방

주제	신흥사 역사 지구 탐방 체험학습	장소	설악산 신흥사
학습목표	▷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강원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다수 지정된 신흥사 역사 지구를 탐방하며 이곳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알아 본다.	활동형태	모둠활동
준비물	▷ 카메라(휴대폰), 필기도구	소요시간	120분

### ▷ 교사용 도움 자료

탐방 코스	 <p>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신흥사유물전시관: 신흥사 목판, 금고, 동종, 아미타여래회상도, 칠성도, 청동시루 등</li> <li>▶ ② 신흥사 일주문→청동좌불상→사천왕문→보제루→극락보전(아미타여래삼존좌상)→명부전(목조지장보살삼존상)→범종각 및 약수터</li> <li>▶ ③ 신흥사 부도군</li> <li>▶ 탐방 코스는 모듈별로 달리하여 소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음</li> </ul>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 탐방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이 없도록 종교적 학습이 아닌 역사 탐방 학습임을 충분히 인지시킨다.</li> <li>- 전시관과 사찰을 탐방하는 체험학습이므로 관람 예절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지도한다. 특히 경내에서 정숙한 태도로 탐방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탐방 코스가 설악산 내부이므로 이동 중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li> <li>- 입장료 관련 사항을 미리 문의하도록 한다.</li> </ul>

## 참 고 문 헌

### 【기본사료】

-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  
『고려사(高麗史)』  
『관동읍지(關東邑誌)』  
『낙산사기(洛山寺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유기(東遊記)』  
『만기요람(萬機要)』  
『면세일반(面稅一般)』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향토지(鄉土誌)』  
『여지도서(輿地圖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천도교창건사(天道敎創建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해동지도(峴山誌)』

### 【단행본】

-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속초 도시변천사 I』, 속초문화원, 2020.  
\_\_\_\_\_, 『속초 도시변천사 II』, 속초문화원, 2021.  
김정환 외, 『속초의 근·현대사』, 속초문화원, 2004.  
\_\_\_\_\_, 『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 안내서』, 속초문화원, 2021.  
박영도, 『속초문화유산』, 속초문화원, 1998.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옛 문헌 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2001.  
속초뿌리교육 추진위원회, 『만화로 보는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속초문화원, 2000.  
속초시청, 2022 11월 속초시정소식지 『속초홀릭』, 속초시청, 2022.

## 【논문】

강원문화재연구소, 『속초 대포동 외옹치 유적 발굴보고서』, 2015.

예맥문화재연구원, 『속초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 【웹사이트】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https://www.heritage.go.kr/>)

속초문화원 홈페이지(<http://sokcho-cultu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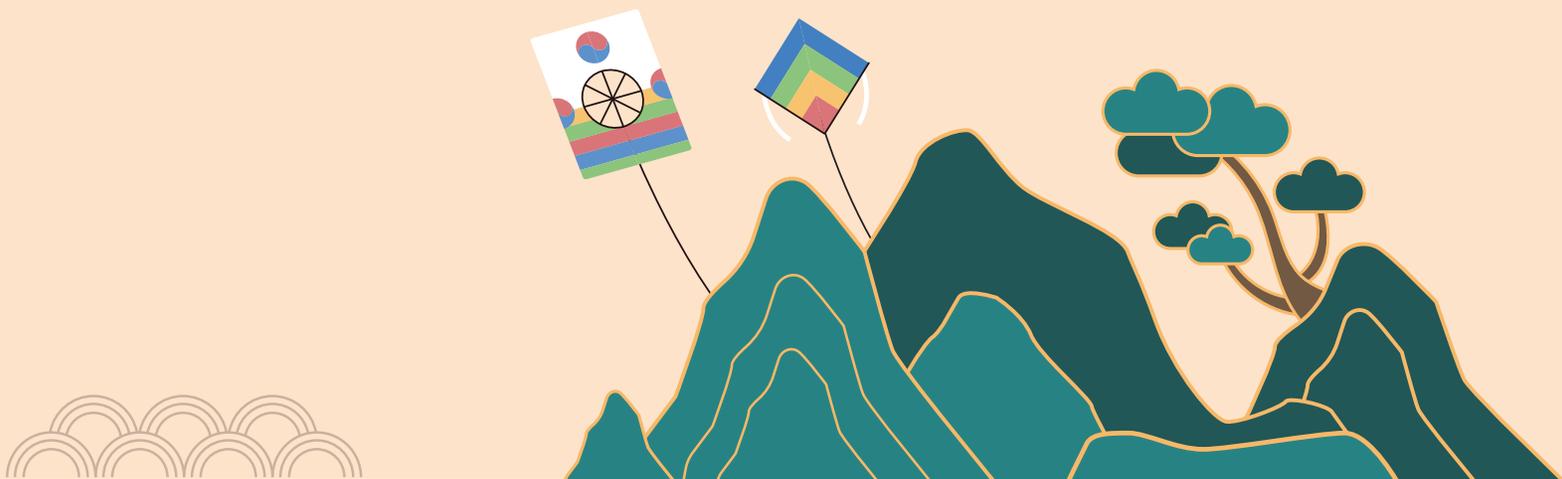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sokchomuse.go.kr/>)

속초시청 홈페이지 (<http://www.sokcho.go.kr/>)

속초아바이마을 홈페이지 (<http://www.abai.co.kr>)



# IV. 명산 설악산 이야기





# 1. 설악산 이야기

## 가. 설악산의 유래

예로부터 금강산·설악산·오대산을 삼 형제라고 불리왔으며 금강산과 설악산이 골격은 닮았지만, 심산정경(深山情景)의 맛은 삼 형제 가운데 설악이 으뜸이라 평가하였다. 금강산은 수려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나 수려하지 못하는데, 설악산은 수려한데다 웅장하다고도 평한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은 설악을 칭송하기를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그윽한 골속에 있으며 고운 양자(樣姿)<sup>1)</sup>는 물속의 고기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 하는 듯한 뜻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다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설악은 신라 때 소사(小祀)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칭으로 설산(雪山), 설봉산(雪峰山), 설화산(雪華山) 등으로 불렀는데 그 어원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가위 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지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암석의 색깔이 눈같이 하얗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유래,

셋째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의 ‘솔뫼’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악 명칭의 유래는 백설과 관련된 것, 암석과 관련된 것,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외면적 양태와 정신적 세계관을 포함한 명칭으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눈 설(雪)자를 사용한 ‘설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 나.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은 지리적으로 북위 38°5′25″~38°12′36″, 동경 128°18′16″~128°30′43″ 지역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한반도 중추인 백두대간 태백산맥의 중부에 위치하여 북으로 금강산을 거쳐 북한의 고원지대로 통하고 남으로는 오대산, 태백산을 거쳐 차령산맥, 소백산맥으로 통한다. 설악산은 남한에 있어서 한라산 및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으로, 그 웅장한 절경은 남한 제1의 명산이라 할 수 있다.

설악산은 1965년 11월 5일 천연보호구역(163.4km<sup>2</sup>),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됨으로써 주목받기

1) ‘양자(樣姿)’: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나 모습.

시작하였고 1969년 1월 21일 관광지(16.2km<sup>2</sup>)로 추가지정되었다. 그리고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을 확장하여 174km<sup>2</sup>로 넓어졌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이곳 설악의 산악, 기암, 폭포, 식물의 수려한 경관을 보호하고 전 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울산 바위, 저항령, 마등령, 화채봉, 대승령, 대청봉, 한계령, 가리봉, 점봉산 등의 고산지대를 자연보존지역으로 정하였다. 특히 이곳은 일체의 인공미를 가하지 않고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외의 산지는 자연환경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설악동 입구, 도문동, 척산 온천 일대와 한계리 옥녀탕 하류, 용대리 백담사 계곡 일대는 국립공원의 관문으로 공원의 보호와 주위 환경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보호 구역으로 설정, 그 토지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1971년 9월 18일에는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1972년 10월에 344km<sup>2</sup>의 전 지역을 국립공원 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설악산이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1982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카테고리 II(국립공원)으로 지정받았다.

## 다. 설악산국립공원 깃대종

 <p>눈잣나무<sup>2)</sup></p>	▶ 눈잣나무 <i>Pinus pumila</i>	
	· 영문명	Dwarf Stone Pine
	· 사는 곳	동북아시아에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는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이 유일함.
	· 생김새 특징	앞은 5개가 모여나 잣나무와 같으나, 잎 길이가 짧음. 잣나무와 달리 주로 누워서 자람.
	· 생태적 특징	설악산이 눈잣나무의 남방한계선임. 설악산 눈잣나무 집단의 크기가 작아 아쉬움이 크며,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음.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서식지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p>산양<sup>3)</sup></p>	▶ 산양 <i>Nemorhaedus caudat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국제적 멸종위기종 I (CITES). 천연기념물 제217호)	
	· 영문명	Korean Goral, Amur Goral, Long-tailed Goral
	· 사는 곳	한국, 연해주, 만주 지역.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산에 서식. 한국은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태백산 일대 서식.
	· 생김새 특징	몸길이 130cm 정도이며 암수 모두 뿔이 있고 목이 짧고 다리가 굵으며 발끝이 뾰족함.
	· 생태적 특징	다른 동물의 접근이 어려운 바위와 바위 사이, 동굴 등에서 2~5마리씩 모여서 생활함.
	· 먹이	바위 이끼, 진달래, 철쭉, 초본류 등

2) 눈잣나무' 사진은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

3) '산양 사진'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 라.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은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류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하나인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보호지역을 칭하며, 문화재보호법에서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천연보호구역은 지질 및 생물 다양성이 높고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특별한 생태계 서비스가 이루어져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단독으로 지정되기도 하지만 그 특성상 넓은 면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물, 식물, 지질 천연기념물 등이 함께 지정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천연보호구역은 1965년 4월 7일 홍도천연보호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1일 현재 총 11개의 천연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소재지	지정일	특징
홍도	전라남도 신안군	1965. 4. 7.	지질구조, 육상 및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여 우리나라 서남해의 섬들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홍도 전체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창녕 우포늪	경상남도 창녕군	2011. 1. 13.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습지로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경관이 탁월한 심미적 가치를 지닌 생물 지리적·생태학적·경관적 가치가 크다.
설악산	강원도 <sup>4)</sup>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1965. 11. 5.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존해야 할 지질·지형 및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며,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또한 전통 사찰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중의 하나이므로 설악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1982. 11. 20.	독도는 신라 지증왕(재위 500~514) 이래로 내려온 우리 영토로서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마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0. 7. 18.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난대성 해양 동식물이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에서 미기록종인 생물과 신종생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4) ‘강원도’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도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천연보호구역	소재지	지정일	특징
성산일출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0. 7. 18.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은 일출봉의 지형·지질·경관적 특성과 주변 1km 연안 해역의 식생이 우리나라 해양생물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신속 및 신종 해조류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향로봉·건봉사	강원도 인제군, 고성군	1973. 7. 13.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의 숲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동·식물상이 잘 보존된 대표적인 지역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대암산·대우산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	1973. 7. 13.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은 분지·습원 등 지형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기후조건이 특이하여 희귀 동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한 동식물의 남북한계·동서 구분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식물생태학·식물지리학적·식물분류학적 연구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상, 특이한 지형·지세 및 기후적 특성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학술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한라산	제주특별자치도	1966. 10. 12.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지형과 지질 및 식물·동물이 특이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많은 학술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한라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차귀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0. 7. 18.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은 주변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록되지 않은 종들 또는 신종 해산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학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미기록종과 신종 출현의 가능성이 큰 곳이며, 해산·동·식물 분포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니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문섬·밤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0. 7. 18.	문섬과 밤섬 천연보호구역은 경관이 아름답고, 세계적 희귀종인 후박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가 번식하는 남쪽 한계 지역이다. 또한 학술 가치가 큰 한국 특산 해산 생물 신종·미기록종이 다수 출현하는 곳으로서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2. 설악의 명승

### 가. 비선대

와선대에서 계류를 따라 약 300m 정도 올라가면 비선대에 이른다. 이곳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비가 많이 내리면 비선대 반석 위로 몇 번이나 꺾이는 폭포를 만드는데 그 광경이 흡사 천의 자락이 펼쳐이는 것 같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마고선녀가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였다 하며 이 설에 의해 비선대라 불린다. 봄이 오면 봄꽃의 냄새가 골짜기를 메우고, 여름이면 녹음의 신선미를 느낄 수 있으며, 가을이 되면 오색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눈꽃이 골짜기를 장식하니 과히 절경이다. 이곳의 절경은 금강산의 만폭동을 무색하게 하는 설악산의 가장 대표적 명승지로서 설악의 8경 중 하나에 속한다.



〈사진 1〉 설악산 비선대 일원

### 나. 울산바위

설악산 북쪽에 자리 잡은 울산바위(780m)는 둘레가 4km에 이르는 화강암 봉우리로서 30여 개의 봉우리가 만드는 울산바위의 그 거대한 웅장함과 기상은 찾아오는 관광객의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정상의 전망대까지 관광객을 위해 계단을 설치하여 오르기 쉽게 하였는데, 울산바위 정상에 서면 대청, 중청봉과 천불동계곡, 화채능선 등을 볼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속초 시가지뿐만 아니라 동해와 달



〈사진 2〉 설악산 울산바위

마봉, 학사평 저수지 일대, 청초호, 영랑호를 볼 수도 있다.

이 산에 대한 명칭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전해온다.

첫째, 우는 산, 울고 있는 산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이 산에 바위 구멍이 많아 산중에서 바람이 스스로 불어 나와 산이 울리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천후산(天吼山)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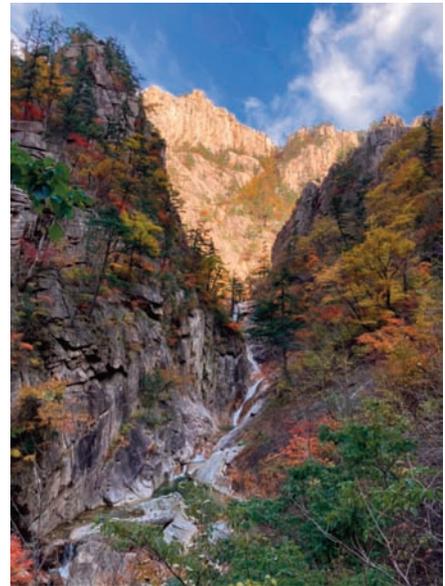
둘째, 거대한 바위가 마치 울타리처럼 우뚝 솟아 있으므로 한자어로 ‘울타리 리(籬)’자를 써서 이산(籬山)이라고 한다.

셋째, 조물주가 금강산(金剛山) 1만 2천 봉을 빗으려고 온 나라 잘생긴 바위를 모두 금강산에 모이도록 하였는데, 울산 땅에 있던 이 바위도 금강산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러나 워낙 덩치가 크고 몸이 무거워서 겨우 설악산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금강산 1만 2천 봉이 다 빗어진 이후였다. 그래서 이 바위는 설악산 기슭에 눌러앉고 말았는데 이 이후부터 울산에서 온 바위라 하여 전설적인 이름인 울산(蔚山)바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산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되는 16세기 중반의『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18세기 중반에 쓰인『여지도서』 양양 편에는 이산(籬山)으로 기록되어 있고『여지도서』간성(杆城) 편에는 천후산(天吼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속에서는 울암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속에서 전승되어 온 전설과 함께 울산바위로 고정되었다.

## 다. 천불동계곡

천불동계곡은 외설악 쪽의 비선대에서부터 대청봉에 이르는 8km의 중심 계곡으로 설악산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곳은 설악의 모든 절경이 이 천불동 안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지니고 있다. 천불동계곡은 설악동에서 와선대, 비선대, 문주담, 이호담, 귀면암, 오련폭, 천당폭, 양폭산장을 거쳐서 죽음의 계곡 직전에까지 이르는데, 계곡 주위로 하늘을 떠받드는 듯한 봉우리, 골짜기마다 걸린 수많은 폭포, 겨울보다도 맑은 연못 등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절경을 이룬다. 또한 봄의 야생화, 여름의 푸른 숲과 구름바다, 가을 단풍, 겨울의 눈 속에 핀 꽃 등이 계곡과 함께 사철 관광객의 흥취를 돋군다.



〈사진 3〉 천불동계곡 일원

## 라. 와선대

와선대는 천불동계곡을 찾아드는 입구, 신흥사로부 터 약 2.3km 거리에 있으며, 위로 500m 거리에 비선 대(飛仙臺)가 있다. 소나무가 울창한 가운데 자리 잡 은 천연의 암반대석으로 옛날 신선이 놀던 곳이라 한 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이 바위 위에 손톱이 긴 늙은 선녀인 마고선이 신선들과 함께 석대 위에서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서 동천의 아름다움을 즐겼다고 하는데 신선들이 누워서 경치를 감상했다 하여 와선대라 한다.



〈사진 4〉 설악산 와선대 일원

## 마. 금강굴

비선대 앞에 높이 우뚝 솟아 있는 3각 모양의 돌 봉우리를 미륵봉(장군봉)이라 한다. 그리고 미륵봉 중간 허리에 있는 길이 18m 정도의 작은 자연 석굴을 금강굴이라 한다.

굴 안의 넓이는 약 7평이나 되고 그 안에는 자비스러운 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어 믿음이 돈독한 불자들에게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 도장이 된다. 석굴 입구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빛나는 광 경이 전개되는데 멀리 동해의 창파(蒼波)가 보이고, 겹겹이 쌓인 석벽처럼 보이는 천불동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그 옛날 신라 때부터 원효, 의상 등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바. 토왕성 폭포

토왕골에 있는 폭포로서 가장 아래에는 육담폭포, 중 간에 비룡폭포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토왕성 폭포 는 맨 위에 있는 외설악을 대표하는 폭포로 겨울철에 는 빙벽훈련장으로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토왕성 (土王城)이란 이름은 과거에 산성이 폭포 부근에 있었 던 관계로 유래된 것 같다.



〈사진 5〉 설악산 토왕성 폭포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3. 지형과 지질

#### 가. 설악산의 지형

##### 1) 산계

설악산맥은 태백산맥의 일부로서 그 북부에 위치하며 설악산 북북서방으로 금강산(해발 1,638m)이 있고, 남남동방 약 40km 되는 곳에 황병산(해발 1,407m)이 있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해발 1,708m)은 태백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금강산보다 70m가 더 높다. 다만 그 주위에 산악이 광범하지 못함이 금강산보다 떨어지나 경관에 있어서는 남한에서 최고이다.

설악산맥을 포함한 태백산맥은 대체로 남북으로 뻗으며 한반도의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 있다. 설악산맥의 지리적 위치는 서해안에서 약 200km이고, 동해안에서 약 15km로 이 두 거리의 비는 약 13 : 1이며 따라서 설악산의 서쪽 산지는 저각도로 완만하게 기울어졌고 동쪽 산지는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설악산맥의 능선을 경계로 하여 그 서쪽을 내설악, 동쪽을 외설악이라고 호칭하는데 외설악 중 오색리 계곡 즉 한계령에서 대청봉을 거쳐 관모봉(해발 874m)에 이르는 능선의 남쪽을 남설악이라 호칭하기도 한다.

설악산의 주요 능선으로는 대청봉을 기점으로 하여 북방 1.7km 지점의 무너미고개(해발 1,060m), 여기에서 북서방 1.5km 지점의 1,275m 봉, 여기에서 다시 북서방 2km 지점의 마등령(해발 1,326.7m), 여기에서 북서로 2.5km 지점의 저항령(해발 1,110m), 저항령에서 북방 1km 지점의 황철봉(해발 1,381m), 여기에서 북동 1km 지점의 1,318.8m 고지, 다시 북쪽으로 2.5km 지점의 미시령(해발 760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청봉에서 마등령까지의 능선은 날카로운 기암괴석과 절벽이 연속되는데 이를 공룡능선이라 한다.

대청봉의 남쪽으로는 설악산맥이 서남서로 연장되어 2.5km 지점의 1,459m 봉을 지나 2.5km 서방의 1,365m 고지로 이어지고 여기서 방향을 북서로 바꾸어 1.5km 지점의 대승령(해발 1,190m), 대승령 서북서방 2km 지점의 안산(해발 1,430m)에 이르는 능선을 이루는데 이를 서북주능이라 한다.



〈사진 6〉 중정대피소에서 바라본 대청봉

대청봉에서 북동쪽으로 3km에 화채봉(해발 1,325m)에 이르고 화채봉에서 동방으로 4km 지점의 송암산(해발 761m)까지 연장된 능선이 있는데 이를 화채능선이라 하며, 화채봉에서 북북동방으로는 칠성봉(해발 1,077m)을, 그리고 집선봉, 권금성을 지나 설악동에 이르는 능선이 있다. 대청봉에서 동방으로 연장된 능선은 약 5km 지점의 관모봉(해발 890m)을 지나 9km에서 동해에 이른다. 황철봉과 미시령 사이의 1,092m 봉에서 동방으로 약 2km 지점에 울산바위(해발 873m)가 있고, 여기에서 동남방 3km 지점의 달마봉(해발 635m)으로 이어지며 목우재를 지나 주봉산, 청대산을 거쳐 대포동으로 이어지는 낮은 능선이 있다.

설악산맥의 서쪽에 용기준평원의 특징을 나타내는 곳이 관찰되는데, 한계령에서 서방으로 장수대에 이르는 곡면은 해발 500~700m의 평탄한 곡면을 보여주며, 한계령 바로 서쪽에는 해발 800~900m의 평탄면, 다시 그 서쪽에는 해발 600~800m의 평탄면이 있다. 더 높은 평탄면으로는 설악산 서쪽의 서북능선, 북측의 준 평탄면으로서 해발 1,200~1,400m의 면이며, 이면은 귀때기청봉 주변까지 연장된다. 같은 면은 안산의 동쪽과 북동쪽에 더 현저하게 잔존한다. 또, 같은 높이의 평탄면은 황철봉 부근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의 평탄면은 현재 작은 면적으로 몇 군데에서 발견되는데 불과하나 이들 면은 오래전의 설악산 지역의 침식면으로서 모든 하천은 이들 수준에서 선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 2) 경관

설악산은 대청봉 부근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여러 종류의 화강암(花崗巖)으로 되어 있다.

한반도에는 화강암의 분포가 적지 않은데 그 관입 시대는 크게 3분할 수 있다. 화강암 중 시대적으로 오랜 것을 트라이아스기의 것인데 이 시대의 것은 평안북도에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오랜 것은 쥐라기의 화강암으로서 그 분포 면적이 가장 크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뻗은 줄기, 충남 서산에서 원주를 지나 강릉에 이르는 폭넓은 줄기, 전남 영광에서 대전, 충북 청주를 지나 영주에 이르는 단속되는 화강암 지대 및 이 밖의 화강암 분포지 중에는 쥐라기의 화강암은 대보화강암이라고도 한다. 대보화강암이 관입한 시대는 대체로 2억 년 전에서 1억 5천만 년 전 사이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화강암은 백악기의 화강암인데 불국사화강암이라고도 한다. 이 화강암은 강원도의 간성, 속초, 인제, 홍천을 연결한 지대에 분포하여 설악산의 주체를 형성하였고 같은 불국사화강암은 금강산과 그 주위에 분포하여 금강산의 주체를 이루었다. 이밖에 광주, 금성, 해남을 연결하는 지대, 속리산과 문경, 제천 사이에 단속적으로 분포한다. 그러나 가장 표준이 되는 곳은 경북의 경주 부근이고 여기에서 불국사화강암이라는 명칭이 유래되고 같은 화강암은 경남에서도 점점으로 분포한다.

설악산의 경관을 만든 원인의 하나는 설악산, 금강산 및 태백산맥을 높이 들어 올린 힘이다. 화강암은 지하 수 km 이상 되는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에서 굳어져 만들어졌거나 다른 암석이 녹아서 화강암으로 굳어진 암석이다. 그러므로 화강암이 지표에 나온 것은 지각이 지표에서 깎이고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악산맥이 해발 1,708m까지 솟은 것은 지각 또는 지면이 높이 솟아오른 일이 있거나 아직도 솟아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백산맥은 제3기에 일어난 융기작용(隆起作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설악산은 이때 태백산맥의 일부로 높은 산지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태백산맥의 융기와 반대로 동해 쪽은 함락 내지 침강하여 태백산맥의 원형은 동해 쪽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침식(侵蝕)되어 들어갔는데, 이 빠른 침식작용이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와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들을 형성케 하였는데 이때 화강암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이 신기한 산형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구조적 특징이 절리(節理)인데 화강암에는 주로 3방향의 절리가 발달한다. 설악산의 절경은 수직절리가 발달하여 높이 솟은 암산을 형성한다.

설악산의 경관의 특징은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의 존재, 이것이 오랜 침식 삭박작용(削剝作用)과 융기로 지표에 노출된 역사, 한반도의 태백산맥 형성으로 태백산 정상부에 높이 솟아오르게 된 일, 동해의 함락으로 동사면이 급격히 침식되고 화강암이 가진 절리의 특징으로 기암절벽을 형성하게 된 일들이 오랫동안 합작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 3) 설악산의 다양한 지형

#### 가) 급애 (cliff)

급애는 단애라고도 불리는 기반암의 자유면(free face)으로 암석 사면의 경사가 수직 또는 급경사를 이뤄 사면에 물질이 쌓여있지 않은 면을 의미한다. 설악산에 분포하는 급애는 지하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수직절리가 탁월하게 발달한 곳에서 나타난다. 외설악에서는 공룡능선, 울산바위, 비선대 부근, 천불동계곡 일대 등, 내설악에서는 봉정암 부근, 대승 폭포 주변, 옥녀탕 부근에서 나타난다.



〈사진 7〉 급애

## 나) 암석돔 (dome)

암석돔은 지표에 노출된 돔 형태의 지형으로 주로 사면 혹은 정상부에서 관찰된다. 화강암 산지에서 발견되는 암석돔은 지하에 있는 화강암의 수직, 수평 절리를 따라 구상풍화가 진행되고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새프롤라이트가 제거되면서 암체가 지표에 노출된다. 노출된 암체는 판상절리를 따라 박리현상이 나타나면서 박리돔이 형성이 되며 이를 암석돔 또는 보른하르트(bornhardt)라고도 한다. 외설악에서는 비선대, 울산바위 부근, 내설악에서는 오봉산 부근, 안산 정상부 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

## 다) 토르 (tor)

토르는 기반암의 수직, 수평 절리 사이에 수분에 의한 풍화가 이루어지면서 둥근 모양의 핵석이 형성되고, 핵석 사이의 새프롤라이트가 제거되면서 여러 핵석이 지표에 노출된 지형을 말한다. 기반암의 차별 풍화에 의해 형성된 지형으로 핵석이 쌓여있는 탑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외설악의 흔들바위가 있는데 초기에는 흔들바위 외에도 비슷한 토르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으나, 풍화가 진전되면서 모두 붕괴되어 아래로 굴러가고 흔들바위 하나만 기반암 상부 흠에 고여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 외에도 울산바위 정상부, 공룡능선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내설악에서는 봉암암 부근, 한계령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토르와 핵석은 영랑호 부근에서도 쉽게 관찰이 가능한데 속초 팔경 중 하나인 범바위가 전형적인 토르라고 볼 수 있다.



〈사진 8〉 울산바위 정상 부근의 토르(tor)

## 라) 타포니(tafoni)와 나마(gnamma)

타포니는 풍화작용으로 인해 암석 측면에 동굴 형태로 생긴 풍화혈을 의미하며, 나마는 암석 측면이 아닌 상부 평탄면에 형성된 풍화혈을 의미한다. 나마는 우리말로 ‘가마솥바위’라고도 한다. 타포니와 나마 모두 염 풍화, 수분의 동결, 융해 반복으로 인한 풍화, 가수분해 등 여러 종류의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지형이다. 설악산에서 타포니는 흔들바위 주변에서 관찰 가능하며 나마는 울산바위 정상부, 권금성 정상부와 같이 주로 봉우리 정상부에 관찰 가능하다.



〈사진 9〉 울산바위 정상 부근의 나마(gnamma)

마) 암괴원(block field), 암괴류(block 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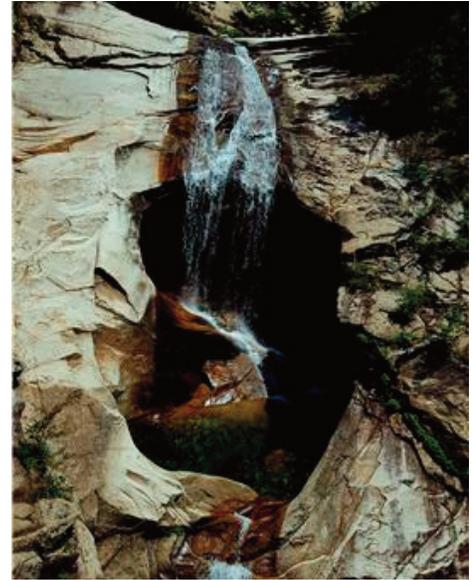
암괴원은 물리적 풍화작용의 반복으로 인해 기반에서 분리된 암석들이 완만한 사면에 퇴적된 지형을 의미하며, 암괴류는 사면 경사를 따라 암괴가 흘러내린 모양을 의미한다. 암괴원은 귀때기청봉 정상부 부근, 황철봉 부근에서 관측되는데, 울산바위 정상에서 보이는 황철봉 부근 암괴원은 ‘너덜지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설악산의 암괴원 중 귀때기청봉 부근 암괴원은 암괴 직경이 1~2m로 규모가 크고, 암괴 표면에 나마와 그루브와 같은 화학적 풍화에 의한 미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사진 10〉 울산바위에서 바라본 황철봉

### 바) 폭포 (water fall)

폭포는 하천 종단면에서 경사 급변점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로 하상을 이루는 단단한 암석층이 침식되지 않아 형성되는데 설악산의 폭포는 대부분 화강암 지형에서 발달하므로 암석의 경연차로 인한 형성보다는 화강암 절리 발달에 의해 폭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폭포는 하천의 두부침식을 받는 지형으로 침식이 지속된다면 폭포는 후퇴하게 되며, 결국 소멸하게 된다. 폭포에서는 유수의 흐름이 거의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폭포 아래에는 기반암이 동그랗게 파인 와지인 폭호<sup>5)</sup>나 자갈이나 모래에 의한 마식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포트홀 등의 침식지형이 함께 관찰된다. 설악산은 급애와 계곡이 많아 많은 수의 폭포가 관찰되며, 설악동 입구에 있는 토왕성 폭포는 낙차가 150m로 국내에서 가장 큰 폭포이다.



〈사진 11〉 십이선녀탕과 폭호  
출처: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 사) 협곡 (canyon)

협곡은 주로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는 좁고 깊은 계곡을 말한다. 급경사의 곡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곡벽의 경사가 V자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V자 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설악산에서는 비룡폭포 구간, 천불동계곡 구간, 흘림골, 주전골 주변, 구곡담 계곡의 협곡의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사진 12〉 비룡폭포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5) 폭호: 폭포의 기저부에서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 특히 소용돌이 효과로 우묵하게 침식된 구멍을 말한다.

## 나. 설악산의 지질

### 1) 구성 암석

내설악 지역은 대부분이 백악기에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작은 면적의 중생층이 분포하며 대청봉 정상 부근과 그 동부, 서부 및 남부 측, 외설악의 남부는 시대 미상의 변성암(變成岩)류인 화강암질편마암(花崗巖質片麻岩)과 반상변정편마암(斑狀變晶片麻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봉 정상부의 외설악 남부는 경기 기저 변성암 복합체로 되어 있고 내설악 대부분과 외설악의 북부는 백악기의 화강암인 불국사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경기 기저 변성암 복합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화강암질편마암과 반상변정편마암에 해당하는 것이다. 1981년의 대한지질도에는 경기 기저 변성암 복합체의 시대를 선캄브리아기로 하였고 그것도 고기로 간주하였다.

### 2) 지질구조

설악산맥은 남북방향의 단층으로 잘린 지괴가 그 동 변이 상승하고 서변이 침강한 지괴운동에 의해 생성된 능선으로 생각된다. 다만 설악산맥 또는 태백산맥 능선 동사면은 단층절벽이 아니고 단층선 절벽으로서 단층은 동해 속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설악산의 식생<sup>6)</sup>

### 가. 설악산의 식물상

설악산은 남한 지역에서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높이 또한 남한에서 한라산(해발 1,950m), 지리산(해발 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태백산맥 중에서는 최고봉으로 대청봉의 고도가 해발 1,708m이다. 따라서 고도 변화에 따른 기온 감율(0.55°C/100m) 때문에 저지대와 산 정상과의 기온차가 10°C 정도가 된다. 따라서 설악산에는 극지 고산식물, 고산식물, 북방계 식물, 온대성 상록침엽수와 낙엽활엽수, 그리고 난온대성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 종이 분포하고 있다. 설악산의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은 고산과 아고산대의 식물이 자라는데, 눈잣나무, 설악눈주목, 눈향나무, 털개불알꽃, 홍월굴, 월굴, 들쭉나무 등 남한에서는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많이 분포한다. 또한, 눈측백, 흰장구채, 바람꽃, 만주송이풀, 등대시호, 바람꽃, 흰인가목, 붉은인가목, 기생꽃, 솔나리, 난쟁이붓꽃 등의 북방계 식물이 산 정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설악산 고지대에 북방계 식물이 많이 자라는 것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과거 지질시대에 한온(寒溫)의 기후변천에 따라 식물이 남쪽 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후가 한랭해지면 식물의 분포지역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반면 기후가 온난해지면 그 분포지역이 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일부 식물은 기온이 낮은 고지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설악산에 한국 고유식물이 많이 분포하는 이유는 설악산의 중심축인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된 빙하기와 간빙기에 산맥을 따라 북방계 식물의 남하와 남방계 식물의 북상 통로의 역할을 하여 북방계 요소와 남방계 요소의 식물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고,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고산으로 이동한 북방계 식물의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 나. 설악산의 생태적 의의

설악산은 한반도 등줄기인 백두대간의 중요 기점으로 1982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세계적 희귀 자연 자원의 분포 서식지로 평가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자연생태계 서식지 ‘좋은’상태이고, 저지대부터 아고산대<sup>①</sup>까지 다양한 고도 분포의 독특한 동·식물상을 가지

6) ‘설악산의 식생’은 『속초시사 상권 제1편 자연환경』,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는 한반도 중부의 생물분포학적 중요지역이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연잎꿩의다리, 닳꽃, 홍월굴, 노랑만병초 등의 주요 서식지이고, 동식물 10종의 자생지 보전을 위한 특별 보호 구역으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설악산은 3천여 종 이상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물 창고이다.



- ① 아고산대 : 온대의 산악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식물의 수직 분포대. 해발 1,500~2,500미터의 지대로 고산대와 저산대의 사이에 있으며, 저온 건조하여 침엽수가 많다.

## 다. 설악산의 식물

### 1) 설악산의 다양한 식물

설악산국립공원에는 674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먼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기생꽃이 있다.

기생꽃이라는 이름은 작고 꽃이 예쁘다는 것을 황진이와 같은 기생에 비유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줄기 끝에서 나온 꽃자루 끝에 흰색 통꽃이 1~2개씩 달리며, 7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등산객이나 방문객들이 기생꽃이 아름다워 무분별하게 캐가고 기생꽃이 자생하는 곳을 훼손하여, 현재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식물이고 한국 적색목록에 멸종위기 범주인 취약종(VU)으로 평가되어 있다.



〈사진 13〉 기생꽃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또한, 한국 적색목록 취약(VU) 등급인 개석송, 눈측백, 월굴, 만리화가 있다.



〈사진 14〉 개석송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15〉 눈측백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16〉 월굴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17〉 만리화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한반도 고유종으로는 무늬족도리풀, 세잎승마, 할미밀망, 갈퀴현호색 등이 있다.



〈사진 18〉 무늬족도리풀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19〉 세잎승마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20〉 할미밀망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21〉 갈퀴현호색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그 외에도 고산지대에서 볼 수 있는 특색있는 식물들도 있다.

설악산 높은 곳에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라 불리는 ‘설악솜다리’가 아름답게 피어있다. 설악솜다리는 ‘솜’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꽃잎 표면에 솜 같은 솜털을 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식 명칭은 ‘산솜다리’이다.



〈사진 22〉 설악솜다리(산솜다리)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설악산 고산지대에는 설악솜다리 외에도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희귀 식물들도 많다. 고산지대에는 사는 식물로는 설악솜다리, 설악눈주목, 바람꽃, 난장이붓꽃, 만주송이풀, 연잎꿩의다리, 털진달래, 모데미풀 등이 있다.



〈사진 23〉 설악눈주목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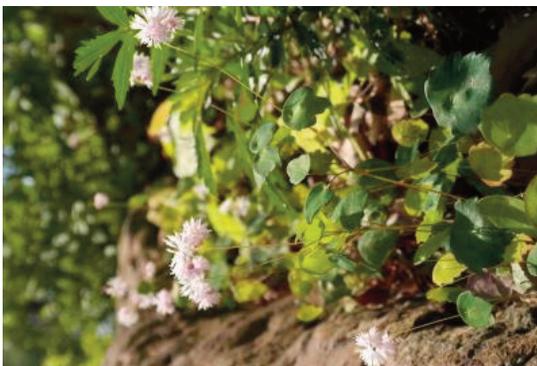
〈사진 24〉 바람꽃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25〉 난장이붓꽃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26〉 만주송이풀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27〉 꼬지연잎쟁의다리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28〉 털진달래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2) 설악산의 식생①

설악산의 전체적인 식생인 신갈나무가 저산지에서 고산지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우점②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저산지와 바위가 많이 노출된 산봉우리와 능선 쪽에 소나무가 식생으로 우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떡갈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참나무들과 분비나무, 서어나무, 피나무, 들메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다양한 나무들이 설악산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 ① 식생 : 어떤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식물 집단
- ② 우점 : 특정 지역의 식물 군락 내에서 특히 많이 자라는 것

### 가) 설악산의 참나무

가을에 산을 오르다 보면 귀여운 도토리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나무의 열매를 모두 ‘도토리’라고 하고, ‘도토리나무’라고 참나무들을 부르기도 한다. 설악산에는 대표적인 참나무 6종이 서식하고 있다. 설악산의 주요 우점 군락을 이루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가 설악산에서 볼 수 있는 도토리나무들이다.

<표 2> 설악산의 참나무 특징

	이름 유래	잎	도토리
신갈나무	옛날에 짚신 안에 잎을 깔아 신었음	부드러운 톱니 테두리 짧은 잎자루 잎이 얇고 털이 없음	투박하고 거친 비늘 형태의 각정이 ½ 정도 덮음
떡갈나무	앞에다가 떡을 싸서 찌먹었음	부드러운 굴곡의 테두리 두꺼운 잎 짧은 잎자루	진한 갈색에 털모자 모양 끝부분이 뾰족
굴참나무	두꺼운 나무껍질 때문에 세로로 깊은 골이 파짐	길쭉한 타원형에 작고 뾰족한 가시 테두리 뒷면이 회백색	술이 많고 넓적한 털모자 ⅔ 정도 덮음
갈참나무	낙엽이 늦게까지 있어 가을참 -> 갈참	부드럽고 촘촘한 톱니 뒷면이 회백색 잎자루 있음	얇은 접시 모양의 비늘무늬의 각정이 ⅓ 정도 덮음
졸참나무	다른 참나무에 비해 열매와 잎의 크기가 가장 작아 졸병	잎이 가장 작고 끝이 뾰족한 톱니를 갖고 있음	작고 길쭉한 도토리에 매우 작은 각정이 ⅓ 정도 덮음
상수리나무	상수리 도토리목을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 하여 상수라 -> 상수리	긴 타원형의 잎에 끝이 뾰족한 가시 테두리	털모자 모양의 각정이 ½ 정도 덮음



〈사진 29〉 신갈나무 열매와 잎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30〉 떡갈나무 열매와 잎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31〉 굴참나무 꽃과 잎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32〉 갈참나무 열매와 잎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33〉 졸참나무 열매와 잎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34〉 상수리나무 열매와 잎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35〉 설악산의 가을 참나무 군락

#### 나) 그 외의 식생

설악산에는 가장 많이 식생하는 참나무 5종 이외에도 소나무, 당단풍, 서어나무, 쪽동백나무,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전나무, 피나무, 분비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사진 36〉 소나무 꽃과 열매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37〉 당단풍나무 잎과 열매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38〉 서어나무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39〉 쪽동백나무 꽃과 잎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40〉 물푸레나무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41〉 생강나무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42〉 전나무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43〉 피나무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다) 설악산에 자라는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감소 추세에 있고 개체수가 아주 희소하여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희귀 및 멸종위기의 식물로서 환경부에서 자연 보전법 시행령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식물과 보호 대상 식물 중 보호 대상 식물은 솔나리를 비롯해 74종류가 설악산에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결과 설악산 권역에서 출현한 희귀 식물은 멸종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 CR)등급 눈잣나무, 이노리나무, 홍월굴, 꽃장포 등 4 분류군, 위기종(Endangered; EN) 등급으로 눈향나무, 바람꽃, 땃두릅나무, 만주송이풀, 땃강나무 등 총 5 분류군, 취약종(Vulnerable; VU) 등급 눈측백, 주목, 한계령풀 등 총 14 분류군, 약관심종(Least Concerned; LC) 등급으로 홀아비바람꽃, 세잎종덩굴, 쥐방울덩굴 등 총 20 분류군, 자료부족종(Data Deficient; DD) 등급 도라지모시대, 솜다리 등 총 2 분류군으로 총 25과 39속 42종 3 변종 총 45 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사진 44〉 솔나리  
출처:『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45〉 이노리나무  
출처:『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46〉 꽃장포  
출처:『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47〉 등대시호  
출처:『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48〉 취방울덩굴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49〉 눈향나무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라) 설악산에 자라는 한국 특산식물

설악산권에서 발견된 한국 특산식물은 만리화, 참배암차즈기, 병꽃나무, 새끼노루귀, 매자나무, 노랑갈퀴, 참개별꽃, 은꿩의다리 등이 자라고 있다.



〈사진 50〉 참배암차즈기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51〉 병꽃나무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마) 설악산에 자라는 귀화식물

설악산에 자라는 귀화식물로는 달맞이꽃, 돼지풀, 서양민들레, 족제비싸리, 아까시나무, 붉은토끼풀, 토끼풀, 회향 등이 자라고 있다. 귀화식물은 강인한 생명력과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 설악산을 비롯한 산림 내 침입이 우려되고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 52〉 돼지풀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53〉 서양민들레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54〉 족제비싸리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55〉 붉은토끼풀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바) 설악산에 자라는 기후변화 취약 식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들도 존재한다. 기후변화 취약 식물 중 한국 특산식물에는 진범, 홀아비바람꽃, 요강나물 등이 있다.



〈사진 56〉 요강나물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57〉 진범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기후변화 취약 식물 중 북방계 식물 종으로는 속새, 전나무, 돌단풍, 도깨비부채, 야광나무, 여우오줌, 솔나리, 앓은부채 등이 있다.



〈사진 58〉 돌단풍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사진 59〉 여우오줌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5. 설악산의 동물

설악산은 백두대간의 중심이며, 한반도 전체 생물군집의 보고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생물의 이동통로 및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물의 경우 직접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 사체, 배설물, 발자국 등 흔적을 이용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 가. 포유류

설악산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산양(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천연기념물 제217호),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천연기념물 제330호), 하늘다람쥐(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천연기념물 제328호), 담비(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삵(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이외에도 두더지, 오소리, 족제비, 너구리, 노루,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다람쥐, 등줄쥐, 멧토끼, 고슴도치 등 다양한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 설악산은 상록침엽수, 낙엽활엽관목, 낙엽활엽교목 및 인공식생이 분포하고 있어 산림이 울창한 관계로 동물의 은신처가 많고, 먹이자원이 풍부하여 다수의 포유류가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 1) 산양

소과에 속하는 포유류이다. 몸통의 길이는 115~129cm이며, 꼬리의 길이는 11~15cm 정도이다. 뿔은 약 13cm이다. 겨울털은 부드러우며 뻣뻣하게 나 있다. 대부분 털은 회갈색이지만 일부 털의 끝은 담흑갈색이다. 가파른 바위가 있거나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악 지대에 서식한다. 2~5 개체가 무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대부분 평생 일정한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습성이 있다. 설악산을 비롯한 백두대간의 산림에 서식한다.



〈사진 60〉 산양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61〉 수달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2) 수달

족제비과에 속하는 포유류이다. 몸통의 길이는 64~71cm이고, 꼬리 길이는 39~49cm 정도, 몸무게 5~14kg이다. 털빛은 암갈색이며 몸 아랫부분은 다소 옅은 갈색, 턱 아랫부분은 흰색이다. 머리는 납작하고 둥글고 코도 둥글다. 입 주변에 더듬이 역할을 하는 수염이 나 있다. 치아 중 송곳니가 발달하였다. 수중생활을 하기에 알맞도록 네 다리는 짧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다. 하천이나 호숫가에서 살며 물가에 있는 바위 구멍 또는 나무뿌리 밑이나 땅에 구멍을 파고 산다. 야행성이며 시각, 청각 특히 후각이 발달하여 있다.

## 3) 하늘다람쥐

청설모과에 속하는 포유류이다. 눈이 매우 크며, 귀는 짧고 폭이 넓다. 꼬리는 편평하고 몸통보다 짧다. 앞발의 발목 부위에서부터 뒷발의 무릎 부위에 걸쳐 날개 막이 있다. 앞 발목과 목 옆 및 뒷발과 꼬리 사이의 날개 막은 매우 작다. 등은 옅은 회색 계통과 갈색 계통이 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하거나 땅으로 내려올 때 날개 막을 활짝 펼쳐 활강한다. 주로 성숙한 활엽수림대에 서식한다. 나무껍질, 잎, 종자, 과실을 주로 먹는다.



〈사진 62〉 하늘다람쥐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63〉 담비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4) 담비

족제비과에 속하는 포유류이다. 성체의 경우 몸통의 길이는 59~68cm이고, 꼬리의 길이는 40~45cm이다. 몸통은 가늘고 길며 꼬리는 몸통 길이의 3분의 2 정도이다. 머리, 얼굴, 다리와 꼬리는 검은 갈색이고 귀 뒤로부터 한 줄의 검은 띠가 있다. 잡식성으로 포유류부터 조류, 과실, 도토리 등을 먹는다. 나무를 잘 타고 땅 위를 잘 달리기 때문에 천적을 잘 피하며, 무리 지어 다니면서 자기보다 강한 오소리를 습격하기도 한다.

## 5) 샓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류이다. 털빛은 회갈색이며, 회백색 뺨에는 세 줄의 갈색 줄무늬가 있다. 몸 길이는 45~55cm 정도이며, 꼬리는 25~32cm이다. 황갈색의 뚜렷하지 않은 반점이 세로로 배열되어 있다. 고양이처럼 생겼으나 훨씬 크며, 모피의 부정확한 반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설치류, 조류 등을 사냥하는 기회적 포식자이다.



〈사진 64〉 샓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65〉 고라니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6) 고라니

사슴과에 속하는 포유류이다. 몸통은 102~112cm, 꼬리는 8cm 정도이다. 수컷은 송곳니가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암수 모두 뿔이 없다. 새끼 몸에는 흰색의 작고 둥근 무늬가 있다. 산기슭의 풀숲 등에 살며, 다양한 초본류를 먹는다. 산간 지역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 나. 조류

설악산에 서식하는 조류는 붉은배새매(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천연기념물 제323-2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소쩍새(천연기념물 제324-6호), 두견이(천연기념물 제447호), 수리부엉이(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천연기념물 제324-2호),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참매(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천연기념물 제323-1호), 까막딱다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천연기념물 제242호)등 우리가 보호해야 할 다양한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 1) 황조롱이

매과에 속하는 조류이다. 몸길이는 수컷이 33cm, 암컷이 38cm이고, 날개 편 길이는 70cm 정도이다. 맹금류 중에서 비교적 흔한 텃새다. 먹이를 찾기 위해 공중을 빙빙 돌다가 정지비행을 하는 습성이 있다. 작은 새나 들쥐 등을 잡아먹는다. 고층 건물이나 절벽의 틈, 그리고 버려진 까치집 등 다양한 곳에 둥지를 튼다.



〈사진 66〉 황조롱이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67〉 수리부엉이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2) 수리부엉이

올빼미과에 속하는 조류이다. 몸길이는 약 70cm이며 올빼미과의 조류 중 몸이 가장 크고 귀깃도 길다. 눈은 주황색을 띤 노란색이다. 머리 꼭대기에서 목뒤까지 그리고 등과 날개덮깃은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과 진한 갈색 세로줄 무늬가 있다. 무리를 짓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며,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활동한다. 쥐, 두더지, 토끼, 개구리, 뱀, 비둘기, 꿩 등을 먹는다.

### 3) 붉은배새매

붉은배새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의 수리과 조류이며 여름 철새다. 몸 윗면은 푸른색을 띤 회색이고, 가슴은 흐린 주황색이며 아랫배는 흰색이다. 평지, 농가, 인가 주변의 숲에서 서식한다. 먹이가 되는 개구리 등이 줄어들어 개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 한국적색목록에 멸종위기 범주로 평가되어 있다.



〈사진 68〉 붉은배새매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69〉 원앙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4) 원앙

오리과에 속하는 조류로 비교적 흔한 텃새이자 겨울 철새다. 몸길이 약 45cm. 번식기 수컷의 깃 색이 화려하여 다른 종과 혼동이 없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회색 바탕에 몸 아랫면에 흰색 얼룩점이 있으며, 눈 뒤로 흰색의 가는 눈선이 있고 부리는 검은색이다. 산림 주변의 늪지대나 계곡, 냇가 등에서 각종 식물의 열매나 수서곤충, 연체동물, 작은 어류 등을 먹는다.

#### 5) 까막딱다구리

딱다구리과에 속하는 조류이다. 몸길이는 45~57cm이다. 암컷과 수컷 모두 몸 전체 깃털이 검은색이다. 수령이 오래된 참나무, 소나무 등 고목이나 노거수가 있는 울창한 숲에 산다. 부리로 나무줄기를 두들겨 가며 구멍을 파서 곤충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곤충류를 주로 먹으며, 식물의 열매도 먹는다. 둥지는 땅 위에서 4-25m 높이의 나무줄기에 암수가 공동으로 구멍을 파서 만든다.



〈사진 70〉 까막딱다구리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71〉 소쩍새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6) 소쩍새

올빼미과에 속하는 조류이다. 몸길이는 20cm 정도이며 몸 전체가 회갈색이며 갈색이 흩어져 있다. 긴 귀깃이 있으며 발가락에는 깃털이 없다. 민가 주변의 야산, 공원, 산림, 사찰 등지에 사는 흔하지 않은 여름 철새다. 주로 곤충을 잡아먹지만 작은 조류나 쥐도 잡아먹는다.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 다. 양서·파충류

설악산에 서식하는 양서·파충류는 최근 조사에서 발견된 북방산개구리, 두꺼비, 참개구리 등의 양서류와 살모사, 유혈목이, 누룩뱀 등이 있다. 문헌상으로는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물두꺼비 등의 양서류와 능구렁이 같은 파충류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1) 북방산개구리

개구리과에 속하는 양서류이다. 몸길이는 50~85mm로 한국산 산개구리류 중 가장 대형이다. 수컷은 턱 밑에 울음주머니가 있다. 주로 산지에 있는 하천의 돌 밑에서 월동하고 번식기인 초봄이 되면 논습지 주변 또는 하천 주변의 웅덩이로 이동해 알을 낳는다.



〈사진 72〉 북방산개구리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73〉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2) 꼬리치레도롱뇽

고산지대의 산간 계곡에 서식하며 난생이다. 몸길이는 수컷이 17~18cm, 암컷이 18~19cm이다. 피부는 매끈하며, 등면의 중앙에 1개의 세로 홈이 있으며, 허파는 없다. 주로 바위틈이나 나무뿌리 주변 습지에 서식한다.

### 3) 살모사

살모사과에 속하는 파충류로 몸길이는 60~70cm이고, 등에 다양한 반문이 있다. 혀는 검은색, 꼬리는 노란색, 주둥이 끝판은 검은색이다. 난태생이며, 5~9월에 짝짓기하고 8~9월에 2-2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독이 있으며 성질이 사납다. 물고기, 개구리, 도마뱀, 뱀 등을 포식한다.



〈사진 74〉 살모사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75〉 유혈목이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4) 유혈목이

뱀과에 속하는 파충류로 몸길이는 50-120cm이며, 색깔 변이가 심하지만 보통 녹색 바탕에 붉은 점 무늬가 산재한다. 과거에는 독이 없는 종으로 알려졌으나 턱 뒤쪽에 독니가 있는 독사이다. 위협을 느끼면 몸을 세우고 방어 자세를 취하거나 죽은 척하는 습성이 있다.

## 라. 곤충류

절지동물에 속하는 동물 중 다리가 여섯 개이고 몸이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 무리이다. 몸 안에 뼈는 없지만, 키틴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외골격으로 몸을 보호하고, 가슴 부위에 세 쌍의 다리와 두 쌍의 날개가 달려 있다. 날개는 일부가 퇴화하거나 일시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머리에는 한 쌍의 더듬이, 한 쌍의 겹눈과 세 개의 홑눈이 있다.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몸집이 커지면서 여러 번 탈피를 거치고 번데기 상태를 지나 성충이 된다. 이 과정을 변태라고 하는데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은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홀로 사는 곤충이 많지만, 개미나 벌과 같이 집단을 이루고 페로몬이나 행동으로 서로 소통하며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적 곤충도 있다. 세계적으로 약 1백만 종이 알려졌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종들을 감안하여 1천만 종 정도로 추정하기도 한다.

설악산에 서식하는 곤충은 1,571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특이종 현황을 살펴보면 큰자색호랑꽃무지, 왕은점표범나비, 여름어리표범나비, 깊은산부전나비,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멧조롱박딱정벌레 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는 등검은말벌,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악산에 서식하는 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이 곤충류이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6종, 한국적색목록종으로 250종이 지정되어 있다.



〈사진 76〉 큰자색호랑꽃무지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77〉 여름어리표범나비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77〉 등검은말벌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78〉 꽃매미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마. 담수어류

어류란 척추동물 중 물고기가 속하는 무리이다. 거의 대부분 물속에 살고, 아가미로 호흡하고 지느러미로 헤엄치며 피부가 비늘로 덮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온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고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는 변온동물이어서 온도에 영향을 받지만 낮은 온도에 적응한 어류도 많다. 입안으로 물을 삼켜 양쪽의 아가미로 물을 내보내면서 호흡한다. 많은 어류가 알을 낳지만, 새끼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류는 크게 뼈가 딱딱한 경골어류와 질긴 피부와 물렁뼈를 가진 연골어류로 나눌 수 있다. 물고기 대부분은 경골어류에 속하며 상어나 가오리가 속한 연골어류는 종류가 적다. 경골어류는 몸속에 부레를 가지고 있어서 물속에서 평형을 유지하며 움직이지 않고 머무를 수 있지만, 연골어류는 부레가 없어서 물에 떠 있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헤엄쳐야 한다. 부레가 허파의 역할을 해서 물이 없는 곳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특이한 종류(폐어)도 있는데 화석생물로 알려진 실러캔스도 여기에 속한다. 어류는 세계적으로 20,0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설악산 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담수어류는 32종으로, 2020년 조사 결과 출현 종수는 잉어과가 16종으로 가장 많고, 우점종은 참갈겨니로 확인되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열목어, 돌상어, 가는돌고기, 묵납자루가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어름치가 설악산 물에 살고 있다.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금강모치, 열목어, 독중개가 지정되어 있다.



〈사진 79〉 열목어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사진 80〉 어름치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사진 81〉 묵납자루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사진 82〉 가는돌고기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 1

## 바로 쓰는 수업자료(교사용) 설악산 체험학습

<b>주제</b>	명산 설악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I	<b>장소</b>	설악산
<b>학습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악산에 서식하는 식물과 설악산을 구성하는 지질에 대해 알아본다.</li> <li>▷ 설악산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보존하려는 마음을 갖는다.</li> </ul>	<b>활동형태</b>	모둠활동 단체활동
<b>준비물</b>	▷ 카메라(휴대전화기), 가방, 물, 필기도구	<b>소요시간</b>	1일 형

### ▷ 교사용 도움 자료

코스명	체험학습 코스 안내	
 권금성 코스	상세구간	▷ 소공원 - 케이블카 - 권금성
	소요시간	▷ 30분
	거리	▷ 1.5km
	난이도	▷ 하
 비룡폭포 코스	상세구간	▷ 소공원 - 육담폭포 - 비룡폭포 - 토왕성폭포전망대
	소요시간	▷ 1시간 30분
	거리	▷ 2.8km
	난이도	▷ 하
 양폭 코스	상세구간	▷ 소공원 - 와선대 - 비선대 - 귀면암 - 양폭대피소
	소요시간	▷ 3시간 10분
	거리	▷ 6.5km
	난이도	▷ 하

<p><b>소나무</b></p>	<p>▶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록수이다. 또한 그 자태가 웅장하면서도 거만하지 않고 수려하여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굳은 기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소나무는 특히 부(富)와 성공(成功)을 상징한다.</p>	
<p><b>잎의 개수로 분류하기</b></p>	 <p>7)</p>	<p><b>소나무</b> - 줄기는 붉은빛을 띤 갈색이나 밑 부분은 검은 갈색이다. 바늘잎은 2개씩 뭉쳐나고 길이 8~9cm 나비 1.5mm로 밑부분의 비늘은 2년이 지나면 떨어진다.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길이 4.5cm, 지름 3cm이며 다음 해 9~10월에 노란빛을 띤 갈색으로 익는다. 종자에 날개가 달려 있다. 옆 사진의 소나무는 속초 설악동 소나무로 나이는 500년 정도로 추산되며 높이 16.5m, 둘레 4.03m의 크기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p>
		<p><b>리키다소나무</b> - 가지가 넓게 퍼지고 싹 트는 힘이 강하여 원줄기에서도 짧은 가지가 나와 잎이 달리므로 다른 소나무류와 쉽게 구분된다. 잎은 바늘 모양으로 3개씩 달리고 비틀어지며 길이 7~14cm이고 잔 톱니가 있다. 열매는 구과로서 달걀 모양의 원뿔형이며 짧은 가시가 있고, 오랫동안 가지에 달려 있다.</p>
		<p><b>잣나무</b> - 줄기는 갈색으로 매끈한 편이며 잎은 바늘 모양으로 5개씩 뭉쳐난다. 잎을 감싸는 엽싸개(엽초)가 없어 깨끗하다. 열매의 비늘조각 사이에 커다란 잣 종자가 들어있으며 날개가 없다.</p>
<p><b>특징</b></p>	<p>▶ Pinus : 켈트어 pin(산)에서 유래 / densiflora : dense(치밀하다)+flora(꽃) - 분류 : 소나무과 - 소나무는 적송, 육송, 강송, 춘양목 등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일본 강점기의 잔재이다. 따라서 줄기가 곧으며 마디가 길고 껍질이 유별나게 붉은 소나무를 금강송(金剛松) 또는 금강소나무 또는 강송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춘양목, 강송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세 나무의 공식적인 이름이 강송이다. - 소나무 품종 중 하나인 반송(盤松)은 일반 소나무가 하나의 줄기만 올라와서 크게 자라는데 반해 거의 땅 표면부터 줄기가 여러 개로 갈라져 올라와 전체적인 모양이 부채를 편 형상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 일반적인 소나무의 잎은 두 개씩 모여 나며 5월 중순에 한 나무에서 암꽃과 수꽃이 헛가지에 핀다. 솔방울은 꽃이 핀 뒤 이듬해 가을에 여문다.</p>	

7) '설악동 소나무 사진'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p><b>참나무</b></p>	<p>▶ 참나무는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나무들을 말하는데 졸참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 도토리가 열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참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을 구성하는 주된 나무들이다.</p>	
<p><b>참나무속</b></p>	 <p>[신갈나무]</p>	<p>식물도감 여기저기를 뒤져봐도 참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는 찾을 수 없다. 도감을 보면 ‘참나무과 참나무속의 총칭’을 참나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나무라 불리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총칭한 참나무류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흔히 도토리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떡갈나무 또는 참나무라 부르기도 하는 이 종류의 나무는 사실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나무들을 말한다. 이 나무들의 열매를 도토리라 부르며 가을에 익은 열매는 다람쥐나 청설모,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중요한 식량자원이 되고 사람들도 이 열매를 갈아서 목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p> <p>그렇다면 도토리가 주로 열리는 이 참나무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온대지방에 분포하며 겨울에 낙엽이 지는 낙엽활엽수에는 신갈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 기본 6종이 분포하고 있다. 참나무류는 공통적으로 도토리 혹은 그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다. 물론 도감에서 도토리나무를 찾는다면 찾을 수 없다. 또 재미있는 것은 참나무속의 학명은 쿠에르쿠스(Quercus)라는 라틴어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진짜’. ‘참’을 뜻하는 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학명이 붙은 데에는 이 참나무류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나무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먹을 수 있는 것에 ‘참’을 붙이고, 그보다 못한 것에는 ‘개’를 붙여 구별한 지혜가 있었다.</p>
 <p>[떡갈나무]</p>		
 <p>[상수리나무]</p>		
 <p>[굴참나무]</p>		

<p><b>설악산의 암석</b></p>	<p>▶ 설악산의 생성 및 지질</p> <p>설악산은 대청봉 부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러 종류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설악산 지역은 백악기 화강암인데 불국사화강암이라고도 한다. 이 화강암은 강원도의 간성, 속초, 인제, 홍천을 연결한 지대에 분포하여 설악산의 주체를 형성하였고 같은 불국사 화강암은 금강산과 그 주위에 분포하여 금강산의 주체를 이루었다. 이 화강암은 고지대를 이루고 있다. 설악산의 경관을 만든 원인의 하나는 설악산, 금강산 및 태백산맥을 높이 들어 올린 힘이다. 화강암은 지하 수 km 이상 되는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진 것이므로 화강암이 지표에 나온 것은 지각이 지표에서 깎이고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악산맥이 해발 1,708m까지 솟은 것은 지각 또는 지면이 높이 솟아오른 일이 있거나 아직도 솟아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백산맥은 제3기에 일어난 융기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설악산은 태백산맥의 일부로 높은 산지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태백산맥의 융기와 반대로 동해 쪽은 함락 내지 침강하여 태백산맥의 원형은 동해 쪽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침식되어 들어갔는데 이 빠른 침식작용이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와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들을 형성케 하였는데 이때 화강암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이 신기한 산형에 큰 역할을 하였다.</p>
<p><b>설악산 이야기</b></p>	<div data-bbox="380 999 724 1226" data-label="Image"> </div> <p>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존해야 할 지질·지형 및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며,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또한 전통 사찰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중의 하나이므로 설악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p> <div data-bbox="380 1276 618 1619" data-label="Image"> </div> <p>8)</p> <p>신흥사에 있는 이 동종은 18세기 후반 동종 제작이 현저히 감소하는 시기에 조성된 작품으로 명문이 남아있어 정확한 제작연대(1788년)와 주조 경위, 주조 장인 등을 알 수 있는 등 강원도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예라는 점에서 지정 보존 가치가 있다.</p>

8) '신흥사 동종 사진 및 설명'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9)

신흥사는 자장율사가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 현재의 켄싱턴호텔 자리에 향성사(香城寺)와 현 내원암(內院庵) 자리에 능인암(能仁庵)을 창건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신라 효소왕 7년(698)에 향성사와 능인암이 모두 불타 버려, 효소왕 10년(701)에 의상대사가 능인암 자리에 절을 고쳐 짓고 이름을 선정사라 하였다. 조선시대 인조 20년(1642)에 선정사에 불이 나자 인조 22년(1644)에 승려 영서, 혜원, 연옥 등이 선정사 아래쪽에 절을 짓고 이름을 신흥사라 하였는데 이렇게 이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서, 혜원, 연옥 세분이 절의 중창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세 분 스님 모두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이 땅은 수만 대에 걸쳐 삼재(三災)가 미치지 않는 신성한 지역이니 여기에 절을 지으라고 점지해 주었다. 이 자리가 현재의 신흥사 자리이며, 신흥사란 신성한 지역이라고 점지해 준 데서 붙여진 것이다.』

조선 후기에도 많은 건물이 중건, 중수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경판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피해를 보았다. 현재 절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인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인 경판,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04호인 보제루 등이 있다.

9) '신흥사 극락보전 사진 및 설명'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제	명산 설악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II	장소	교내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악산에 서식하는 동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li> <li>▷ 사라져가는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한다.</li> </ul>	활동형태	모둠활동 개인활동
준비물	▷ 카메라(휴대전화기), 필기도구, 곤충사육장	소요시간	1개월 이상

### ▷ 교사용 도움 자료

장수풍뎅이	체험학습 코스 안내
	<p>딱정벌레목 장수풍뎅이과에 속하는 곤충이다. 몸은 길이 35~53mm이다. 수컷은 몸통이 적갈색 또는 흑갈색이며 광택이 있다. 암컷은 몸통의 등 쪽이 탈락하기 쉬운 암갈색 또는 황회색 짧은 털로 덮여 있어서 광택이 나지 않는다. 성충은 야행성으로서 한여름에 참나무나 밤나무 등의 진에 모여서, 불빛에 날아오기도 한다. 애벌레는 낙엽이나 나무 또는 초과의 지붕 속 등과 같은 썩은 식물성 먹이를 먹고 자라다가 겨울을 난 후 다음 해 봄부터 다시 자라서 6, 7월에 번데기와 성충이 된다.</p>
준비물	<p>성충을 사육할 때 사육용기는 사육할 곤충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30cm 정도 또는, 가로, 세로 40x28cm, 높이가 25cm 정도 크기의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반 정도까지 부엽토와 참나무 토막 등의 깔개를 넣고 두께 5cm 길이 15cm 정도의 나뭇가지를 2~3개 넣어 둔다.</p>
성충키우기	<p>성충은 같은 사육용기에 2쌍 또는 수컷 2마리와 암컷 5~6마리를 넣고 사육하는 것이 적당하다.</p> <p>용기 내의 생활공간과 습도 관리가 중요하며, 되도록 자연 상태와 비슷한 사육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한정된 공간 내에서는 개체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자에 나뭇가지를 넣어주며, 나뭇가지가 없을 때는 나무판자 혹은 나뭇조각을 사용해도 된다. 이러한 나뭇가지나 나무조각들은 활동 범위를 구분하고 먹이 장소를 설치하는 데도 이용된다. 또 부엽토는 낮 동안에 숨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상자 내의 습도조절에도 중요하다.</p>

<p>먹이</p>	<p>성충의 먹이는 인공수액, 벌꿀 및 과일 등이 적당하며, 당분이 많은 종류가 좋다. 먹이는 밤에 주도록 하고 물렁물렁해지는 과일은 매일 교환해줘야 한다. 수분이 많은 먹이를 줄 때는 용기가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자주 관리해주어야 한다.</p>
<p>유충키우기</p>	<p>유충은 부엽토나 퇴비 등의 부식질을 먹기 때문에 성충과 같이 과실을 줄 필요가 없다. 용기 내에서 부엽토와 참나무 깔개 등을 10~20cm 정도로 여물게 다져놓고 그 위에 1령 유충을 놓아두면 스스로의 힘으로 파고 들어가서 부엽토를 먹는다. 1, 2령을 사육하여 관찰하려면 썩은 톱밥을 주둥이가 넓은 병에 넣고 외부를 검은 천이나 종이로 감싸서 빛을 가려준다.</p> <p>1, 2령을 사육하여 관찰하려면 썩은 톱밥을 주둥이가 넓은 병에 넣고 외부를 검은 천이나 종이로 감싸서 빛을 가려준다.</p> <p>알과 유충의 사육에는 반드시 성충과는 다른 용기를 사용하고 밀도가 높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성충의 날카로운 다리에 의한 파손이나 유충끼리 서로 물어뜯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p> <p>종령 유충일 경우엔 가로, 세로 30cm, 높이 30cm 정도의 용기에 5마리가 적당하고 밀도가 높으면 부엽토의 표면으로 유충이 기어 나온다.</p> <p>집안의 온도변화가 적고 직사광선이 쬐지 않는 장소를 월동장소로 선택해야 한다. 용기 내의 습도를 잘 조절하고 또 겨울 동안에도 온도가 높아서 먹이를 먹고 있을 경우에는 부엽토를 교환해줄 필요가 있다.</p> <p>월동한 유충은 4월경부터 활동이 활발해지고 먹는 양도 갑자기 많아진다. 이 시기에 검은색의 똥이 많아지므로 용기를 점검해서 부엽토를 자주 교환해 주어야 한다.</p> <p>거의 다 자란 종령 유충은 몸길이가 10cm 정도나 된다. 먹는 양도 많으며, 먹고 있는 기간에는 복부 끝부분의 내부에 검은색의 똥이 차 있다.</p> <p>번데기로 될 시기가 가까워지면 먹는 양도 줄어들고 차있던 똥도 줄게 된다. 오래된 종령 유충은 부엽토 속에서 몸을 움직여 분비물로서 안쪽의 벽을 허물고 매끈하게 다진 후, 길이 7~8cm 되는 타원형의 번데기가 된다. 이 기간의 유충은 몸이 크고 튼튼한 것 같지만 대단히 가냘프고 예민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기간의 2~3주 동안에는 유충과 번데기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p> <p>유충이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려면 유충 여러 마리를 선별하여 다른 용기에 넣어 관찰한다.</p> <p>용기는 주둥이가 넓은 병(잼병 등)을 사용하고 병 속에 흙을 6~7cm 깊이로 넣고 손가락으로 달걀 크기의 웅덩이를 만들어 그 속에 유충을 넣고 물을 뿌린 다음 1, 2개의 구멍이 뚫린 뚜껑을 닫고 검은색의 종이 천을 덮은 다음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p> <p>번데기는 머리가 위로 향한 상태로 된다.</p> <p>용기 내에 흙을 넣고 웅덩이를 만들어 그 속에 번데기를 세로로 놓은 다음 가끔 물을 뿜어 주면서 습도를 조절한다.</p> <p>약 1개월이 지나면 번데기는 날개가 돋아서 성충이 된다. 자연 상태에서 성충은 수일간 번데기의 집안에서 몸의 표면과 날개가 견고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땅 위로 나온다.</p> <p>주둥이가 넓은 병에 기르면 똥개를 벗기고 번데기의 변화와 우화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p>

## 참고 문헌

### 【단행본】

- 국립공원관리공단, 『四季百色사계백색의 자연-설악산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2016.
- 김정환 외, 『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 안내서』, 속초문화원, 2021.
- 김창환 외, 『이야기로 만나는 설악산국립공원 문화자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2019.
-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上)』, 속초문화원, 2006.
- 장정룡·양언석 공저, 『속초지역 구전설화』, 속초문화원, 1999.

### 【논문】

- 국립공원연구원장, 『2020년 설악산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최종보고서』,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021.
- \_\_\_\_\_, 『국립공원 정밀식생도(설악산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020.
- 윤충원 외,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4차기 설악산권역』,  
한국산림과학회, 2021.
- IUCN 종보전위원회 기준청원분과소위원회, 『IUCN 적색목록 범주 및 기준 지침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14.

### 【웹사이트】

-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https://species.nibr.go.kr/>)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https://www.heritage.go.kr/>)
-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ature.go.kr/>)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https://www.me.go.kr/wonju/>)

# 이야기로 만나는 속초

발행인 / 김계남(속초문화원 원장)  
편집인 / 양용석(속초문화원 사무국장)  
펴낸곳 / 속초문화원

집필인 / 이상만 천진초등학교 교사  
김영선 소야초등학교 교사  
김기웅 상평초등학교(오색분교) 교사  
박정남 인흥초등학교 교사

감 수 / 이수영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정규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장재환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기 획 / 전 욱(속초문화원 문화경영팀장)

디자인 · 제작 / MJ디자인주식회사

발행일 / 2022. 12.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전화 (033) 632-1231 / 전송 (033) 632-1241  
전자우편 sc2439@kccf.or.kr  
홈페이지 <http://sokcho-cultu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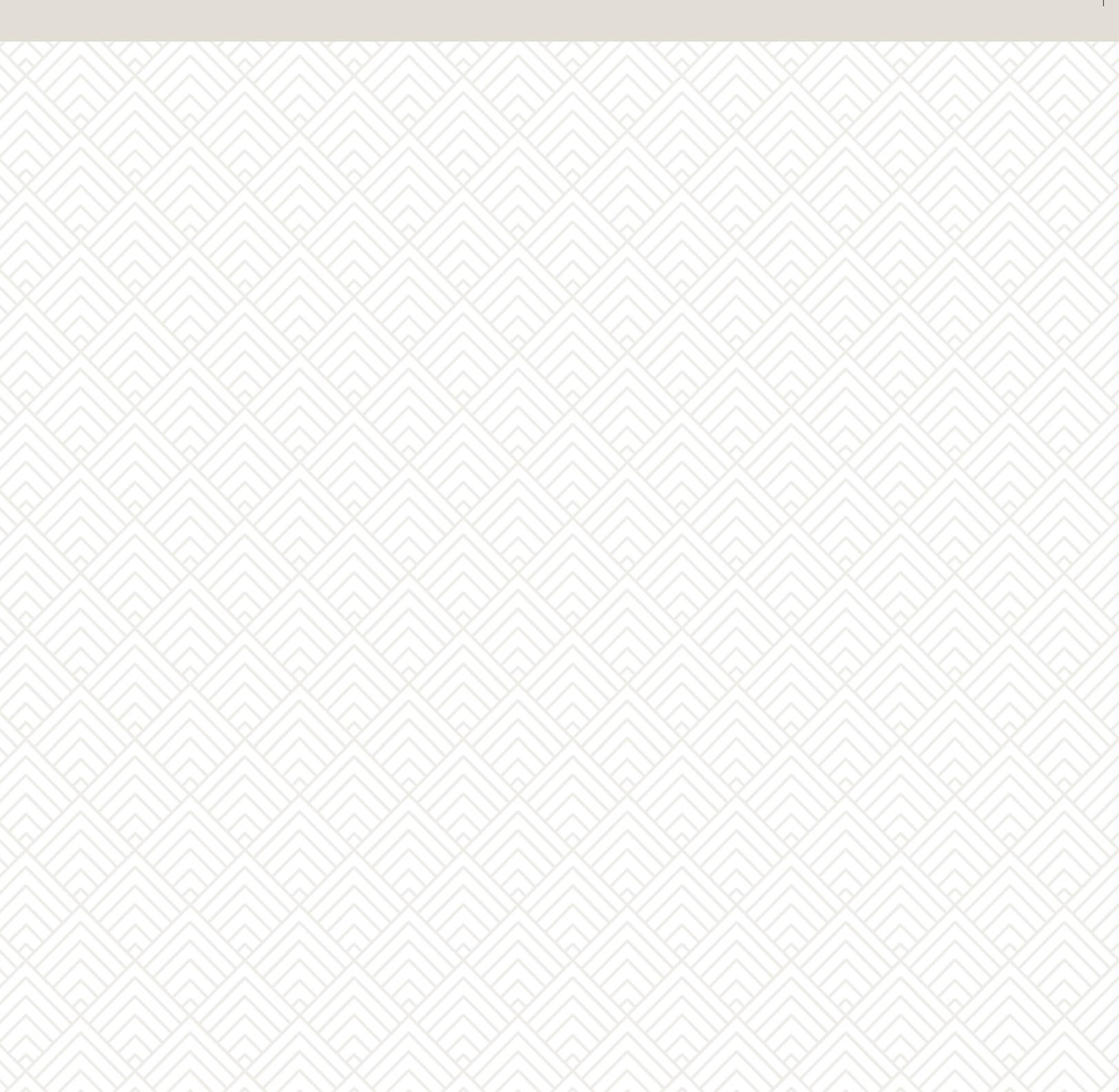
[비매품]

ISBN 979-11-96593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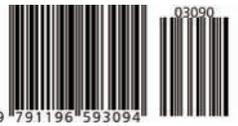
- ◇ 이 책의 저작권은 속초문화원 및 집필 저자에게 있으니 무단으로 전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책은 속초시 보조금 예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비매 품/무료  
03090



9 791196 593094  
ISBN 979-11-965930-9-4